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2023 서울가족보고서

—
서울가족 환경 6개년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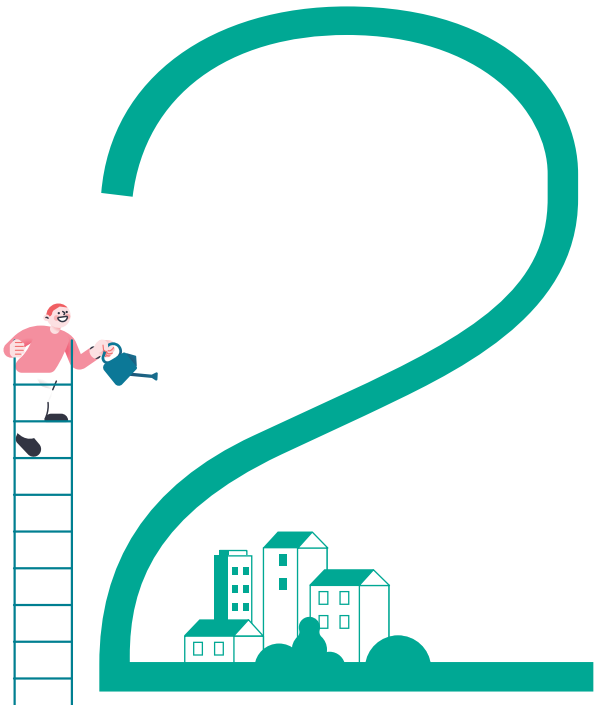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 서울가족보고서

서울가족 환경 6개년 동향분석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한눈에 보는 2023 서울가족정책



결혼·청년

- 공공 공간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 신혼부부 첫 출발 주택대출 상환금
-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 결혼검진
- 청년, 건강한 밥상



임신·출산

-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 임신부 맞춤형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002



다양한 가족

-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미혼모·부 양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엄마학교 운영 및 자녀 언어 지도



아이가 둘 이상일 때

- 다둥이 가족 혜택 확대
-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 세자녀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런 이용 (청소년)



자세한 내용은 [출산에서 양육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세요.
만능키는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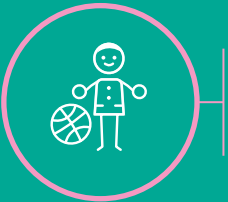
✓ 아이가 0-2세일 때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24~36개월)
- 서울형 0세 전담반 시범운영 (~12개월)
- 서울엄마아빠택시 i.M (~2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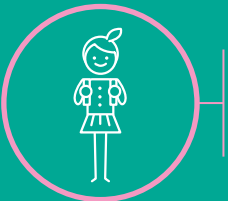
✓ 아이가 0-5세일 때

- 우리집 앞 고품격 공보육 시설 확충 (~5세)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개소 (~5세)
-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5세)
-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5세)



✓ 아이가 0-6세일 때

-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20개 공동체 확대
-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 일하는 엄마 안심 2배! 어린이집 석식 지원
- 서울장난감 도서관 확대



✓ 아이가 0-9세일 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행복 육아멘토의 「고마워」 특강 ▪ 출산·육아 존중 인식개선 운동 ▪ 아빠 육아달인 되기 프로그램 ▪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중식 무료 제공 ▪ 서울엄마아빠VIP존 ▪ 가족화장실 ▪ 가족배려주차장 ▪ 서울키즈 오케이존 ▪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 힐링타임 문화 프로젝트 ▪ 엄마아빠행복타운 ▪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 ▪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8~13세), 아버지교실, 패밀리세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충 ▪ 초등생 방과후 긴급일시돌봄 강화 (6~12세) ▪ 주요 경제단체 협력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 투자·출연기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 우먼업 프로젝트 (경력보유여성 지원) ▪ 아픈아이 일시돌봄·병행동행 서비스 (~12세) ▪ 등하원 전담 지원사업 (~12세) ▪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바로 요리 세트 할인 지원 (~18세) |
|---|---|

한눈에 보는 2023 서울가족보고서

1장 서울가족의 탄생



20-30대 서울시민 65%
“결혼할 의향 있다”

결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 증가

서울시민 70%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정책
“양육비, 교육비 지원”

서울시 주요 정책·서비스

✓ 청년, 건강한 밥상

요리교실과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공공 공간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예식장을 발굴하여, 합리적 비용으로 개성 있고 의미 있는 결혼식 종합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 종류의 제한 없이 총 22회까지 시술비 지원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에게 병원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두 자녀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 가능

2장 서울가족의 양육



자녀양육,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일

서울 양육자들
“한국사회가 부모 역할 응원해주지 않아”

자녀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여전

엄마 아빠의 일-생활 균형,
양육스트레스 감소의 열쇠

서울시 주요 정책·서비스

✓ 365일! 24시간! 모든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맞벌이 부부, 야간 주말근무 부모 등을 위해 미취학 영유아 가정에게 야간연장, 24시간, 공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등하원 전담, 아픈 자녀 병원동행 및 돌봄 지원 등 제공

✓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도입

✓ 서울 엄마아빠 택시 i.M(아이.엠)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게 나들이 및 외출 시 필요한 넓은 적재 공간, 카시트 등을 갖춘 택시 이용권 제공

✓ 서울엄마아빠VIP존 지정

도로, 문화시설, 공원, 수변공간 등 공공시설에 양육자와 아이 전용 공간인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및 확대

3장 서울가족의 관계



가족의 속성 중
혈연관계 중요성 감소, 심리적 유대 중요성 증가

연인관계만큼 행복한 신혼의 부부관계,
이후에도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기혼 여성, 남성보다 “부부관계 덜 평등”
교제 중인 여성, 남성보다 “연인관계 더 평등”

연령이 낮을수록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

서울시 주요 정책·서비스

▽ 서울시 가족여행 지원

서울행복여행 사업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에게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울형 여행이용권 제공

▽ 서울시 신혼부부학교

신혼기에 겪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 영위를 돕기 위해 부부 준비 교육, 부부관계 심층상담, 재무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 결혼검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갈등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결혼검진을 가족센터에서 실시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체 질환 및 장애가 있는 가족원을 돌보는 서울시 청년에게 일자리 연계, 심리상담, 간병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4장 서울가족의 생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주거비 부담”

20-30대 서울시민 32.7%,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낮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일·생활 균형의 첫걸음

30대 이상 서울시민, 일, 사회관계,
개인생활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

서울시 주요 정책·서비스

▽ 서울시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예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및 햇빛 서비스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의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햇빛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일·생활 균형에 대한 연구 및 기업 컨설팅 진행

▽ 서울시가족센터 패밀리서울 웹사이트

서울시가족센터 포털사이트 패밀리서울에서 교육, 상담, 문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2023 서울가족보고서 분석 데이터>

서울가족서베이 및 서울양육자서베이

2023 서울가족보고서는

<2023 서울가족서베이>,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음.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실시된 6년간의 서울가족서베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포함함



<2023 서울가족서베이>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20-64세(1959-2003년생) 서울시 거주자
- * **표집방법:** 성별 X 연령별 X 거주권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 * **표본크기:** 1,584명
- *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 **조사기간:** 2023. 6. 14.~6. 26.
- * **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2018-2023 서울가족서베이> 시계열 표본 특성

- * **2019-2023년:** 20-64세 서울시 거주자
- * **2018년:** 25-64세 서울시 거주자
 - ※ 2018년에는 25-74세를 조사했으나, 2023 서울가족보고서에서는 65-74세(48명)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 ※ 2018-2023 시계열 표본의 연령은 조사연도와 출생연도의 차이임
- * 표집방법, 조사방법, 조사업체는 6년간 동일함
- * 시계열 표본의 크기, 성별, 연령, 결혼지위, 맞벌이 여부, 자녀유무 및 자녀연령, 거주권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018-2023 서울가족세베이 시계열 표본 특성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4명		1,600명		1,949명		1,637명		1,703명		1,584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여성	532	50.5	812	50.6	995	51.1	827	50.5	876	51.4	814	51.4
	남성	522	49.5	788	49.3	954	49.0	810	49.5	827	48.6	770	48.6
연령	20~29세	118	11.2	324	20.3	378	19.4	366	22.4	371	21.8	347	21.9
	30~39세	312	29.6	366	22.9	492	25.2	354	21.6	375	22.0	346	21.8
	40~49세	264	25.1	376	23.5	465	23.9	370	22.6	379	22.3	348	22.0
	50~59세	274	26.0	393	24.6	448	23.0	369	22.5	392	23.0	360	22.7
	60~64세	86	8.2	141	8.8	166	8.5	178	10.9	186	10.9	183	11.6
결혼 지위	비혼(미혼)	352	31.9	635	39.7	881	45.2	798	48.8	788	46.3	747	47.2
	기혼	664	63.0	911	56.9	991	50.9	769	47.0	837	49.1	767	48.4
	이혼·별거·사별	38	3.6	54	3.4	77	4.0	70	4.3	78	4.5	70	4.4
자녀 유무 및 자녀 연령	무자녀	434	41.2	756	47.3	1,061	54.4	872	53.3	930	54.6	884	55.8
	만 0-9세	139	13.2	167	10.4	206	10.6	137	8.4	149	8.8	118	7.5
	만 10-18세	134	12.7	232	14.5	208	10.7	193	11.8	186	10.9	155	9.8
	만 19세 이상	347	32.9	445	27.8	474	24.3	435	26.6	438	25.7	427	27.0
맞벌이 (기혼)	맞벌이	321	48.3	488	53.6	429	43.3	410	53.3	478	57.1	402	52.4
	맞벌이 외	343	51.7	423	46.4	562	56.7	359	46.7	359	42.9	365	47.6
거주 권역	도심권	61	5.8	82	5.1	108	5.5	91	5.6	92	5.4	86	5.4
	동북권	312	29.6	497	31.1	598	30.7	497	30.4	520	30.5	474	29.9
	서북권	215	20.4	191	11.9	240	12.3	199	12.2	201	11.8	199	12.6
	서남권	135	12.8	490	30.6	594	30.5	503	30.7	520	30.5	486	30.7
	동남권	331	31.4	340	21.3	409	21.0	347	21.2	370	21.7	339	21.4

주: 1) 자녀연령은 첫째 자녀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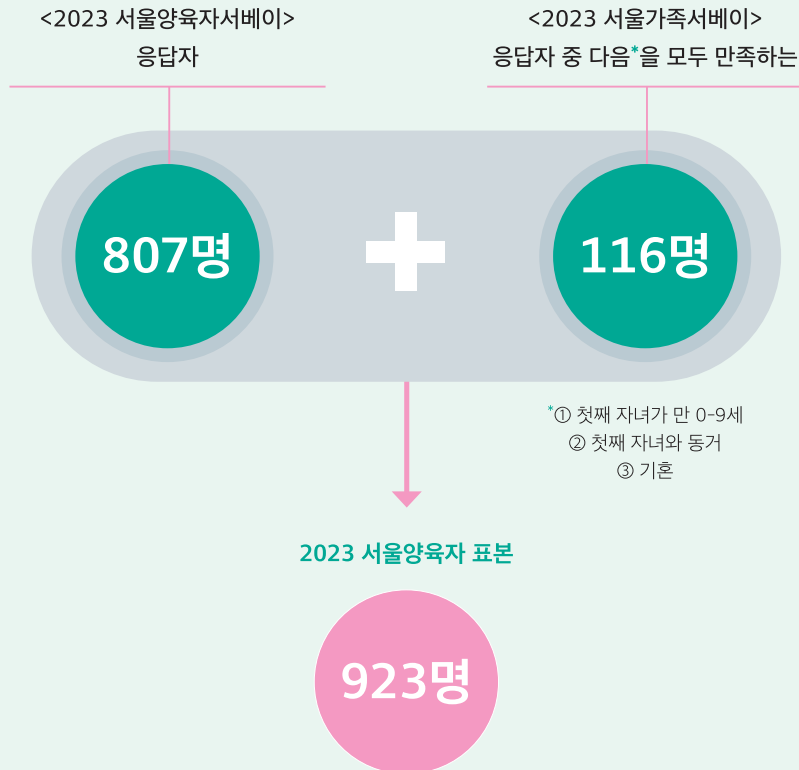
2)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공장·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었던 경우,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는 맞벌이에 포함하지 않았음)

3) 2018년에는 25-74세를 조사했으나, 2023 서울가족보고서에서는 65-74세(48명)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만 0-9세 자녀를 둔 20-64세 기혼 서울시 거주자
- * **선정조건:**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20-64세(1959-2003년생) 서울시 거주자: 서울가족서베이와 동일
 - ② 첫째 자녀가 만 0-9세: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 대상 자녀 연령
 - ③ 첫째 자녀와 동거: 실질적인 자녀양육 상황
 - ④ 기혼: 엄마, 아빠 모두에 대한 응답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
- * **표집방법:** 자녀연령 X 양육자 성별 X 맞벌이 여부 비례 할당표집
- * **표본크기:** 807명
- *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 **조사기간:** 2023. 6. 14.~6. 26.
- * **조사업체:** ㈜한국리서치

2023 서울양육자 표본 특성



[표] 2023 서울양육자 표본 특성

		양육자 전체		영아 부모		유아 부모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923명		284명		346명		293명	
		명	%	명	%	명	%	명	%
성별	엄마	438	47.5	149	52.5	187	54.0	149	50.9
	아빠	485	52.5	135	47.5	159	46.0	144	49.1
연령대	20대	19	2.1	5	1.8	9	2.6	5	1.7
	30대	459	49.7	201	70.8	168	48.6	90	30.7
	40대 이상	445	48.2	78	27.4	169	48.8	198	67.6
자녀수	1명	641	69.4	263	92.6	237	68.5	141	48.1
	2명	263	28.5	20	7.0	105	30.3	138	47.1
	3명 이상	19	2.1	1	0.4	4	1.2	14	4.7
맞벌이	맞벌이	539	58.4	164	57.7	215	62.1	160	54.6
	맞벌이 외	384	41.6	120	42.3	131	37.9	133	45.4
취업여부 성별	취업모	259	53.4	79	53.0	105	56.1	75	50.3
	전업모	226	46.6	70	47.0	82	43.9	74	49.7
	취업부	416	95.0	127	94.1	155	97.5	134	93.1
	전업부	22	5.0	8	5.9	4	2.5	10	6.9
거주권역	도심권	50	5.4	12	4.2	24	6.9	14	4.8
	동북권	252	27.3	78	27.5	101	29.2	73	24.9
	서북권	128	13.9	45	15.8	39	11.3	44	15.0
	서남권	299	32.4	91	32.0	112	32.4	96	32.8
	동남권	194	21.0	58	20.4	70	20.2	66	22.5

주: 1) '영아 부모'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 부모'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는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 (첫째 자녀 기준)

2)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공장·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었던 경우,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는 맞벌이에 포함하지 않았음)



2023 서울가족서비스 사용설명서

- ❶ 이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2023 서울가족서비스」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 ❷ 「2023 서울가족서비스」는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조사로, 2018년 시작되어 올해가 6번째 조사입니다.
 - 1)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 2) 본 조사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계가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 중 복수응답, 중복응답 설문은 구성비 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4)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의 분석 대상자 수는 설문문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출처에 분석대상 및 대상자 수를 명시하였습니다.
 - 5) 「2023 서울가족서비스」에서 조사되지 않은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은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본문과 그래프에 제시하였습니다.
- ❸ 가족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QR코드 및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원자료가 변경·삭제된 경우 QR코드 및 관련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❹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가족센터 (☎ 02-318-81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울가족의 탄생

- 014 ----- 1. 부부의 탄생
- 026 ----- 2. 부모의 탄생

II. 서울가족의 양육

- 054 ----- 1. 부모역할 및 자녀돌봄
- 078 ----- 2.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여가

III. 서울가족의 관계

- 092 ----- 1. 전반적 가족관계
- 106 ----- 2. 부부관계
- 118 ----- 3. 부모자녀관계

IV. 서울가족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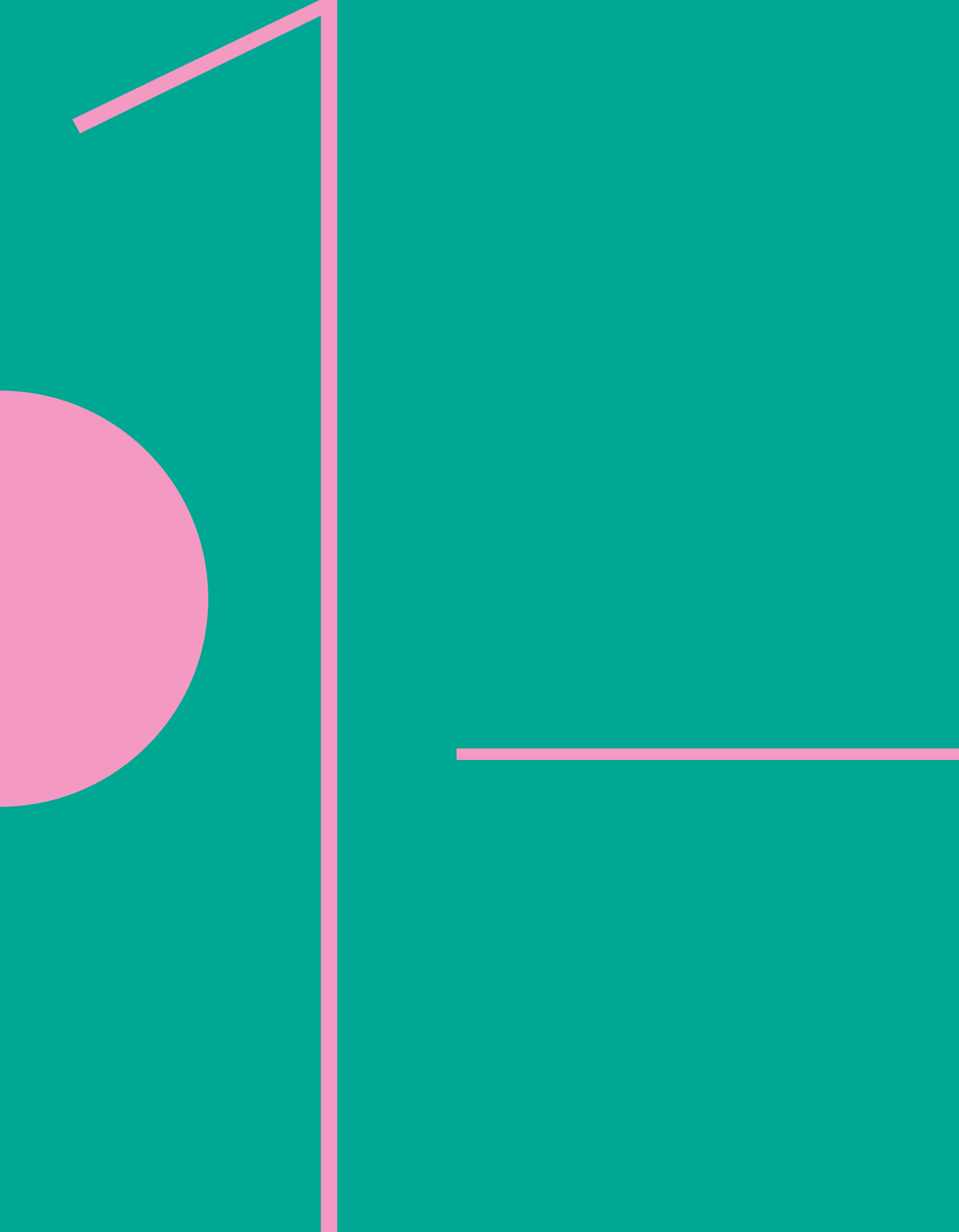
- 128 ----- 1. 경제생활 및 주거생활
- 138 ----- 2. 일과 생활
- 150 ----- 3. 가족지원서비스

V. 서울가족의 현황

- 162 ----- 1. 인구 및 가구
- 165 ----- 2. 혼인 및 신혼부부
- 167 ----- 3. 출생
- 169 ----- 4. 맞벌이가구
- 172 ----- 5. 한부모가구
- 175 ----- 6. 비혼모(부), 청소년모(부), 조손가구
- 178 ----- 7. 다문화가구
- 185 ----- 8. 수급가구
- 187 ----- 9. 가족돌봄청(소)년
- 189 ----- 10.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 190 ----- 11. 비혈연가구
- 191 ----- 12. 반려동물 보유가구

부록.

- 194 ----- 1. 2015-2022 서울가족보고서
- 195 ----- 2.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서울가족의 탄생

1. 부부의 탄생
2. 부모의 탄생

01.

부부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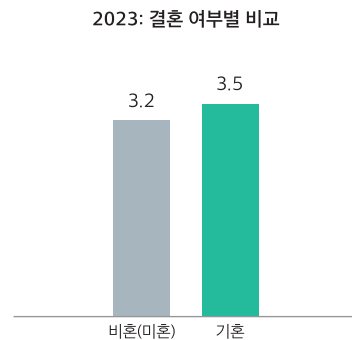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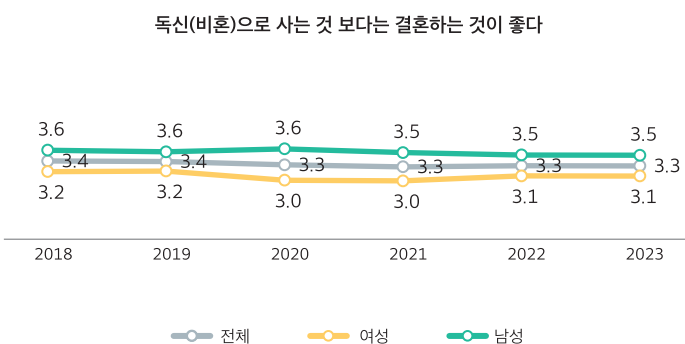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결혼 및 비혼에 대한 태도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과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여 결혼 및 비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 2023년에 평균 3.3점으로 보통보다 미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6년간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결혼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보통이다’)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2023년 평균을 기준으로 남성(3.5점)이 여성(3.1점)보다, 기혼(3.5점)이 비혼(미혼)(3.2점)보다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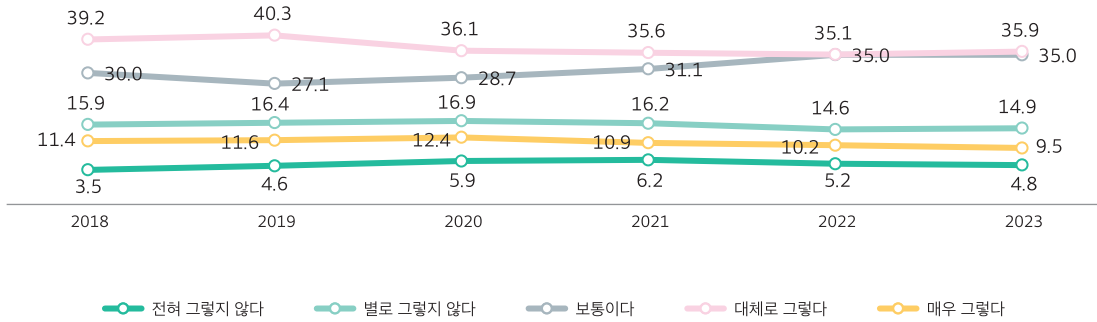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 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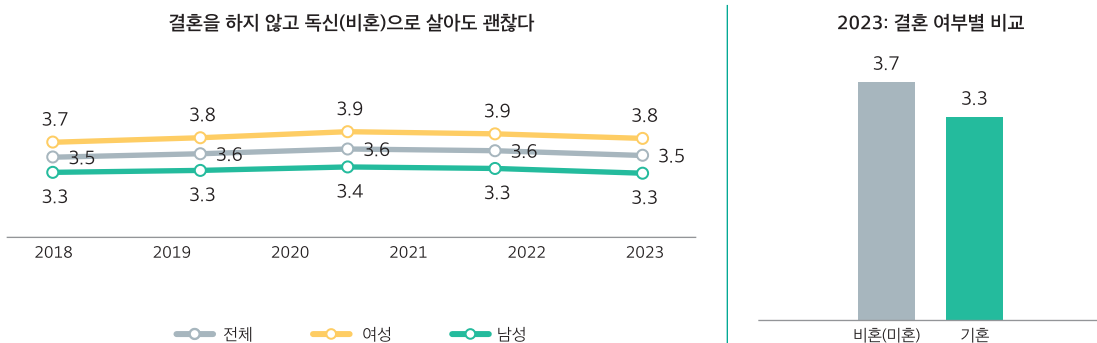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미세하게 높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2023년 평균 3.5점으로 ‘보통이다’와 ‘약간 그렇다’의 중간 수준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독신(비혼)에 좀 더 긍정적이었다.

독신(비혼)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주: 2021년은 문항의 표현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독신(비혼)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높은 편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입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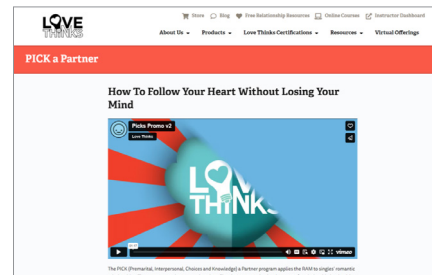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태도를 성찰해보는 프로그램 필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가족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태도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혼란스러움에서 비롯된 유보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족센터 등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해외사례

미국 | 싱글을 위한 관계교육 ‘PICK(Premarital, Interpersonal, Choices and Knowledge)’

미국의 PICK 프로그램은 커플이 아닌 싱글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교육 프로그램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파트너 선택에서부터 건강한 커플관계 형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이 신중하게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형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예비부부, 데이트커플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 단위 관계교육과 커플단위 관계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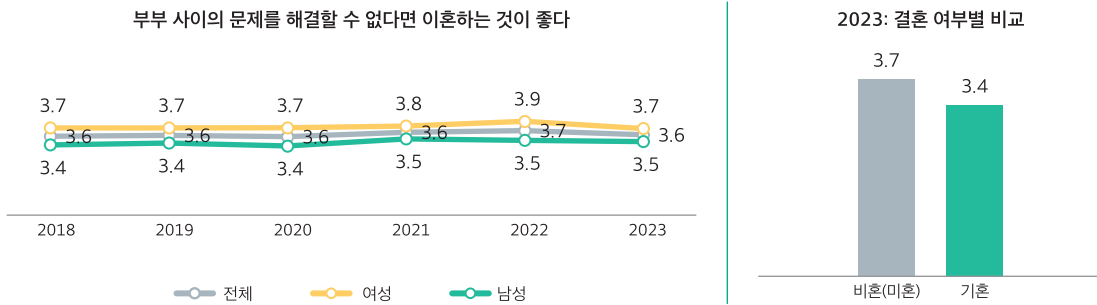
자료: <https://lovethinks.com/singles/>



[서울가족서베이] 이혼 및 재혼, 비동거 부부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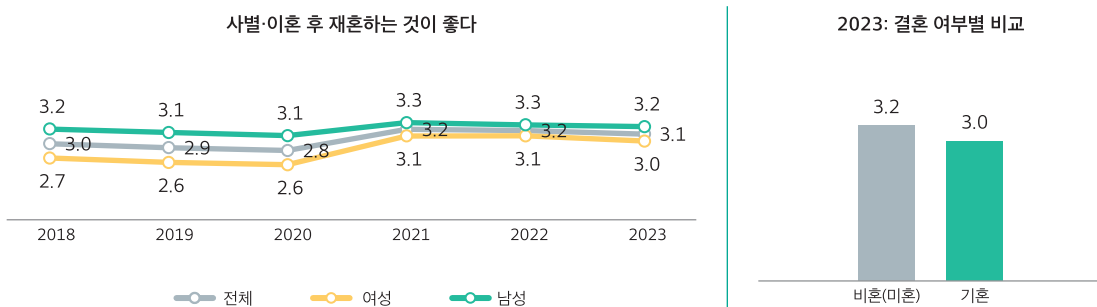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이혼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높은 편**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이혼에 대해 더 동의합니다.

재혼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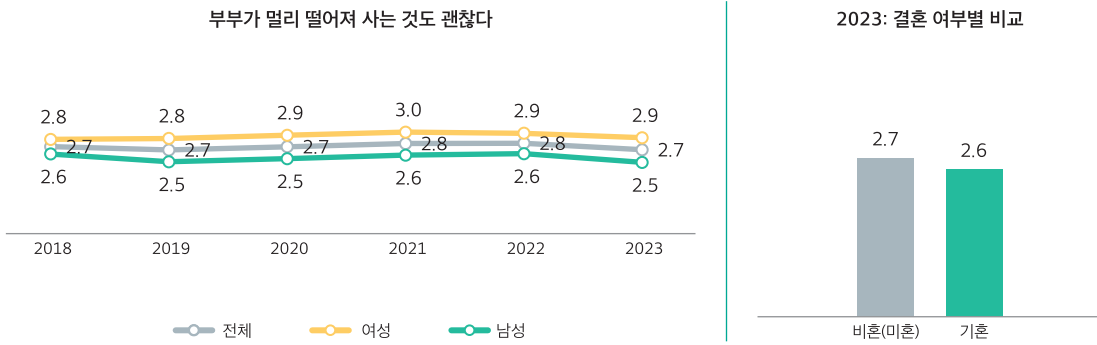


주: 2018-2020년은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좋다', 2021-2023년은 '사별·이혼 후 재혼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재혼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인 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더 동의합니다.

비동거 부부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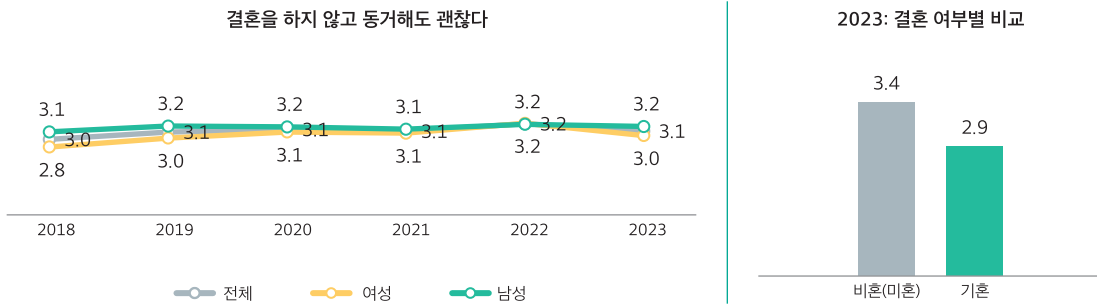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낮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동의합니다.**



[서울가족서베이] 결혼 외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동거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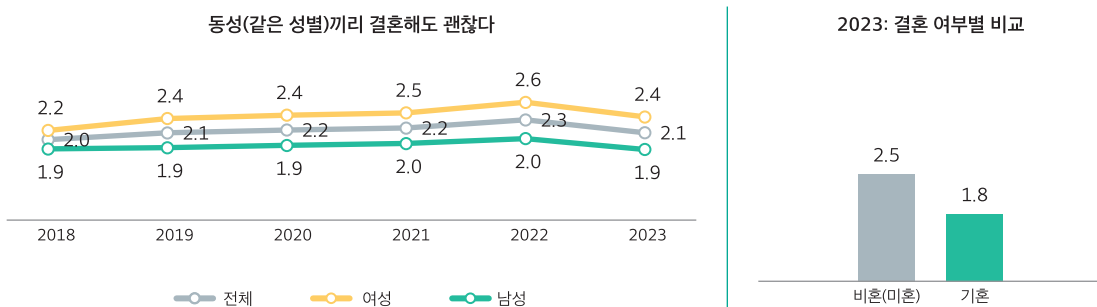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 수준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더 동의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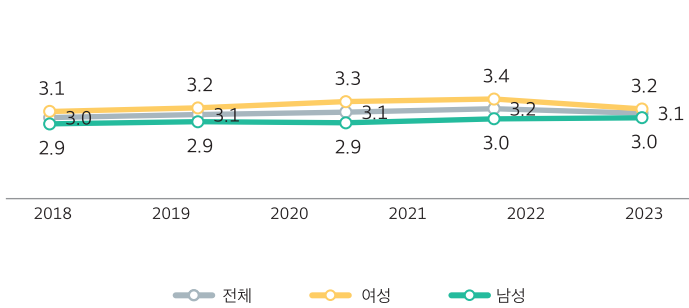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동성(같은 성별)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낮은 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비혼(미혼)보다 더 반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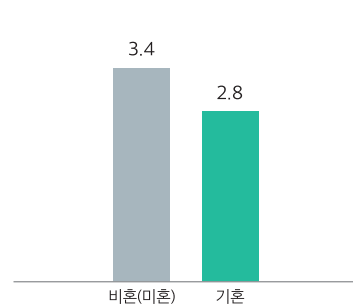
생활동반자관계 등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9-2023년)

< 단위: 점 >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동반자관계 등과 같은 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살아도 괜찮다



2023: 결혼 여부별 비교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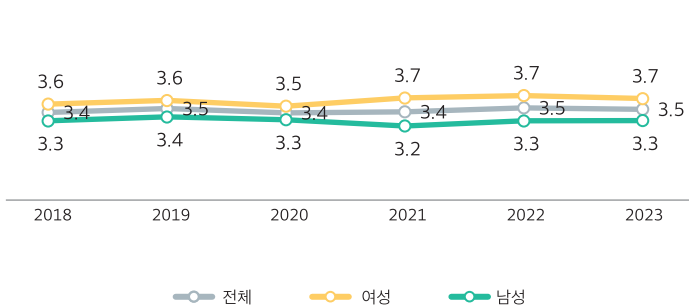
결혼하지 않고 생활동반자관계 등과 같은 법적 파트너십을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은 **보통 수준**으로 동의하며(범위: 1-5점),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상대적으로 더 동의**합니다.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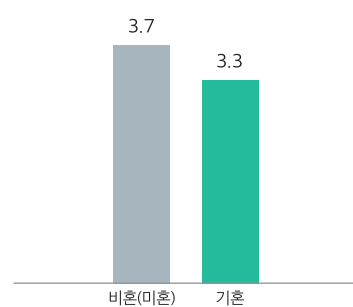
1인가구 공동체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2018-2023년)

< 단위: 점 >

1인가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도 괜찮다



2023: 결혼 여부별 비교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

1인가구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더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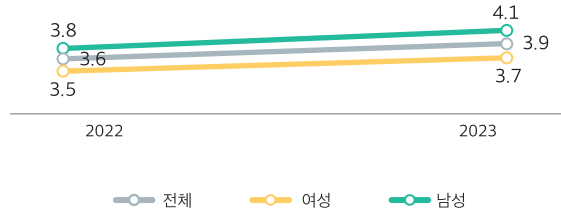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연애의향

결혼한 적이 없고, 현재 연애 중이지 않으며, 자녀가 없는 20-30대 서울시민의 연애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9점이었으며 2022년에 비해 높았다. 연애의향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남성(4.1점)이 여성(3.7점)에 비해 연애의향이 더 있었다.

연애의향: 전체 및 성별(2022-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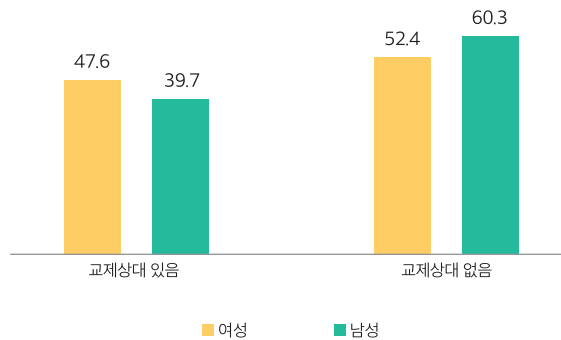
주: 2022년은 '언젠가' 연애할 의향, 2023년은 '내가 연애할 의향'에 대한 동의 수준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현재 연애 중이지 않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2022년 324명, 2023년 312명)

20-30대 비혼(미혼) 남성이 비혼(미혼)여성보다 연애할 의향이 더 있습니다.

연애여부: 성별(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5명)

20-30대 비혼(미혼) 여성의 47.6%, 남성의 39.7%가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연애하고 있을까? 

2023 서울가족서베이에 참여한 결혼한 적이 없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연애여부 관련 요인을 이항로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의향이 있을 때 연애하고 있을 확률도 높아서 청년 서울시민에게 연애와 결혼은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여성



- ✔ 연령이 낮을수록
- ✔ 결혼의향이 있을수록
- ✔ 일의 중요도가 낮을수록



20-30대 여성이 연애 중일 확률이 높음

● 남성



- ✔ 교육연수가 길수록
- ✔ 소득이 많을수록
- ✔ 향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수록
- ✔ 결혼의향이 있을수록



20-30대 남성이 연애 중일 확률이 높음



청년 일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청년, 건강한 밥상

서울시는 2023년 4월부터 청년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은 요리교실과 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청년 일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일인가구 간 사회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한 밥상’은 서울시 5개 자치구(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 동작구)에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 일인가구는 각 자치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인가구포털 lin.seoul.go.kr 참고)



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4272?tr_code=s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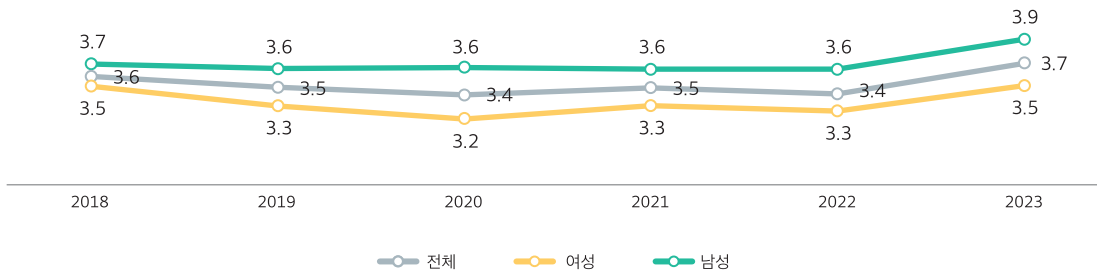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결혼의향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가 결혼할 의향(범위: 1-5점)은 최근 6년간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여성과 남성의 결혼의향이 2022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3년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있다’+‘매우 있다’)은 65.4%였고, 결혼의향 평균의 성별 차이는 유의했다.

결혼의향: 전체 및 성별(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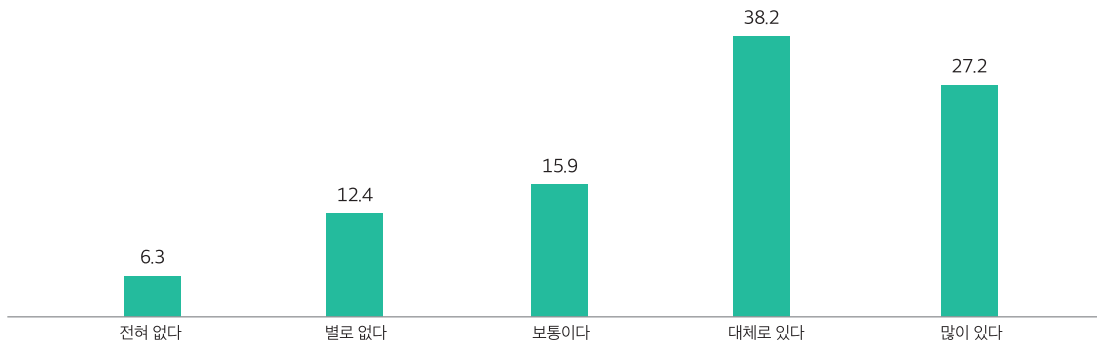
주: 2018-2020년은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1-2022년은 '내가 결혼할 의향', 2023년은 '(언젠가) 결혼할 의향(재혼 포함)에 대해 1-5점으로 응답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2018년 266명, 2019년 510명, 2020년 664명, 2021년 607명, 2022년 603명, 2023년 555명)

20-30대 비혼(미혼) 서울시민의 결혼의향은 '대체로 있다'에 가까우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결혼의향: 전체(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5명)

20-30대 비혼(미혼) 서울시민의 65.4%는 결혼할 의향이 대체로 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결혼의향이 더 있을까?

2023 서울가족서베이에 참여한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결혼의향 관련 요인을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20-30대 여성은
결혼할 의향이
더 있음

● 남성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20-30대 남성은
결혼할 의향이
더 있음



서울시의 예비부부 지원

공공 공간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서울시는 예비부부의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한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공간을 활용한 예식장을 발굴·조성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결혼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주거지 또는 생활권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패밀리서울 누리집 참고)

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83796?tr_code=s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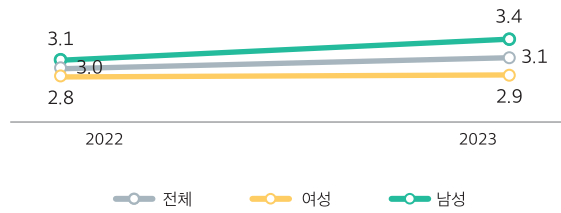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동거의향

동거의향: 전체 및 성별(2022-2023년)

< 단위: 점 >



주: 2022년은 '내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의향', 2023년은 '결혼하지 않고 언젠가' 연인과 동거할 의향에 대한 동의 수준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동거 중이지 않은 20-30대 응답자 2022년 603명, 2023년 542명)

결혼한 적이 없는 20-30대 서울시민이 결혼하지 않고 연인과 동거할 의향(범위: 1-5점)은 **보통 수준**이며, **남성의 동거의향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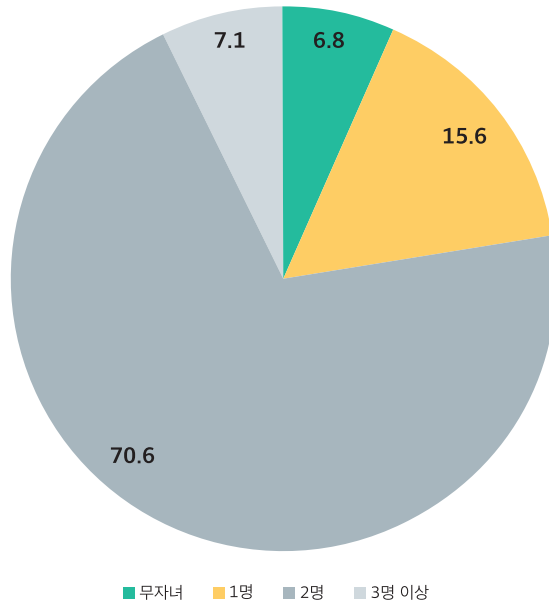
부모의 탄생



[서울가족서비스]
이상적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전체(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

서울시민의 70.6%는 자녀가 2명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 0.59명과 이상적 자녀 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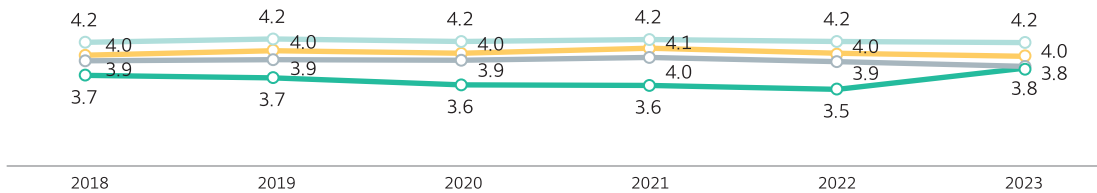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됨에 대한 태도

서울가족서베이에서는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조사해왔다.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태도 문항 중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문항 중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문항의 동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됨에 대한 태도: 전체(2018-2023년)

< 단위: 점 >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주: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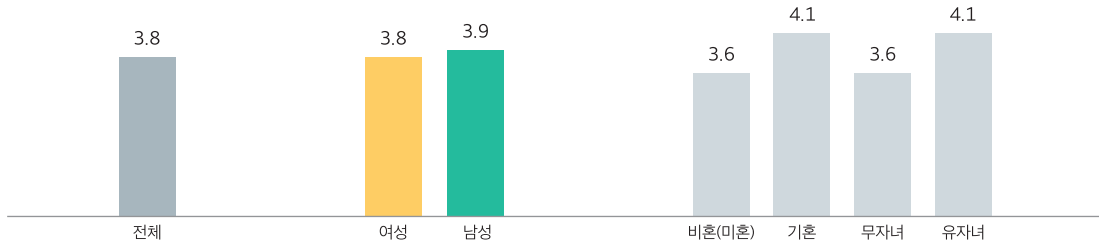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부모됨의 **부정적인 측면(힘든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함, 경제적 부담)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에는 문항을 추가하여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태도 3문항, 부정적 태도 3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됨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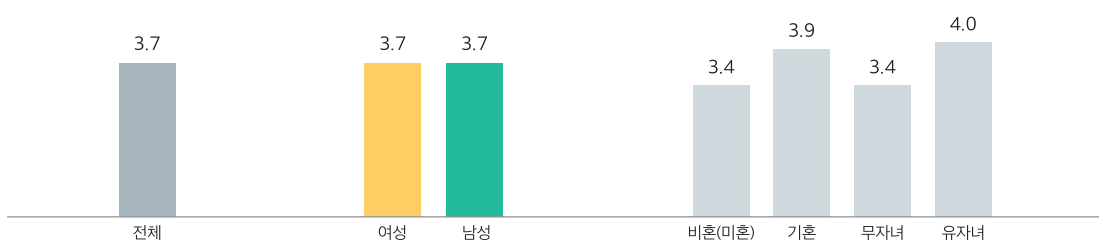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 자녀유무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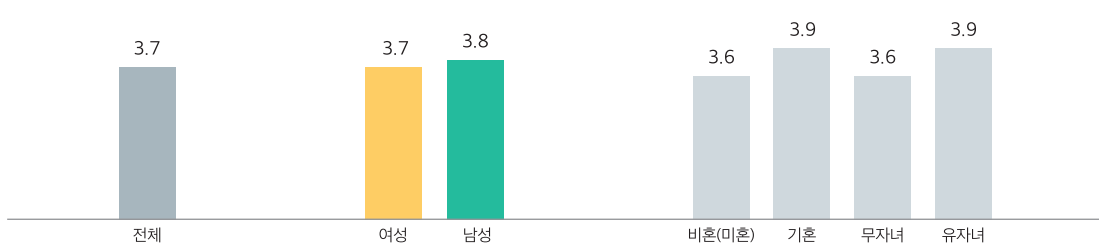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



주: 2023 서울가족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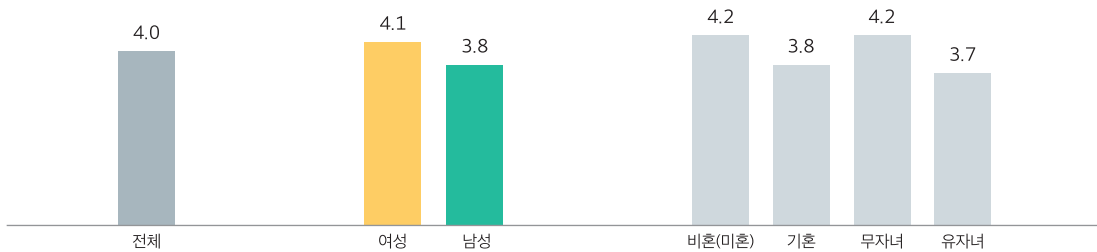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범위: 1-5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기혼 및 유자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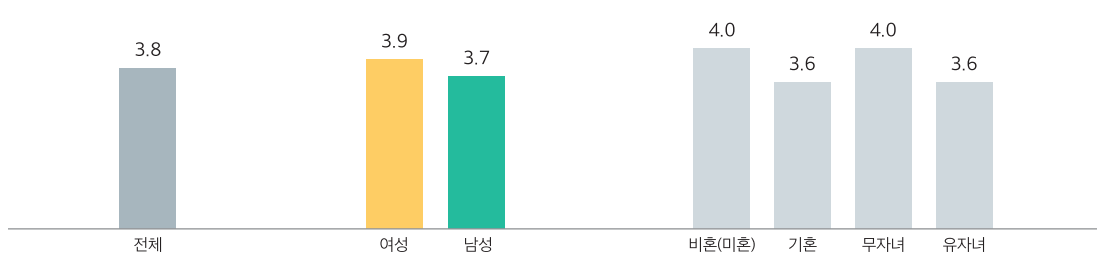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 자녀유무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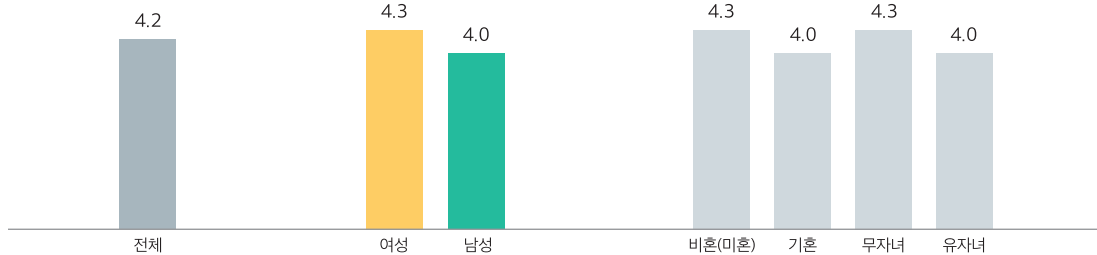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주: 2023 서울가족서베이

서울시민은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범위: 1-5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여성, 비혼(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 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정책·서비스

2030 청년세대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토크콘서트

서울시는 결혼을 망설이는 2030 청년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선택의 경험담을 듣는 '2023 결혼공감 토크콘서트' 를 2023년 10월 26일에 개최하였다.

이 토크콘서트에는 사전 신청한 20~30대 청년 100명이 참여해 결혼과 관련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그계 대표 잉꼬부부 김원호·심진화 부부와 KBS 남자 아나운서 첫 육아휴직자로 육아아빠의 성장기를 다룬 '라테파파'의 저자 김한별 아나운서, 비혼주의자였다가 결혼한 1년 8개월 차 신혼부부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김짠부' 부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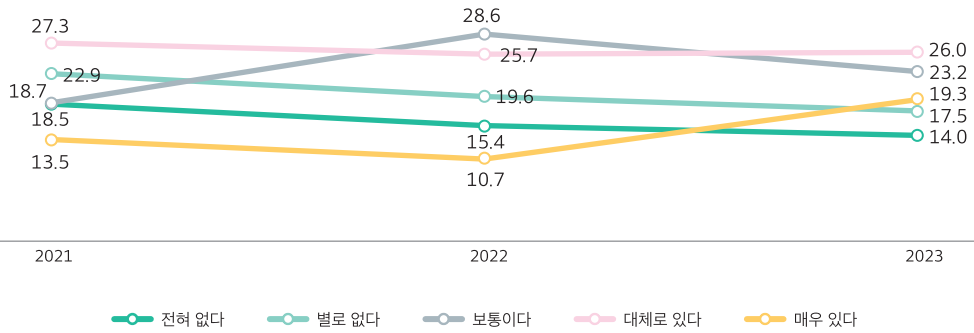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됨 의향

부모됨 의향: 전체(2021-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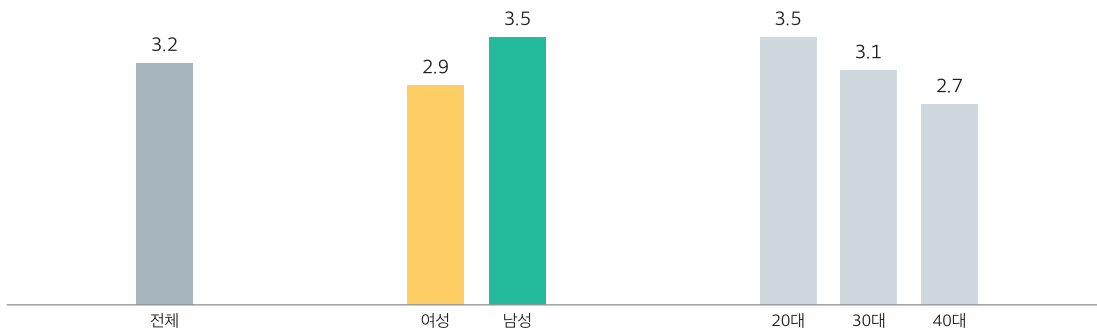


주: 2021년 '자녀를 낳을 의향', 2022년 '내가 부모가 될 의향', 2023년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에 대한 동의 수준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응답자 2021년 728명, 2022년 723명, 2023년 680명)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의 부모됨 의향(범위: 1-5점)은 2021-2023년 사이에 **없다**(‘전혀 없다’ + ‘별로 없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매우 있다**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부모됨 의향: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응답자 680명)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서울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범위: 1-5점)은 **보통 수준**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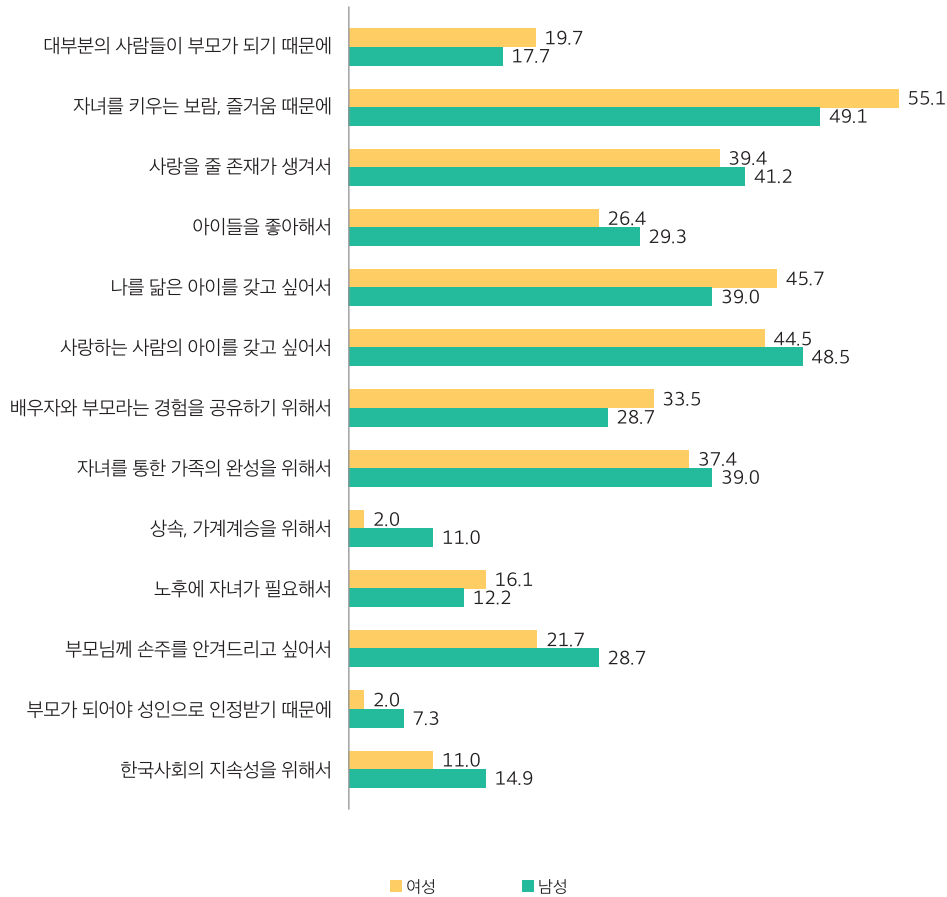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부모됨 의향이 '대체로' 또는 '많이' 있거나 '보통'인 응답자가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로 복수 선택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여성은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이 55.1%, '나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45.7%,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44.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49.1%,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48.5%,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41.2%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성별(2023년)

< 단위: % >



주: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부모됨 의향 보통 + 대체로 있음 + 많이 있음 582명)

자녀가 없는 서울시민은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부모가 될 의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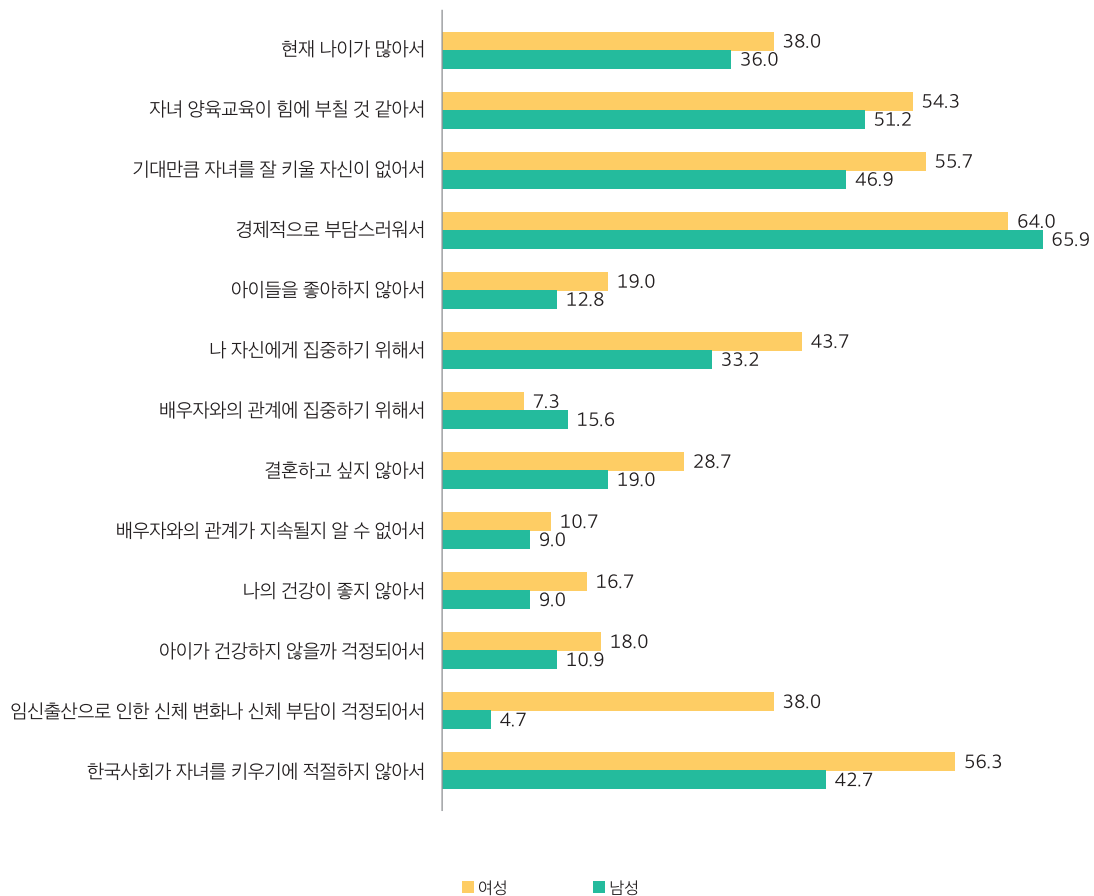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부모됨 의향이 '별로' 또는 '전혀' 없거나 보통인 응답자가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로 복수 선택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64.0%, '한국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56.3% 순이었고, 남성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65.9% '자녀양육, 교육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 51.2% 순이었다.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성별(2023년)

< 단위: % >



주: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부모됨 의향 보통 + 별로 없음 + 전혀 없음 511명)

자녀가 없는 서울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남녀 모두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 교육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을까?

2023 서울가족서베이에 참여한 결혼경험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이 자녀를 가질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30대 무자녀 여성



- ✓ 연령이 낮을수록
- ✓ 소득이 높을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할수록
- ✓ 사회관계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개인생활의 중요도가 낮을수록
-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20-30대 무자녀 남성



- ✓ 향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할수록
-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가족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개인생활의 중요도가 낮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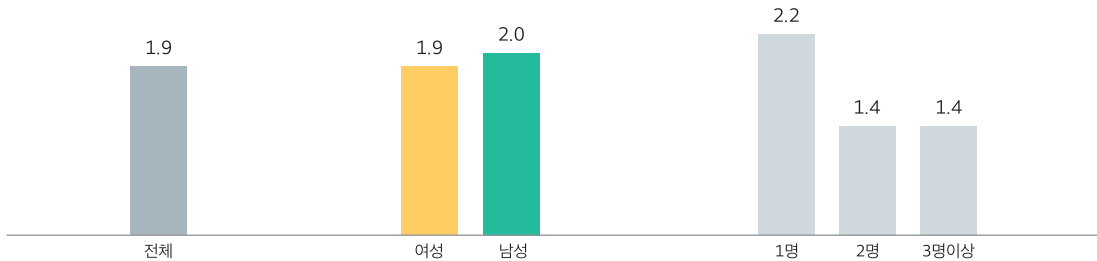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 서울양육자서베이] 추가 출산의향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20-40대 서울시민이 자녀를 더 가질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1.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평균 2.2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3점(보통이다)보다 낮아 추가 출산의향은 낮은 수준이었다.

추가출산 의향: 전체 및 성별, 자녀수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중 현재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20-40대 응답자 1,047명

※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첫째 자녀 만 0-9세(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 첫째 자녀 만 10세 이상(2023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첫째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고, 이 자녀와 동거 중이며, 현재 기혼상태인 부모 383명)

자녀가 있는 20-40대 기혼 서울시민이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은 낮습니다.**

서울가족 **클로즈업**

#추가 출산의향

어떤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높을까?

2023 서울가족서베이 및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응답자 중 기혼이면서 자녀가 1명인 20-40대 부모가 자녀를 더 가질 의향 관련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



- ✓ 연령이 낮을수록
- ✓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 ✓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 ✓ 부모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가 1명인
20-40대 엄마의
추가 출산의향이
더 있음

● 남성



- ✓ 연령이 낮을수록
- ✓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자녀가 1명인
20-40대 아빠의
추가 출산의향이
더 있음

● 상용직 남성 근로자



- ✓ 연령이 낮을수록
- ✓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 ✓ 부부관계 행복도가 높을수록
-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가 1명인
20-40대 상용직 아빠의
추가 출산의향이
더 있음

📷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첫 자녀 출산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지원으로 정책 세분화 필요

2023 서울가족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가 없는 비혼(미혼) 20-40대가 자녀를 갖고 부모가 될 의향을 예측하는 요인, 자녀가 한 명인 기혼 20-40대가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을 예측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자녀가 없는 이들이 부모가 될 의향에는 경제적 요인(소득, 향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 및 가치관 요인(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긍정적 자녀관, 부정적 자녀관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한 명인 여성이 자녀를 더 가질 의향에는 도구적 자녀관, 부모로서의 행복감이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자녀가 한 명인 상용직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행복할수록, 육아휴직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가질 의향에는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나, 자녀를 둘 이상 가질 의향과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라서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가 된 이후의 긍정적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자녀가 생긴 이후의 경험이 둘째 자녀 출산 계획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한다(우공평, 이재림, 2022; 진경선, 김고은, 2020; 최여진, 조희선, 2018). 또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자녀와 좀 더 밀도 있게 상호작용해 본 경험이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육아휴직과 출산율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현재의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자녀인 사람이 자녀를 한 명 갖도록 지원하는 것과 이미 자녀가 한 명 있는 부모가 자녀를 더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됨 의향(출산 의향)과 추가 출산의향의 예측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볼 때,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도 첫 자녀 출산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 및 문화를 구성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확대도 그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자료: 1) 우공평, 이재림(2022). 중국 기혼여성의 자녀양육기 발달과업과 둘째 출산의향: 부모역할 적응, 양육분담, 부부적응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0(1), 147-162.

2) 진경선, 김고은(2020). 후속 출산을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1-29.

3) 최여진, 조희선(2018). 유자녀 임신부의 후속출산 결정 경험. 가정과삶의질연구, 36(1), 2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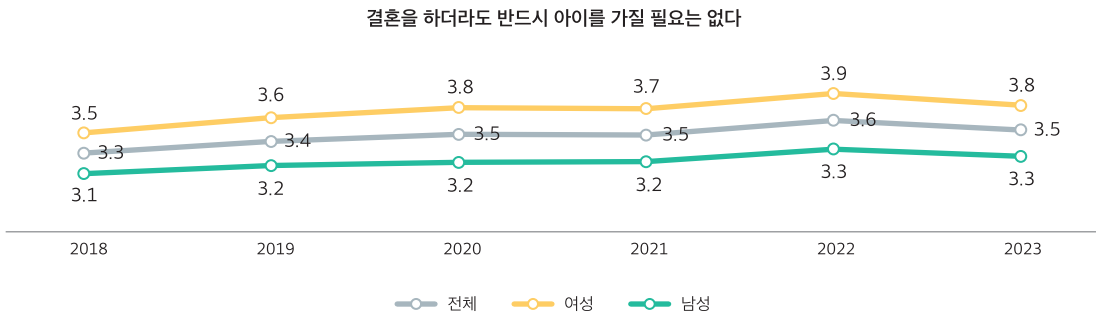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무자녀 및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6년간 미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동의 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 평균은 여성(3.8점)이 남성(3.3점)에 비해, 비혼(미혼)(3.9점)이 기혼(3.2점)에 비해, 무자녀(3.8점)가 유자녀(3.1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무자녀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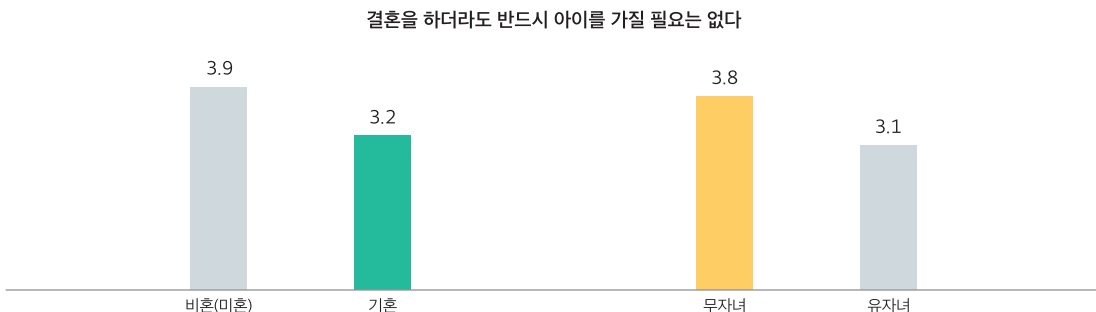


주: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높습니다.**

무자녀에 대한 태도: 결혼 여부별, 자녀유무별(2023년)

< 단위: 점 >



주: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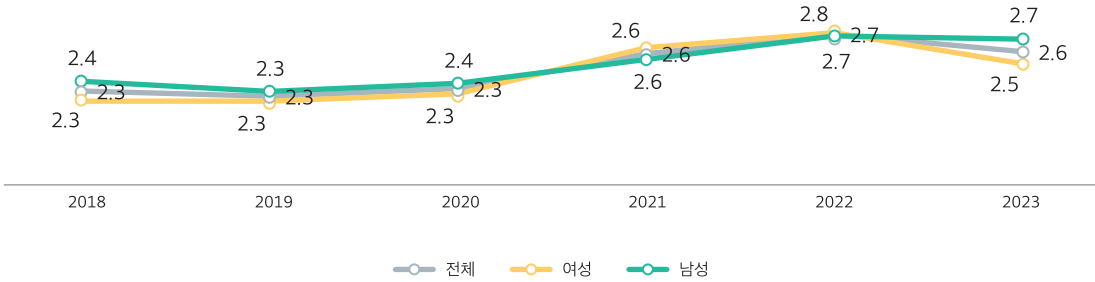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비혼(미혼)이 기혼보다,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해 더 동의합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2018-2023년)

< 단위: 점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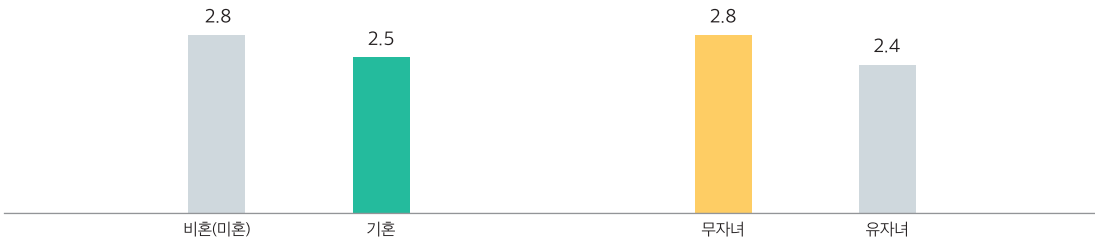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범위:1-5점)은 **보통보다 낮은 편**입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 결혼 여부별, 자녀유무별(2023년)

< 단위: 점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주: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비혼(미혼)인 경우,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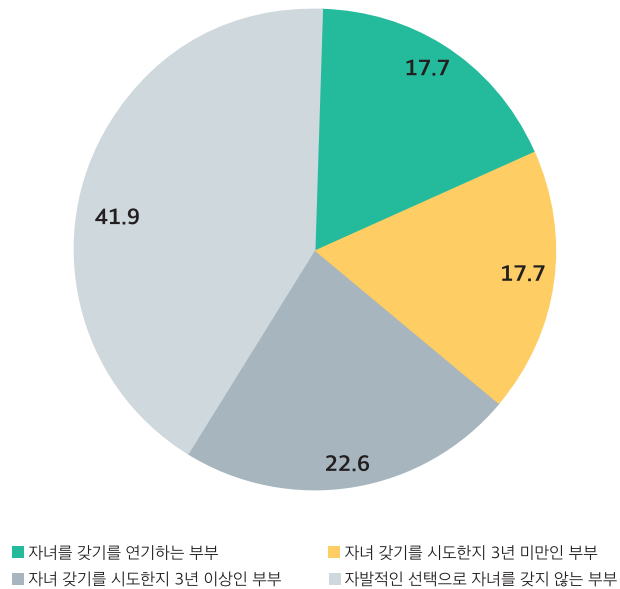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무자녀 유형

자녀가 없는 기혼자 124명에게 4가지의 대표적인 무자녀 유형 중 무엇에 가까운지 질문한 결과, 41.9%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갖기를 시도한 지 3년 이상인 부부' 22.6%, '자녀 갖기를 시도한 지 3년 미만인 부부' 및 '자녀 갖기를 연기하는 부부'라는 응답이 각각 17.7%로 나타났다.

무자녀 유형: 전체 기혼 무자녀(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현재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응답자 124명)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서울시민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자발적 무자녀**이고, **열 명 중 두 명** 정도는 자녀 갖기를 3년 이상 시도하고 있는 **비자발적 무자녀**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지원 횟수는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http://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면 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4038?tr_code=sweb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는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2023년 7월 개소했다. 이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센터장)와 산부인과 전문의(부센터장)를 중심으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난임부부, 임신부,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예약(강남센터: 02-2019-4581, 송파센터: 02-6956-6248), 또는 온라인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누리집(www.mindcare-for-family.kr)에서 상담 및 예약하면 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4412>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현재 임신 계획이 없으나 추후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2023년 9월부터 지원한다. 단, 일부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 점수가 적용된다. 자세한 자격 및 절차 확인과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할 수 있다.

출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881>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는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이며, 기형아 검사비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7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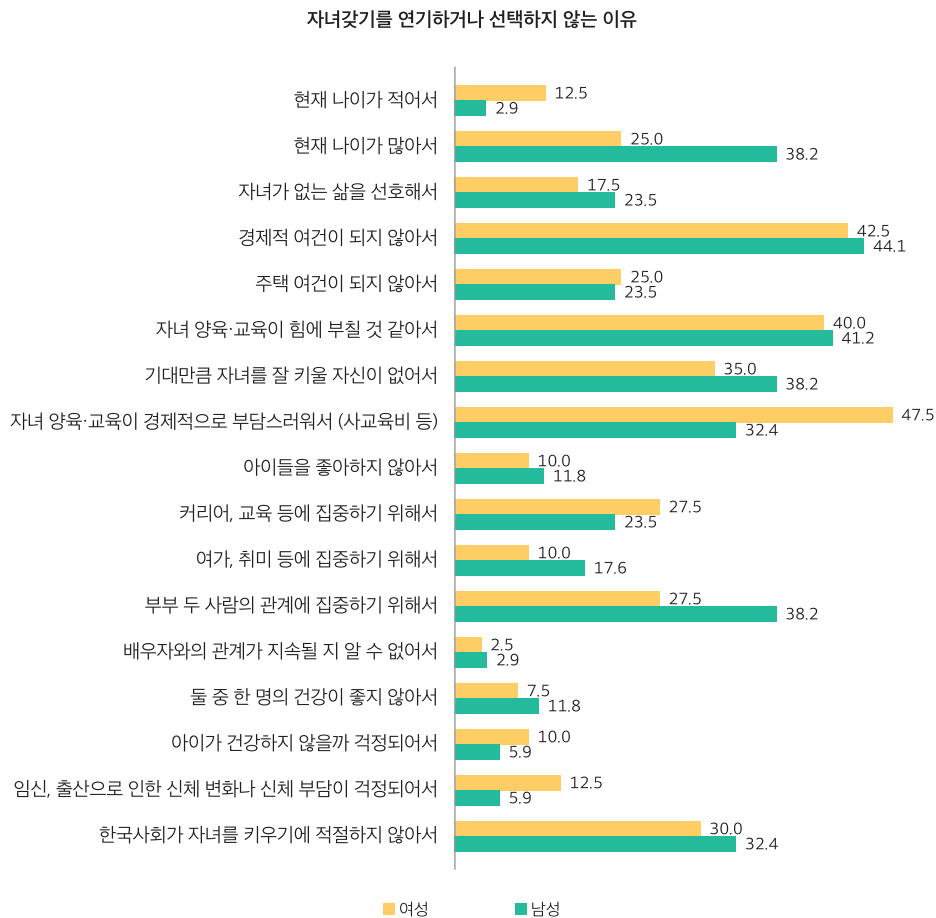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됨 연기 및 자발적 무자녀 이유

무자녀 유형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이거나 '자녀 갖기를 연기하는 부부'라고 응답한 74명에게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를 알아보았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교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사교육비 등)(47.5%),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42.5%)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44.1%), '자녀 양육·교육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41.2%)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무자녀 이유: 전체 무자녀 및 성별(2023년)

< 단위: % >



주: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 선택 문항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무자녀 유형이 '자녀 갖기를 연기하는 부부',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인 응답자 7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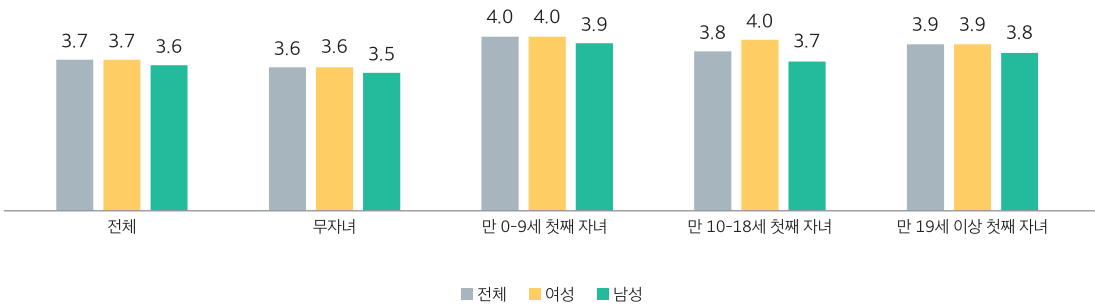
무자녀 기혼 서울시민은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자발적 무자녀를 선택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 & 서울양육자서베이]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음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음: 전체 및 성별(2023년)

< 단위: 점 >



주: 1) 전체는 2023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임(서울양육자서베이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2)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전체, 무자녀 884명)
2)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 923명, 만 10-18세 151명, 만 19세 이상 232명)
※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첫째 자녀 만 0-9세(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 첫째 자녀 만 10세 이상(2023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첫째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고, 이 자녀와 동거 중이며, 현재 기혼상태인 부모 3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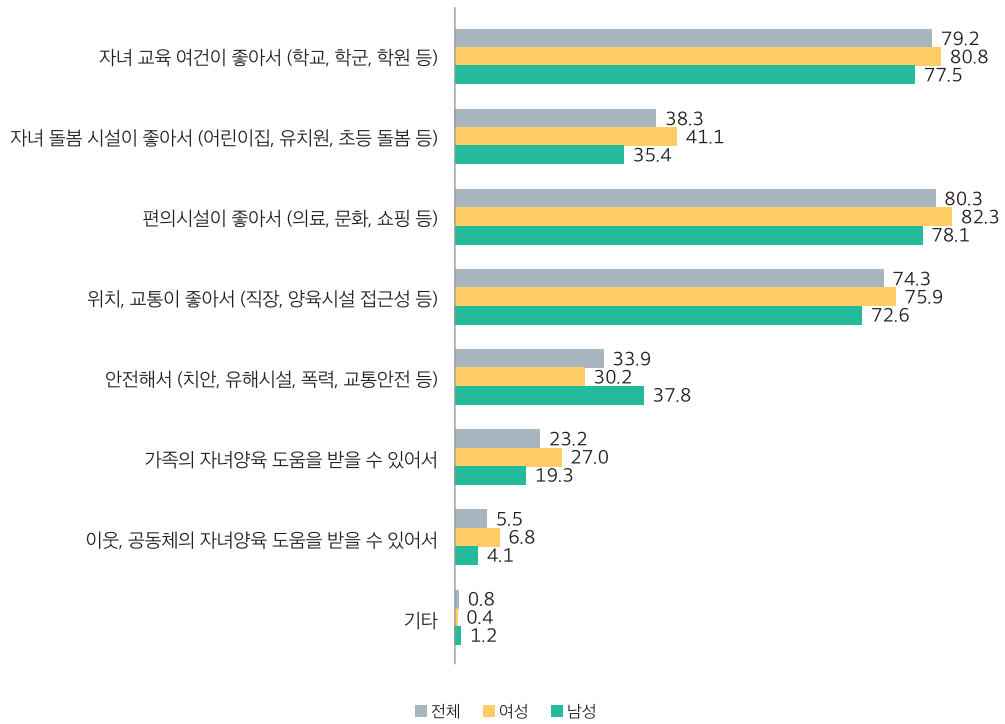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범위: 1-5점)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서울시민 중 **첫째 자녀가 만 0-9세인 집단**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 전체 및 성별(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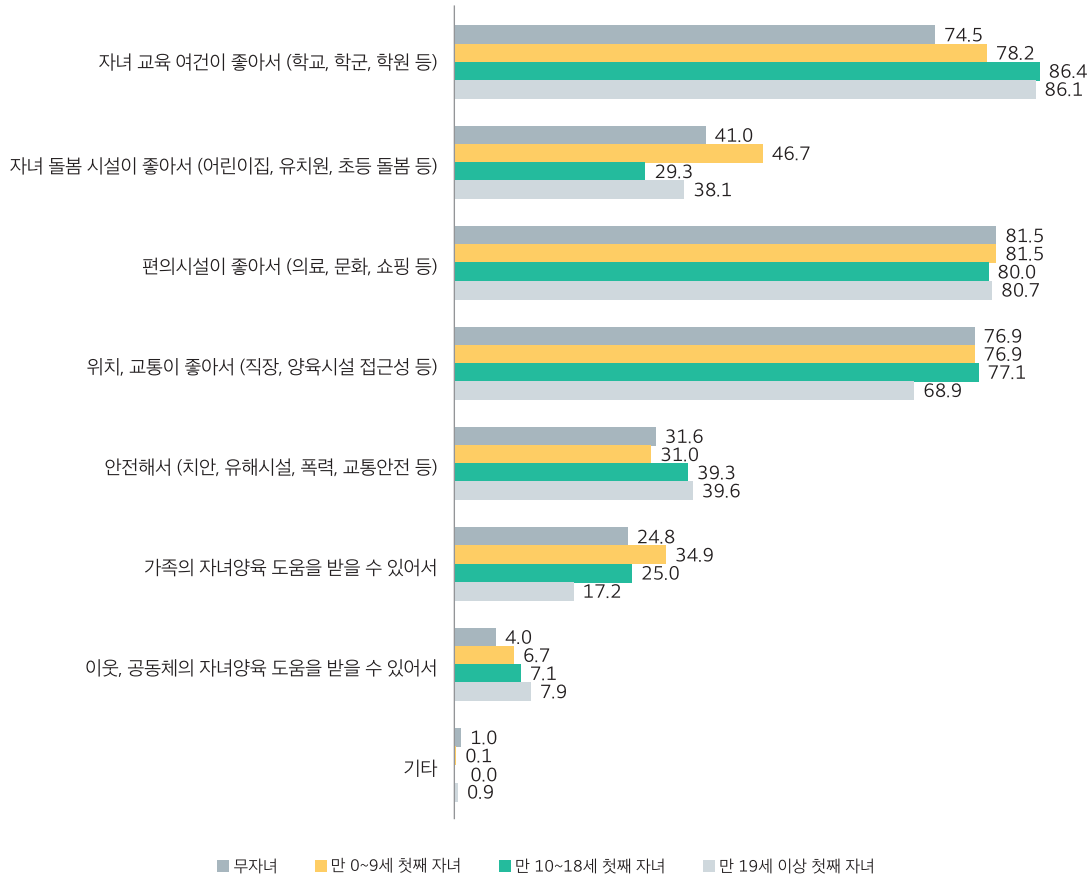
주: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1,347명)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이렇게 응답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은 것은
‘편의시설(의료, 문화, 쇼핑 등)이 좋아서’입니다.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 자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 >



주: 1)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2)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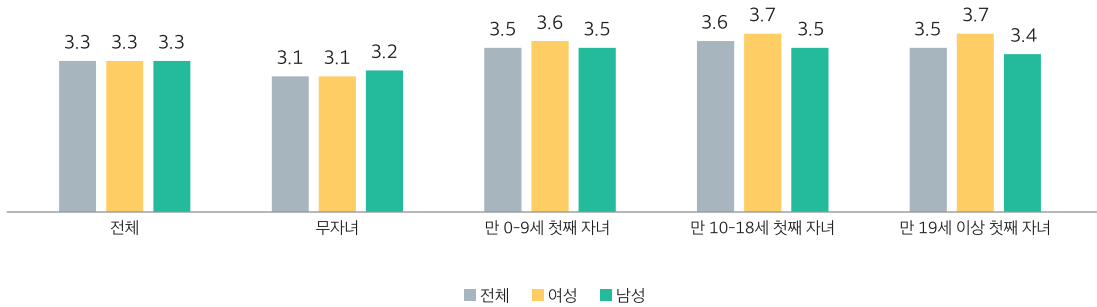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무자녀 719명)
 2)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첫째 자녀 만 0-9세의 부모 836명, 만 10-18세의 부모 140명, 만 19세 이상의 부모 331명)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로 무자녀 서울시민과 첫째 자녀가 만 0-9세인 서울시민이 꼽은 것은 ‘편의시설(의료, 문화, 쇼핑 등)이 좋아서’인 반면, 첫째 자녀가 만 10세 이상인 서울시민은 ‘자녀 교육 여건이 좋아서(학교, 학군, 학원 등)’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육아친화적인 도시, 서울: 전체 및 자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



주: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전체, 무자녀 8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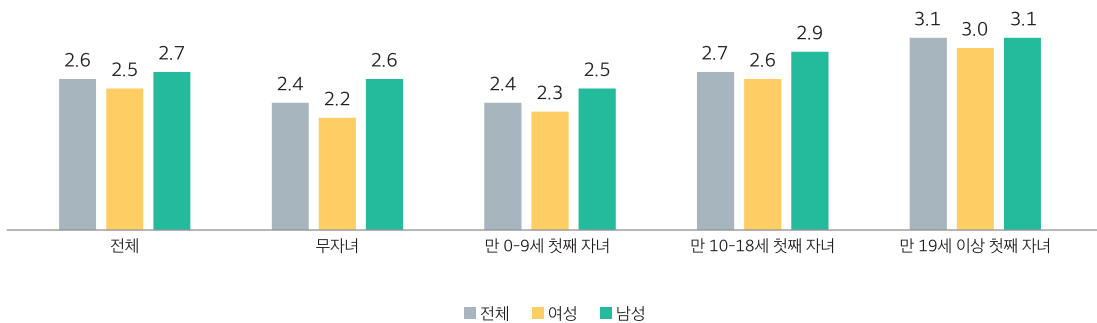
2)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 923명, 만 10-18세 151명, 만 19세 이상 232명)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범위: 1-5점)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더 동의**합니다.

한국사회의 부모 역할 응원: 전체 및 자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한국사회는 부모 역할을 응원해 준다



주: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전체, 무자녀 8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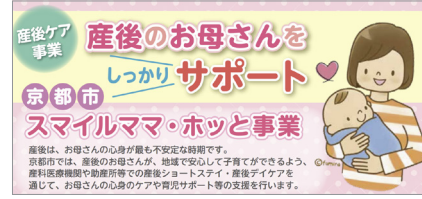
2)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 923명, 만 10-18세 151명, 만 19세 이상 232명)

서울시민은 ‘한국사회는 부모 역할을 응원해 준다’(범위: 1-5점)에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며,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어린 집단이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례

일본 |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

일본의 교토시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와 산모를 위해 ‘스마일마마 안심 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를 통해 ‘출산 후 단기 체류’와 ‘출산 후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산모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케어와 육아 지원을 제공한다. 출산 후 안정적으로 육아를 시작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본 교토시의 ‘스마일마마 안심 사업’과 유사하게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시간	지원내용
출산 후 단기 체류	이용 시작 후 24시간 이내의 이용을 1일로 계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체 관리 및 생활 상담 및 지도 ② 유방 관리, 유방 문제 해결 ③ 성장 및 발달 체크 ④ 체중 및 배설 체크 ⑤ 피부 관리 ⑥ 수유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지도 ⑦ 목욕 수행 및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지도 ⑧ 가정에서의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⑨ 상담 등 심리적 케어 ⑩ 이유식에 관한 조언 및 지도 ⑪ 기타 필요한 보건 상담 및 지도
출산 후 데이케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1일로 계산	

자료: 1)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168986.html>

2)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79&board_idx=49151&manage_idx=7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country_name=%25&yearData=&search_text=%EC%97%AC%EA%B0%80&rowCount=10&viewPage=1



양육자의 건강을 위한 서울시 정책·서비스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는 출산 후 빠른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출산맘의 건강한 육아 활동을 지원한다.

구분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행복맘 지원 건강 플랫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대상	출산 후 8주 이내 출산가정	2022.1.1. 이후 출산맘 1,000명	출산후 60일 이내 출산가정	출산 전·후 2년 이내 임산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한조산협회의 모유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조산사간호사 (모유수유매니저) 가정 방문 · 모유수유 매니저의 유방관리서비스 및 모유수유 교육(최대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밴드와 전용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출산맘 특화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1일 8시간 (9~18시)) ※ 단, 가사활동지원은 산모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공간청소및세탁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기 건강찾걸음사업」 전담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우울 검사 및 고위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층상담 및 고위험군 전문의료기관 연계
이용요금	무료	무료	자녀수, 서비스기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이용금액 상이	무료

자료: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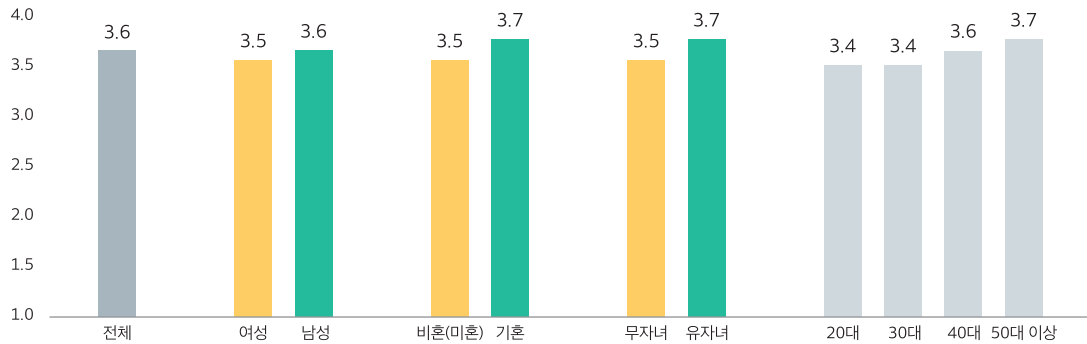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저출생(저출산)의 심각성 인식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4점)은 전체 평균 3.6점으로 서울시민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생/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남성(3.6점)이 여성(3.5점)에 비해, 기혼(3.7점)이 비혼(미혼)(3.5점)에 비해, 유자녀(3.7점)가 무자녀(3.5점)에 비해, 50대 이상(3.7점)이 20-30대(각각 3.4점)에 비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저출산)의 심각성 인식: 전체 및 성별, 결혼 여부별, 자녀유무별,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주: 1) 응답범주 1 =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 =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3 = 약간 심각한 문제이다, 4 =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서울시민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가족서베이 & 서울양육자서베이]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을 3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양육비, 교육비(비용 지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위를 차지한 응답은 집단별로 달랐는데, 남성과 비혼(미혼)은 '경제(물가, 고용, 임금 등)', 여성과 무자녀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혼은 '기관 보육·돌봄'이었다. 첫째 자녀의 연령대별로 2위를 차지한 응답은 영아기 자녀를 둔 집단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아기 자녀를 둔 집단은 '기관 보육·돌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집단은 '경제'였다. 3위를 차지한 응답은 남성과 무자녀 집단에서는 '주거'였고, 여성과 기혼 집단에서는 '경제', 비혼(미혼)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유자녀 집단 중 영아기 자녀를 둔 집단은 '기관 보육·돌봄', 유아기 자녀를 둔 집단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집단은 '주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3위였다.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3가지 선택)(2023년)

< 단위: 명 >

집단	1위		2위		3위	
전체 ^{a)}	양육, 교육비	783	경제	607	주거	562
여성 ^{a)}	양육, 교육비	356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322	경제	290
남성 ^{a)}	양육, 교육비	427	경제	317	주거	306
기혼 ^{a)}	양육, 교육비	419	기관 보육·돌봄	278	경제	274
비혼(미혼) ^{a)}	양육, 교육비	327	경제	309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289
무자녀 ^{a)}	양육, 교육비	403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326	주거	307
영아 부모 ^{b)}	양육, 교육비	149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116	기관 보육·돌봄	107
유아 부모 ^{b)}	양육, 교육비	171	기관 보육·돌봄	145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117
초등학교 부모 ^{b)}	양육, 교육비	159	경제	111	주거	109

주: 1) 3개의 응답보기를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2)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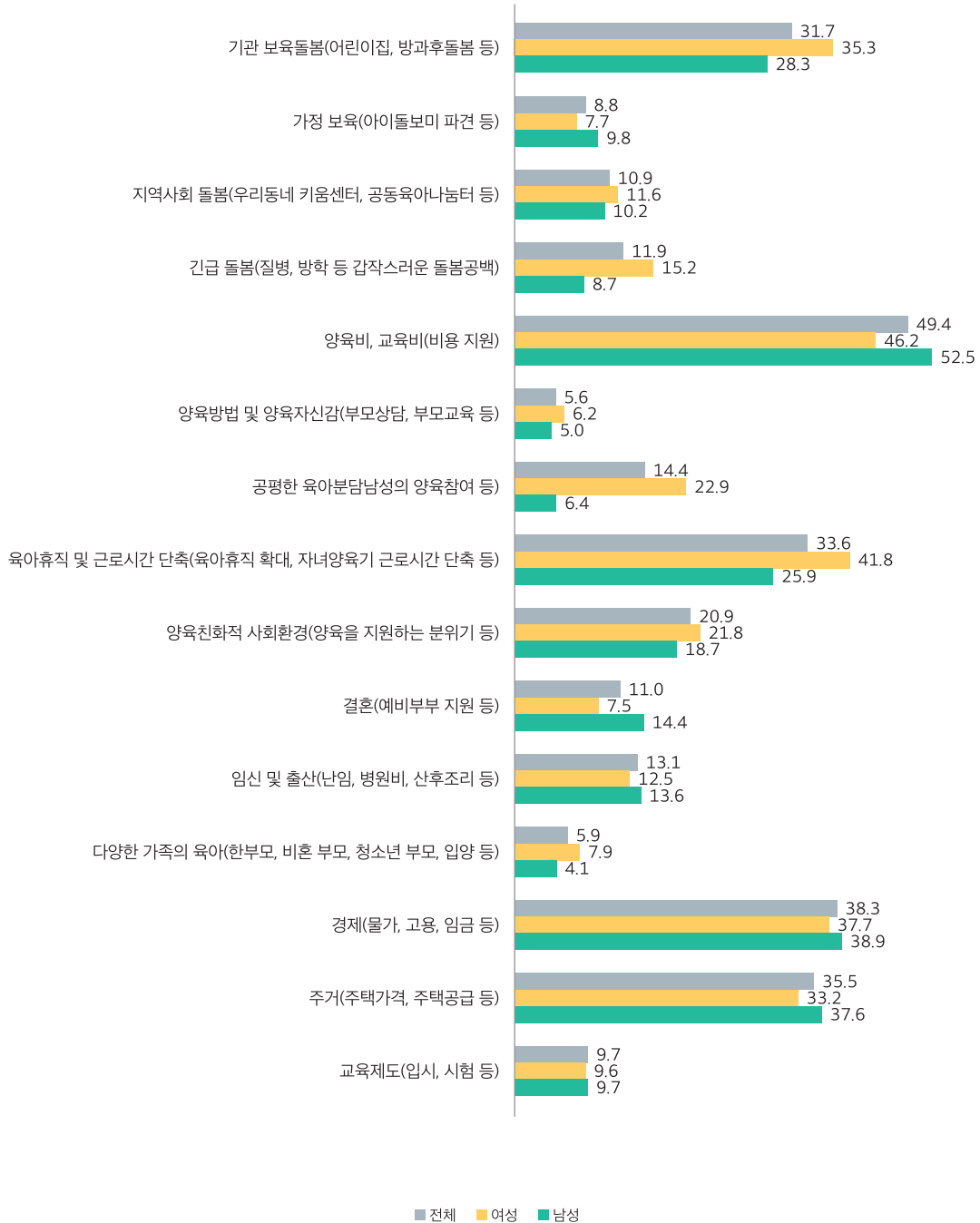
자료: a) 2023 서울가족서베이(전체, 무자녀 884명)

b) 2023 서울양육자 표본(영아 부모 284명, 유아 부모 346명,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293명)

가장 많은 서울시민이 꼽은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입니다.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3가지 선택): 전체 및 성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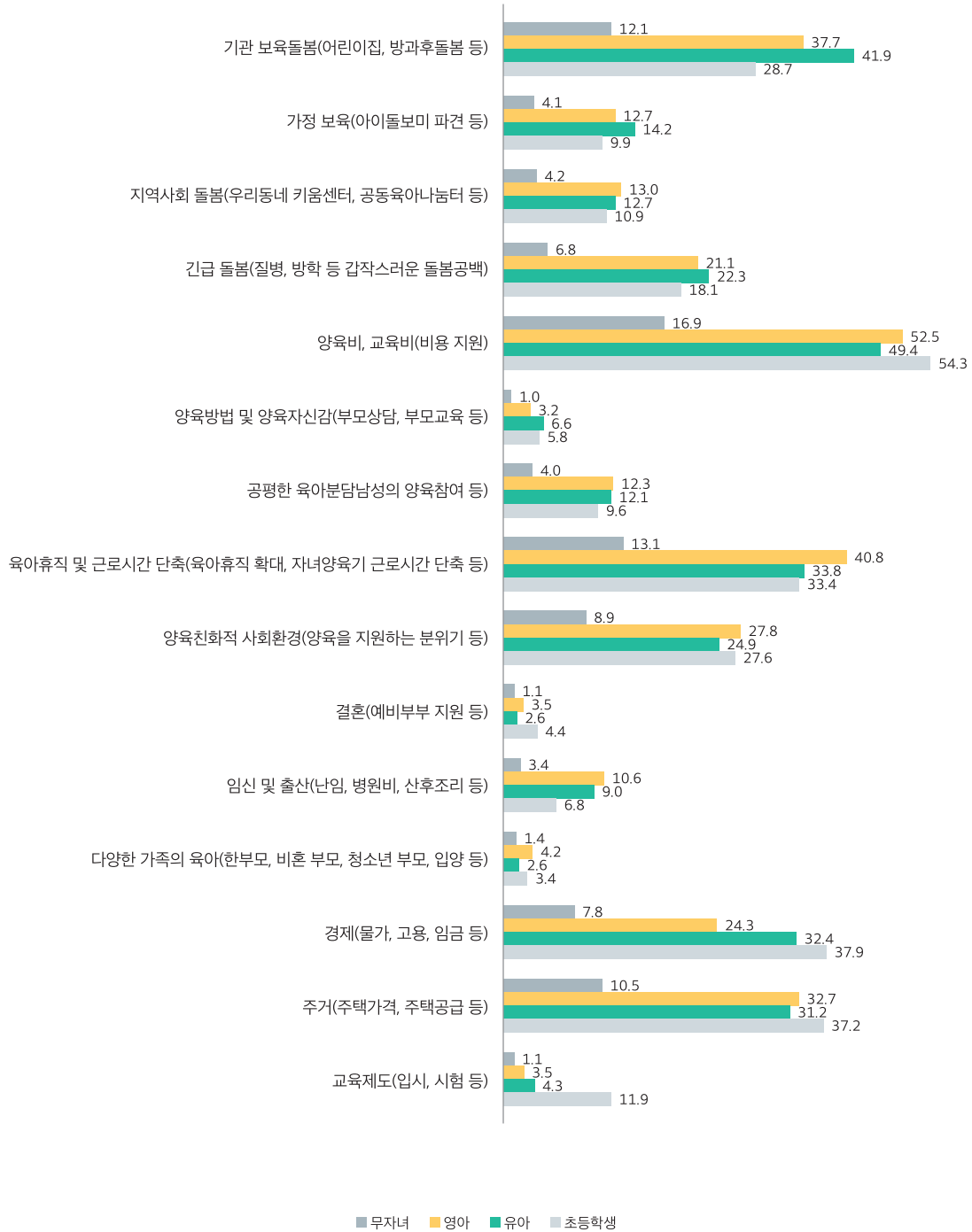
< 단위: % >



주: 3개의 응답보기를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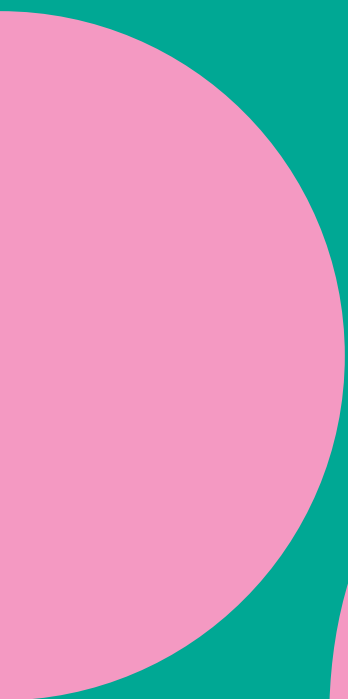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3가지 선택):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 >



주: 1) 3개의 응답보기를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2)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무자녀 884명)
 2) 2023 서울양육자 표본(영아 부모 284명, 유아 부모 346명,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293명)



서울가족의 양육

1. 부모역할 및 자녀돌봄
2.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여가



01

부모역할 및 자녀돌봄



1

부모역할과 자녀돌봄 현황: 만 0-9세 자녀의 부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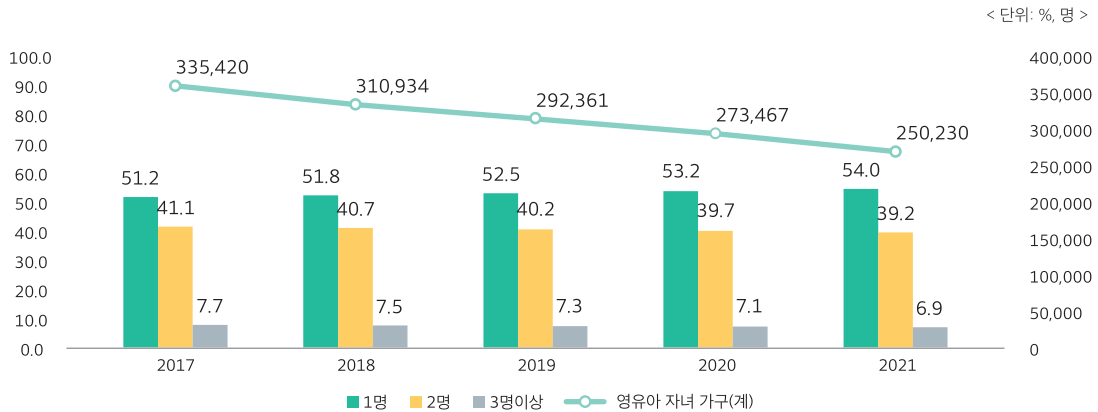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정책 대상인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통계로 보는 서울가족] 영유아 자녀 가구 수

서울시 가구 중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수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증가한 반면, 영유아 자녀가 2명이거나 3명 이상인 가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영유아 자녀 가구 수(2017-2021년)



주: 영유아 자녀 가구 수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3). 인구총조사.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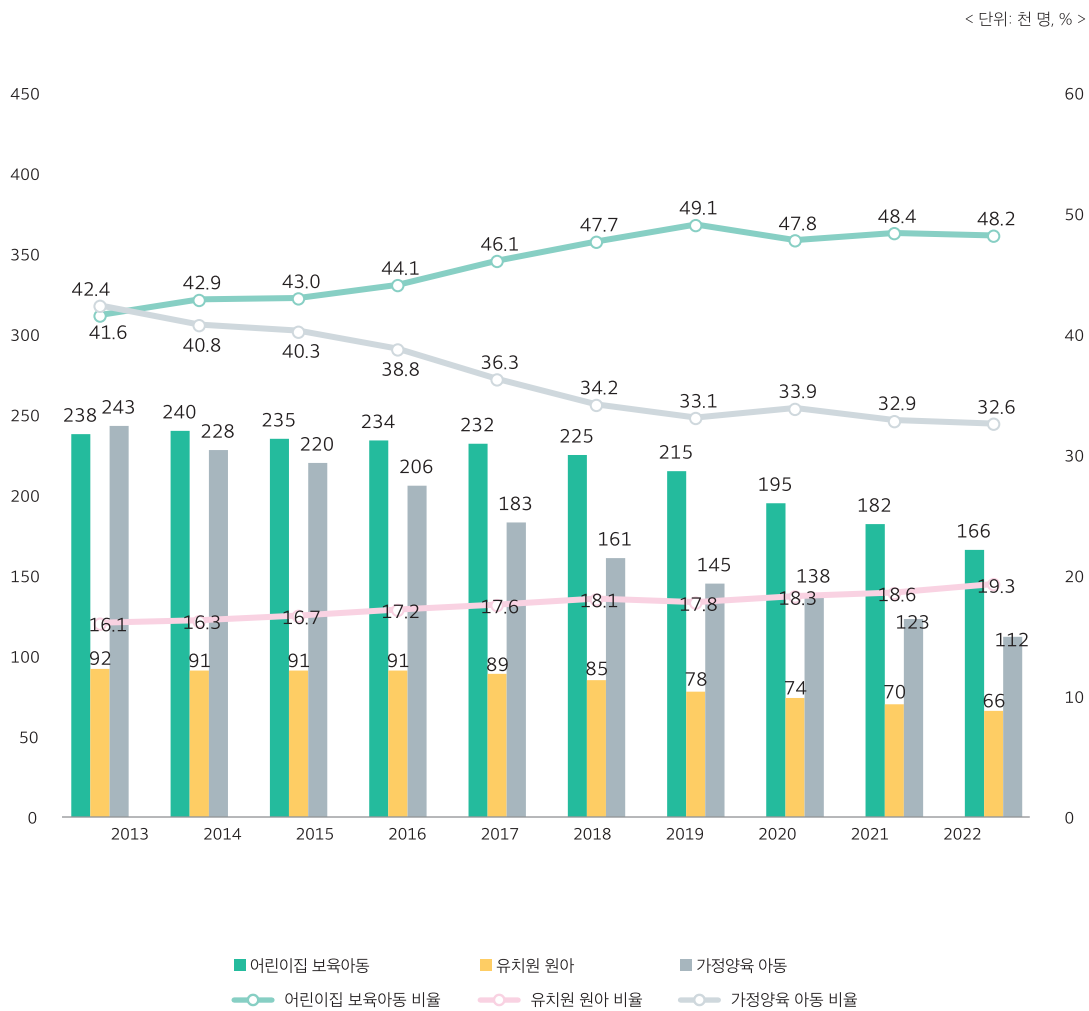
영유아 자녀가 있는 서울시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서울가족] 영유아 보육 현황

2022년 기준 서울시 영유아의 48.2%는 어린이집에, 19.3%는 유치원에 다녔고, 32.6%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0년간 서울시 영유아의 보육방식의 비중은 어린이집, 가정양육(시설 미이용), 유치원의 순서가 유지되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가정양육(시설 미이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영유아 보육 현황(2013-2022년)



주: 영유아는 만 0-6세 아동을 의미함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2022). <https://iseoul.seoul.go.kr/portal/stat/boyukStat.do> 에서 관련 내용 발췌

서울시 영유아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은 증가 추세이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비율은 감소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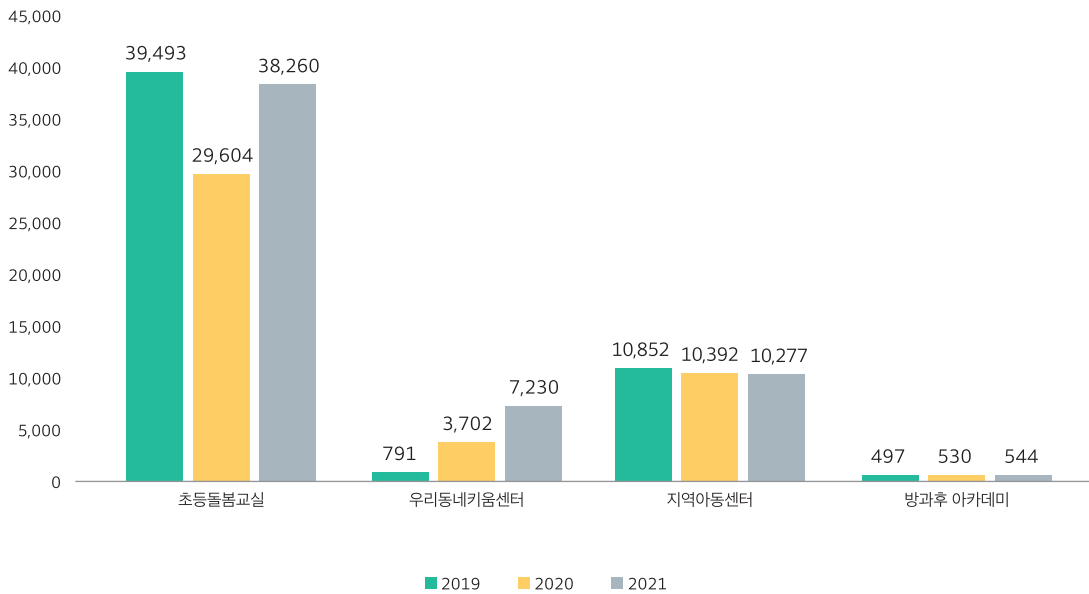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서울가족] 방과후 초등돌봄 현황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의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시기 공적 교육서비스 이용 제한으로(서울시, 2021) 2020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아동 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아동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방과후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2019-2021년)

< 단위: 명 >



자료: 서울시(2021). 2021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19년-2021년 사이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중 이용 아동이 가장 많은 형태는 초등돌봄교실이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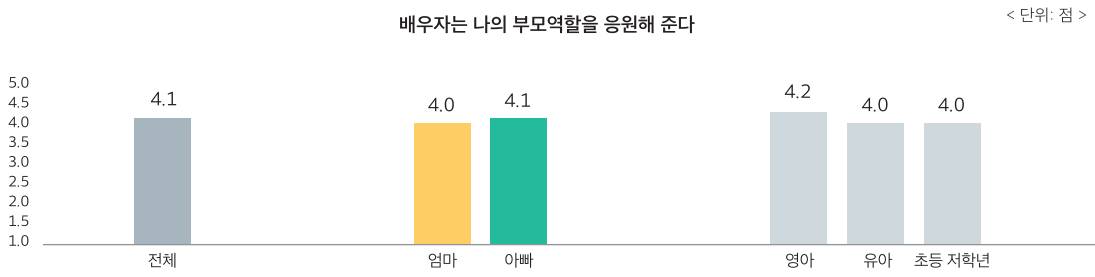


[서울양육자서베이] 부모역할에 대한 응원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와 ‘주변 사람들은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을 질문한 결과, 두 가지 모두에 대체로 동의하였다(평균 각 4.1점). 두 문항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더 응원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사회는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2.4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엄마가 아빠보다 한국사회의 부모역할 응원에 덜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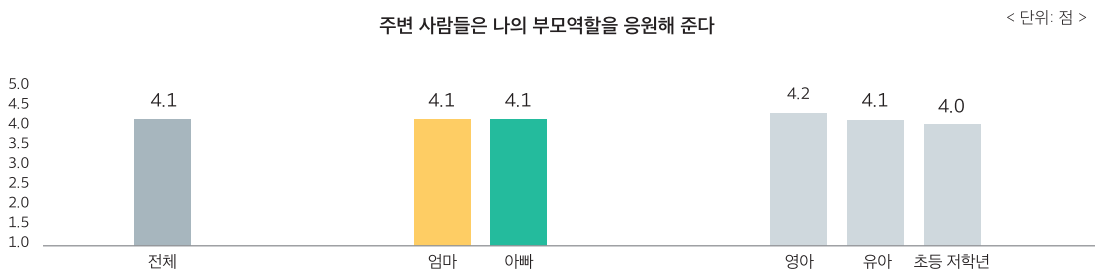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응원: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의 경우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는 진술에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며, 영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의합니다.

부모역할에 대한 주변 사람의 응원: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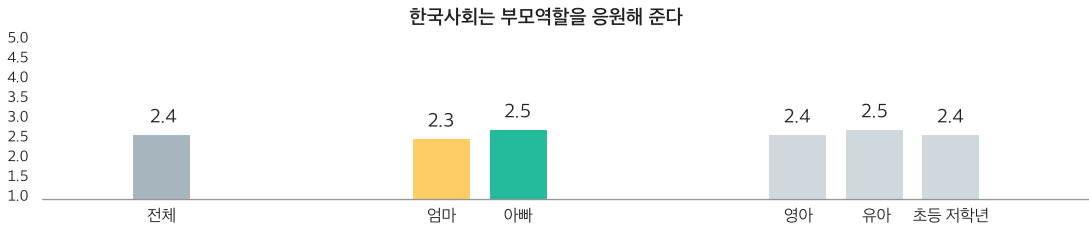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는 진술에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며, 영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의합니다.

부모역할에 대한 한국사회의 응원: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의 경우 ‘한국사회는 부모 역할을 응원해 준다’는 진술에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며, **엄마의 동의 수준이 아빠보다 낮습니다.**

2023 SEOUL FAMILY POLICY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이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부모들이 아이의 연령대 별, 상황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① 안심돌봄, ② 편한외출, ③ 건강힐링, ④ 일생활균형 4대 분야의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의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키우고

엄마·아빠의 황금 10년,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 11개 사업** (안심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돌봄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양육지원센터 확대
- 5개 사업** (편한외출): 서울 엄마아빠 VIP존 조성, 가족외출 지원, 서울 엄마아빠 배리어 프리 조성, 서울 엄마아빠 배리어 프리 조성, 서울 엄마아빠 배리어 프리 조성
- 5개 사업** (건강힐링): 힐링라운지 문화 프로젝트, 출산후 몸 관리 프로그램,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맞춤형 양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 (일생활균형): 엄마아빠 육아휴직비 지원, 양육지원센터 다목적 가사서비스 지원, 아이 상시세탁 용제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코칭센터

서울 엄마아빠 만들양육프로젝트 '만능키(가칭)' 구축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10년을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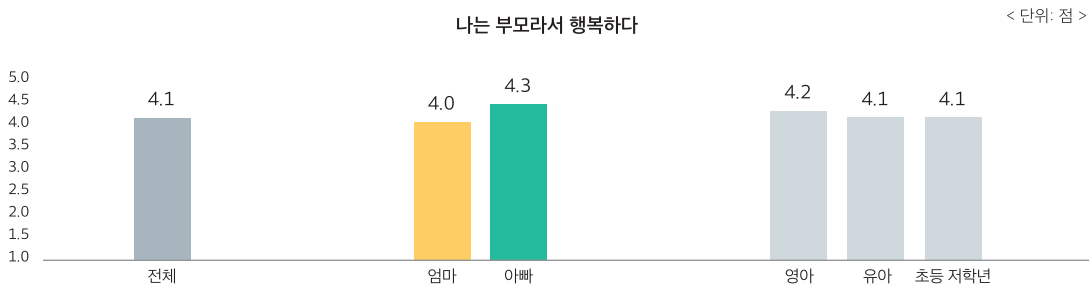
자료: 1) 서울시(2022).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든다' 보도자료.
 2)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224>



[서울양육자서베이] 부모로서의 행복과 후회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동의 수준이 엄마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자녀의 발달단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범위: 1-5점)의 평균은 1.8점으로 2점('별로 그렇지 않다')보다 낮았고, 아빠가 엄마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해당 문항에서도 자녀의 발달단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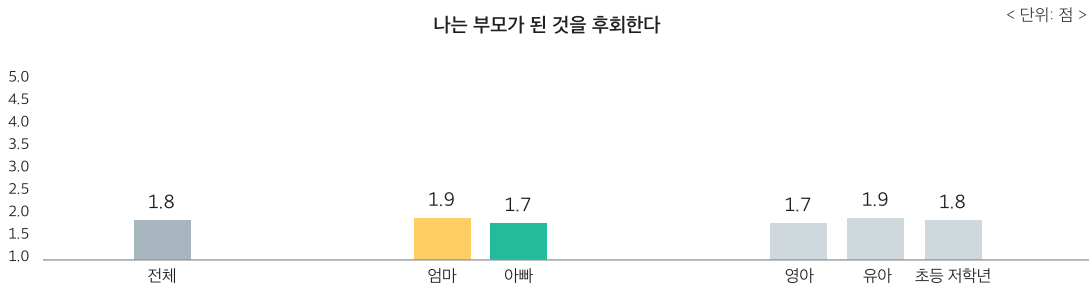
부모로서의 행복: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는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에 대체로 동의하며, **아빠**가 엄마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의합니다.

부모됨에 대한 후회: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는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며**, **아빠**가 엄마보다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모라서 행복할까?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행복**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 ✔ 아빠인 경우
- ✔ 성역할 태도가 덜 전통적일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가사 및 돌봄 부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 ✔ 동네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행복
수준이 높았음

● 전업 엄마



- ✔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할수록
- ✔ 동네만족도가 높을수록
- ✔ 한국사회가 부모역할을 응원한다고 생각할수록



전업 엄마의
부모로서의 행복
수준이 높았음

● 취업 엄마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한국사회가 부모역할을 응원한다고 생각할수록



일하는 엄마의
부모로서의 행복
수준이 높았음

● 취업 아빠



- ✔ 성역할 태도가 덜 전통적일수록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가사 및 돌봄 부담을 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 ✔ 근로시간이 길수록
- ✔ 일-생활 갈등을 덜 겪을수록
- ✔ 동네만족도가 높을수록



일하는 아빠의
부모로서의 행복
수준이 높았음

누가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할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후회**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 ✓ 연령이 낮을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영아 부모에 비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일 때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부모로서의 후회
수준이 높았음

● 전업 엄마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수록
- ✓ 한국사회가 부모역할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전업 엄마의
부모로서의 후회
수준이 높았음

● 취업 엄마



- ✓ 연령이 낮을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영아 부모에 비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일 때



일하는 엄마의
부모로서의 후회
수준이 높았음

● 취업 아빠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 ✓ 일-생활 갈등을 더 겪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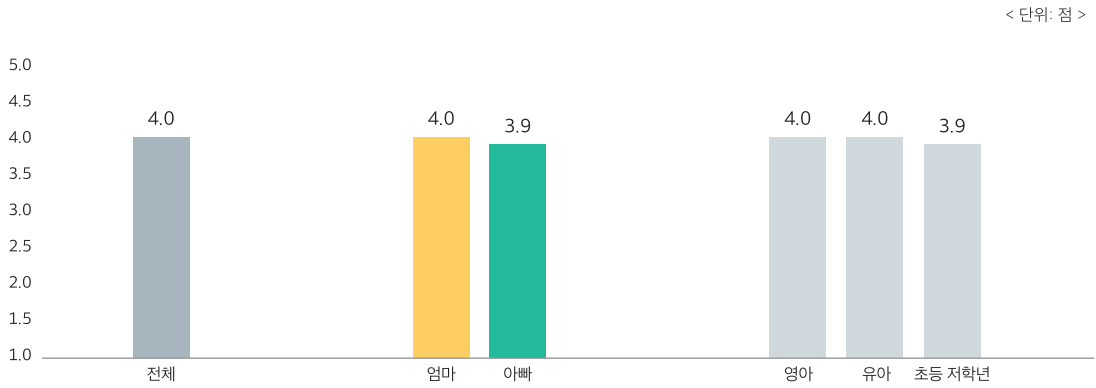
일하는 아빠의
부모로서의 후회
수준이 높았음



[서울양육자서베이]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음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문항(범위: 1-5점)의 평균은 4.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아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진술에 동의하였고,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는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에 동의하며, **엄마가 아빠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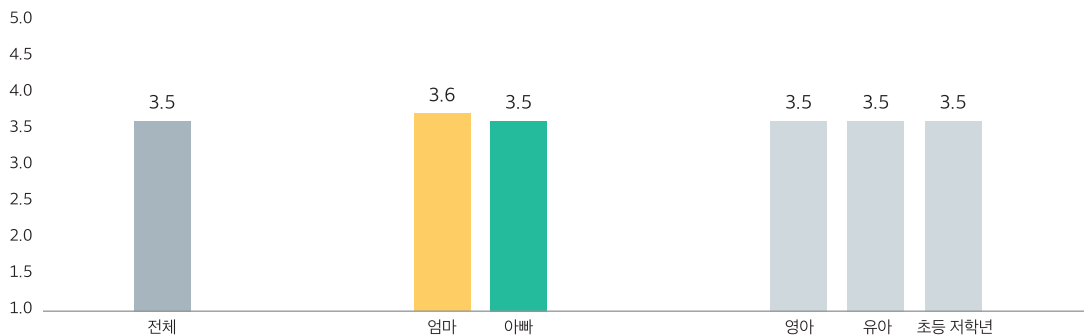


[서울양육자서베이] 육아친화적인 도시, 서울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범위: 1-5점)는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발달단계별 인식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서울시 양육자는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동의합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자녀양육기 부모에게 힘이 되는 육아친화적인 문화,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분석 결과, 만 0-9세 첫째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한국사회가 부모역할을 응원한다'는 진술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 즉, 서울의 양육자들은 한국사회가 육아친화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 '충간소음' 등의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는 육아나 아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권미경, 2022). 아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사회 시선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어렵게 한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발달권을 가진다. 아동의 발달권에는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속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서울키즈오케이존 지정 등의 노력은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자료: 1) 아동권리보장원(2023). <http://www.korea1391.go.kr/new/page/agreement.php> 에서 관련 내용 발췌
2) 권미경(202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02).



[서울양육자서베이] 부모역할의 어려움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로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직업적, 관계적, 공간적·환경적,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범위: 1-5점)을 질문하였다. 각 영역별 평균은 신체적 어려움(3.6점) > 정신적 어려움(3.5점), 직업적 어려움(3.5점) > 재정적 어려움(3.4점) >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3.2점) > 공간적·환경적 어려움(3.1점) > 관계적 어려움(2.8점)의 순이었다. 부모의 성별로는 엄마가 아빠보다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어려움과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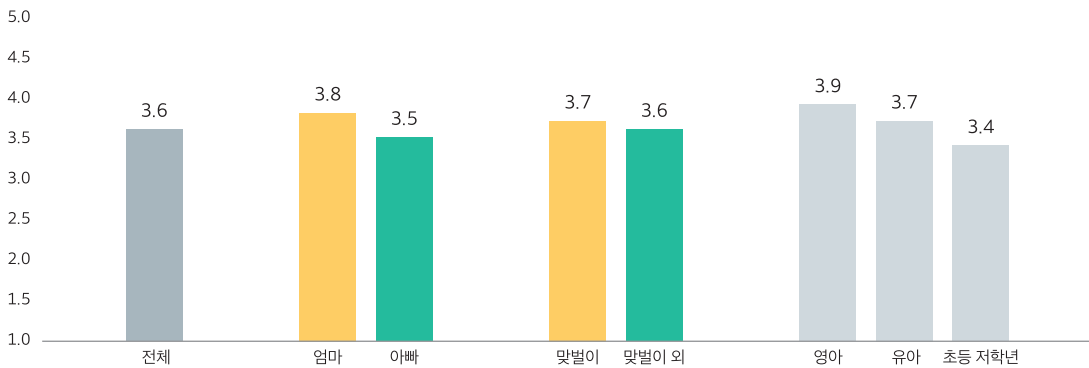
자녀의 발달단계별로는 신체적 어려움 측면에서 영아기 부모가 유아기 부모보다, 유아기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 직업적 어려움 측면에서는 유아기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공간적·환경적 어려움 측면에서는 영아기 및 유아기 부모가 인식한 어려움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돌봄공백 측면에서는 영아기 및 유아기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어려움을 더 겪었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재정적 측면에서 외벌이 등 맞벌이 외 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반대로, 돌봄공백 측면에서는 맞벌이가구가 맞벌이 외 가구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측면 이외에 성별,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벌이 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적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부모역할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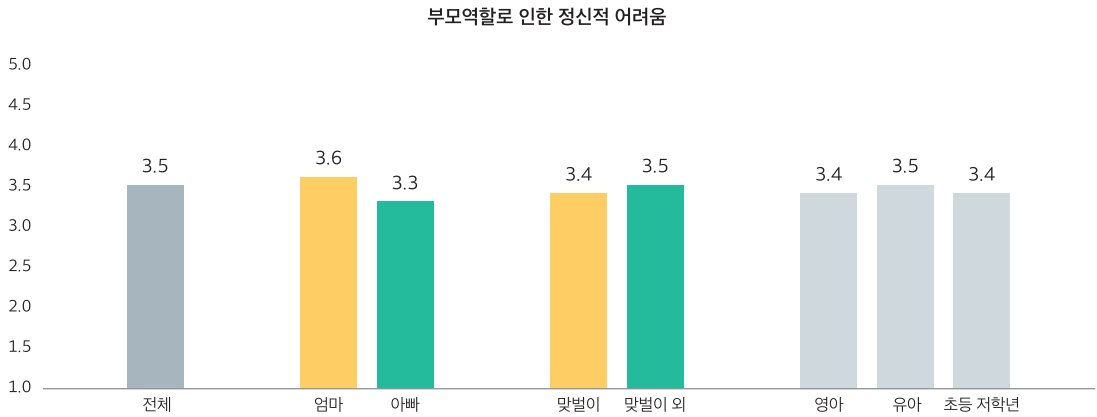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부모역할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피로감, 휴식·수면 부족 등)은 엄마가 아빠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험합니다. 영아기 자녀의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부모보다,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신체적 어려움을 더 경험합니다.

정신적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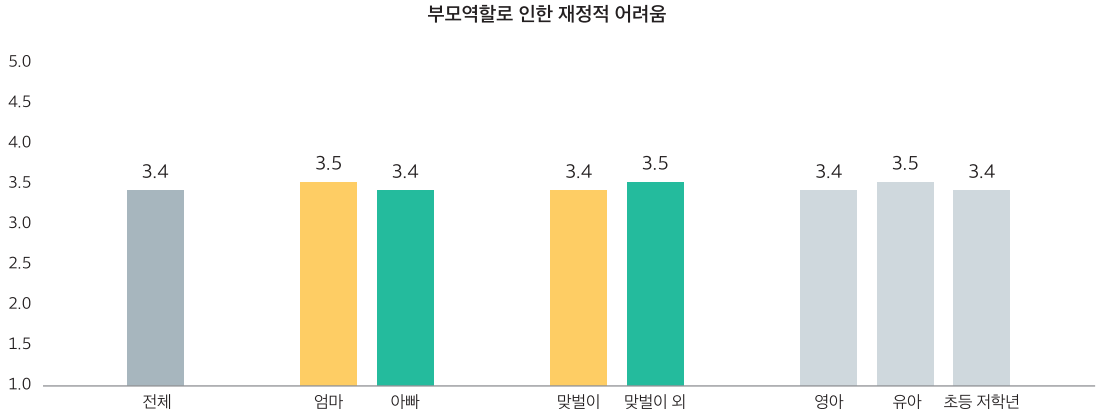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부모역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양육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불안·걱정 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엄마가 아빠보다 정신적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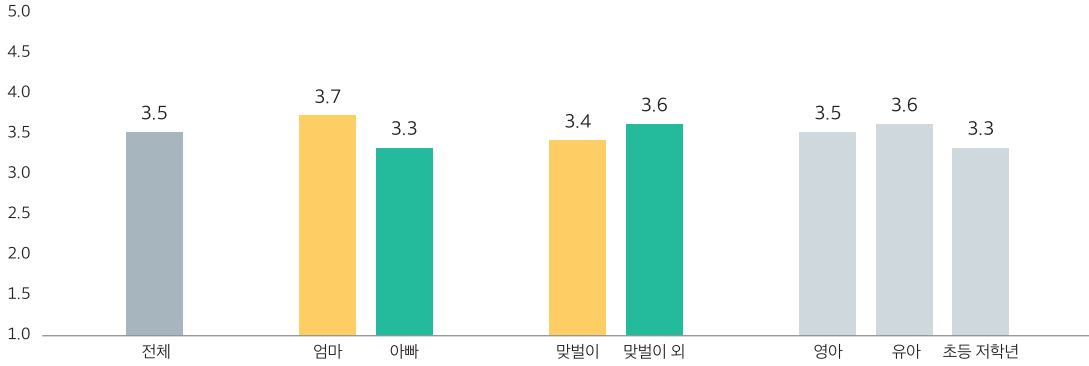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부모역할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양육비, 사교육비 부담 등)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맞벌이가구보다 맞벌이 외 가구의 부모가 재정적 어려움을 더 경험합니다.

직업적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부모역할로 인한 직업적 어려움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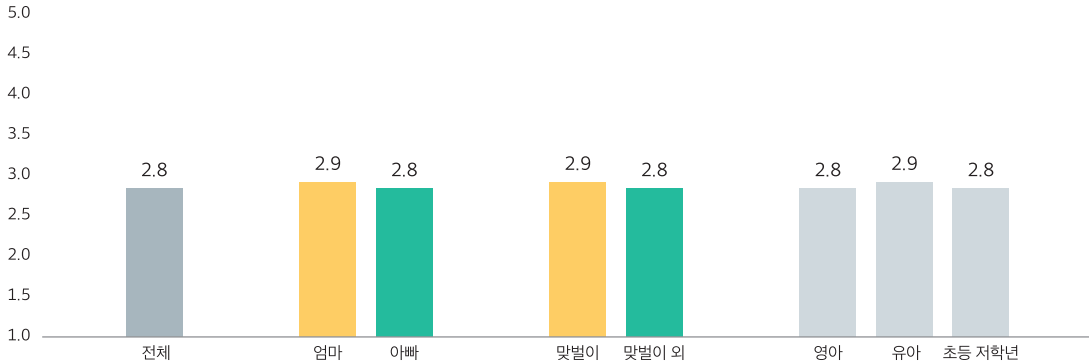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부모역할로 인한 직업적 어려움(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력단절, 근로시간 부족 등)은 엄마가 아빠보다 높고,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직업적 어려움을 더 경험합니다.

관계적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부모역할 관련 관계적 어려움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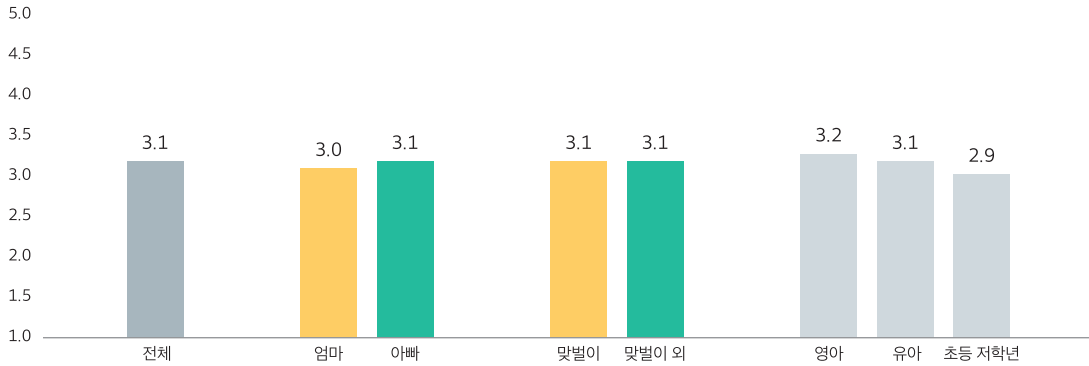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부모역할로 인한 관계적 어려움(자녀와의 갈등,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등)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공간적·환경적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부모역할 관련 공간적·환경적 어려움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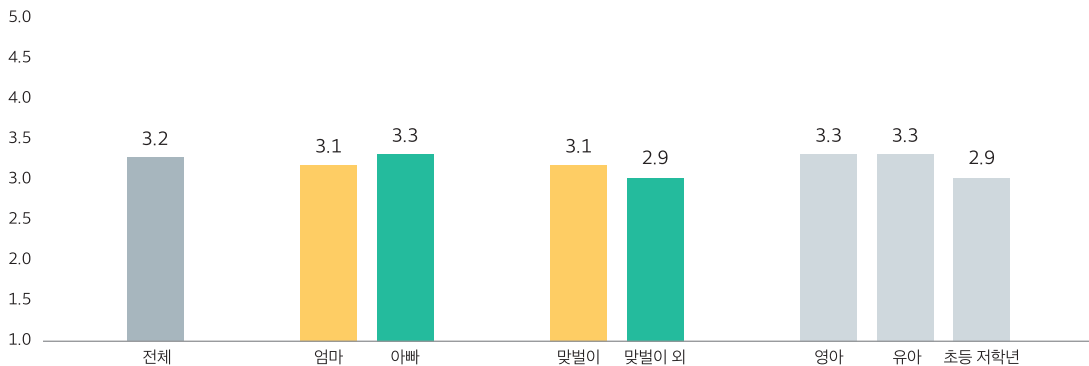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부모로서 경험하는 공간적·환경적 어려움(협소한 주거공간, 환경오염, 안전문제 등)은 보통 수준이며, 영아기 및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공간적·환경적 어려움을 더 경험합니다.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부모역할 관련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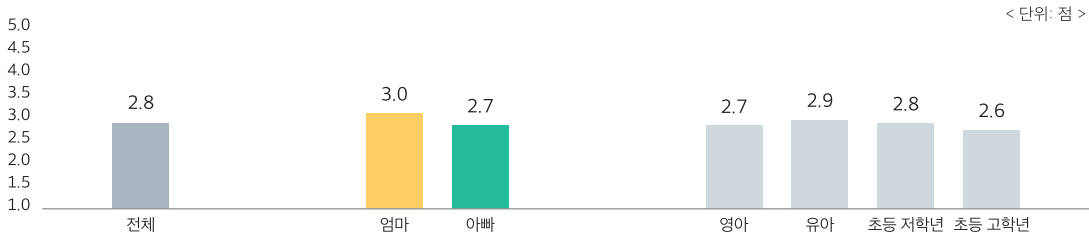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자녀가 질병 등으로 등원·등교하지 못할 때, 근로 시간과 하원·하교 시간의 충돌, 방학기간 등)은 아빠가 엄마보다, 맞벌이가구가 맞벌이 외 가구보다, 영아기 및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더 경험합니다.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2022년 서울가족서베이와 동일하게 만 0-12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8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양육효능감은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엄마가 아빠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효능감의 평균이 높았다.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양육스트레스: 만 0-12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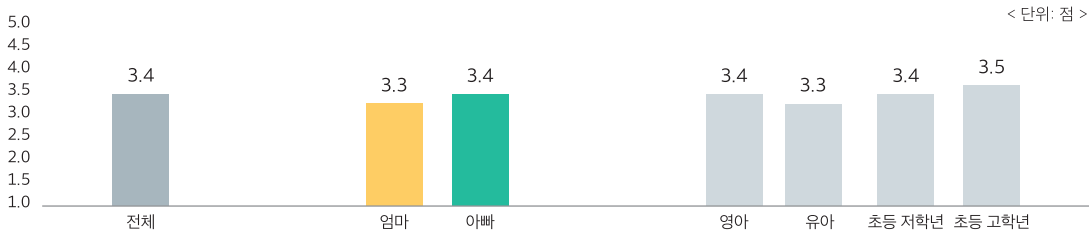


주: 1)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중 취업모에게만 해당하는 4문항을 제외한 8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영아 284명, 유아 346명, 초등학교 저학년 293명, 초등학교 고학년 60명)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서울시민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합니다.

양육효능감: 만 0-12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주: 1)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전반적인 양육 능력' 11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영아 284명, 유아 346명, 초등학교 저학년 293명, 초등학교 고학년 60명)

만 0-12세 자녀를 둔 서울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아빠가 인식한 양육효능감이 엄마보다 유의하게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겪을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 ✓ 엄마일 때
-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양가 부모의 경제·가사·돌봄 지원을 받을수록
- ✓ 한국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만 0-9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

● 취업 엄마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일-생활 갈등을 더 겪을수록
- ✓ 한국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일하는 엄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

● 취업 아빠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양가 부모의 경제·가사·돌봄 지원을 받을수록
- ✓ 일-생활 갈등을 더 겪을수록



일하는 아빠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엄마로서의 자신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교육 확대**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자료 분석 결과, 엄마가 아빠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양육효능감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엄마가 아빠보다 부모역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어려움과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육 활동에 더 자주, 더 오래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엄마가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로 인한 어려움에 취약하고,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엄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엄마로서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집중적 어머니역할(intensive motherhood) 등 부모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엄마에게 주어지는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서울시 전역의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교실 참여 이전에 비해 참여 이후 아동기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이재림 외, 2021).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이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부모교육은 강사가 주도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엄마로서의 강점을 이해하며, 부모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이재림, 노신애, 박지수(202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성: 2020년 비대면 운영사례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3-32.

2

부모역할 인식:

20-64세 서울시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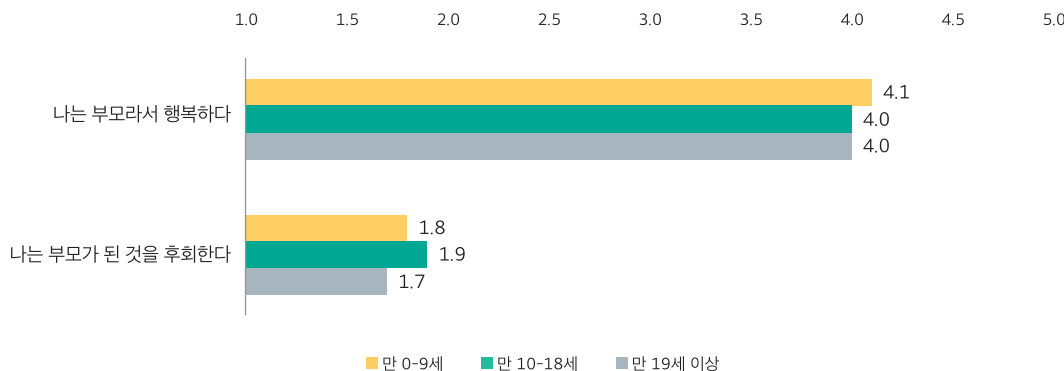
이 부분에서는 범위를 넓혀 청소년 및 성인 자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20-64세 서울시민이 부모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다.



**[서울양육자서베이 &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로서의 행복 및 후회**

부모로서의 행복 및 후회: 전체 부모의 자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 923명, 만 0-18세 151명, 만 19세 이상 2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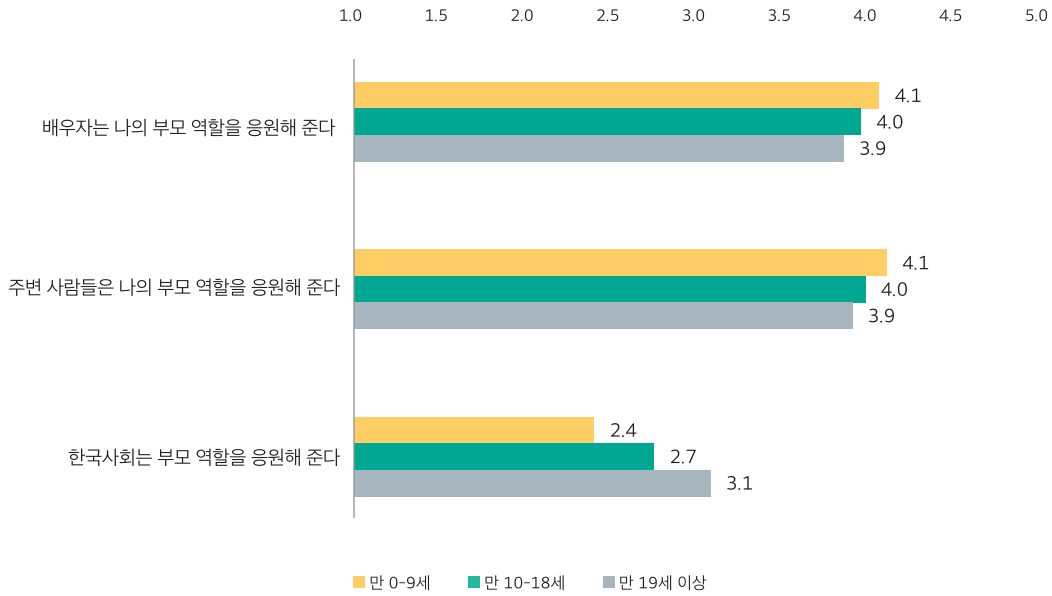
만 0-9세 자녀의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보다
 '부모라서 행복하다'는 진술(범위: 1-5점)에 조금 더 동의합니다.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진술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양육자서베이 & 서울가족서베이] 부모역할에 대한 응원

부모역할에 대한 응원: 전체 부모의 자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 923명, 만 0-18세 151명, 만 19세 이상 2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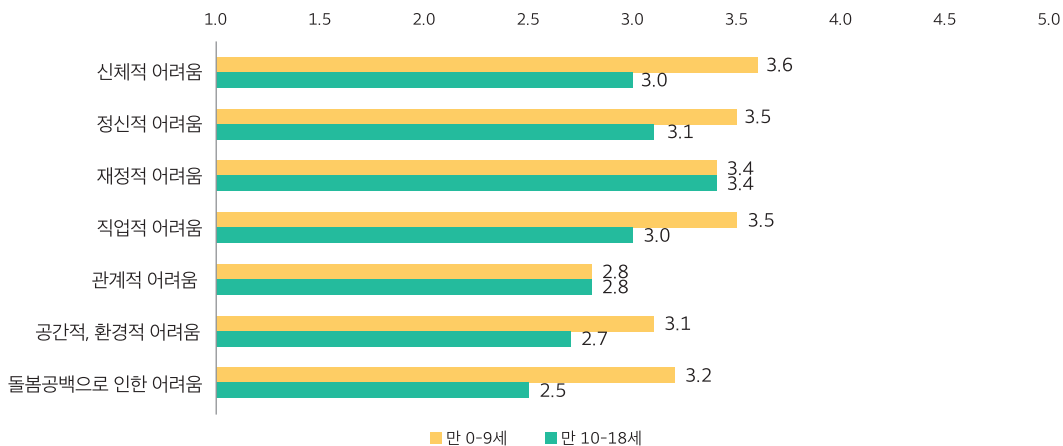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의 부모역할 응원(범위: 1-5점)에 대해서는
만 0-9세 자녀의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사회의 부모역할 응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서울양육자서베이 & 서울가족서베이]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만 0-18세 자녀의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 923명, 만 0-18세 151명)

**만 0-9세 자녀의 부모가 만 10-18세의 부모에 비해
부모역할로 인한 신체, 정신, 직업, 공간·환경,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범위: 1-5점).**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정서적, 문화적 측면 강화 필요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와 서울가족서베이 자료 분석 결과,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만 10세 이상인 부모보다 부모로서의 행복, 배우자 및 주변 사람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부모역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공간·환경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 역시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이 부모에게 행복감을 주는 값진 경험이지만,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비용 또한 높은 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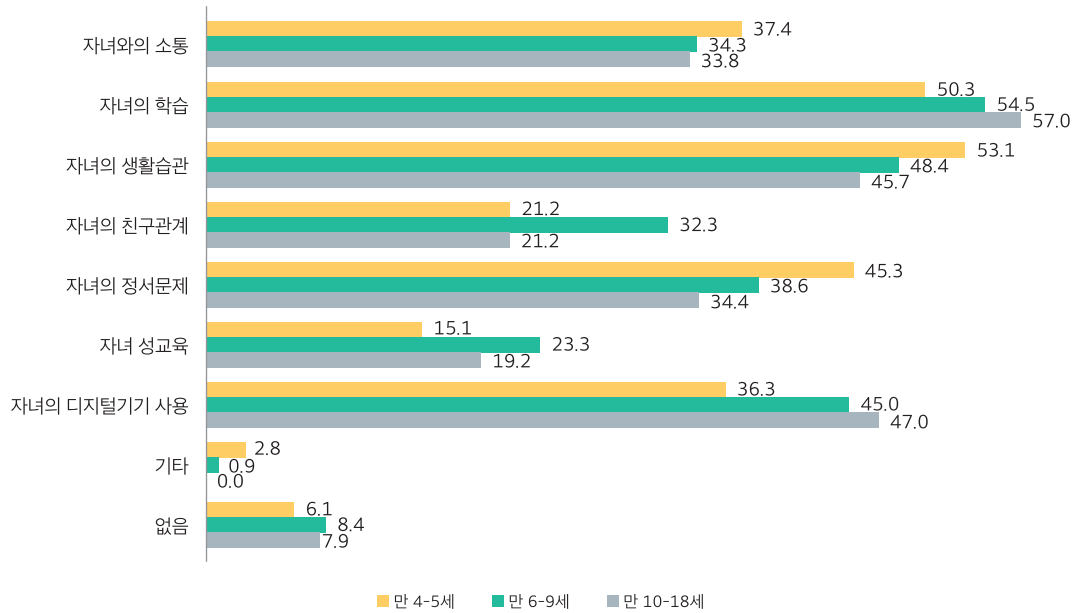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자녀양육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한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 완화, 부모의 건강, 가족의 여가활동,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부모를 지원하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현재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는데, 부모로서의 행복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 등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양육자서베이 & 서울가족서베이] 자녀 관련 어려움

자녀 관련 어려움: 만 4-18세 자녀의 연령대별(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첫째 자녀 만 4-5세 179명, 만 6-9세 347명, 만 10-18세 151명)

만 4-18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의 생활습관', '정서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습'과 '디지털기기 사용' 관련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자녀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부모교육 제공 필요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와 서울가족서베이에 참여한 만 4-18세 자녀가 있는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생활습관, 정서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학습과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 및 성교육의 경우 만 6-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자녀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만 6-9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서는 자녀의 친구관계 및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안심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

서울시는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한눈에 살펴 보고, 돌봄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



365일! 24시간! 모든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시는 미취학 영유아나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부부,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하는 부모 등 긴급보육 및 일시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거점형 야간보육	365일린보육	주말보육	시간제보육
대상	모든 취학 전 영유아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개월~만6세)	모든 취학 전 영유아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월~36개월)
주요내용	평일 16:00~22:00 연장·야간연장 보육 및 석식 제공	365일, 24시간 보육 및 식사 제공 ※ 신청, 구경,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토·일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평일 09:00~18:00 시간제보육 제공
이용요금	무료(석식비 자부담)	시간당 3천원	시간당 3천원	시간당 1천원
이용방법	「서울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검색·선택 → 예약신청 신청하러 가기	「서울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검색·선택 → 예약신청 신청하러 가기	「서울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검색·선택 → 예약신청 신청하러 가기	「아이사랑」에서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신청 (☎1661-9361) 신청하러 가기

자료: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서울시는 엄마, 아빠가 사회경제적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세심하게 돌봐주는 ‘서울형 0세 전담반’을 202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4개월 미만 영아로 구성되는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0세반’과는 달리, ‘서울형 0세 전담반’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로만 구성된다. 또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영아 전용 보육실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법정 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본다. 2023년 8월 기준 총 69개의 어린이집이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자료: 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902>

2) <https://iseoul.seoul.go.kr/portal/info/preSchoolList.do>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서울시는 특화사업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고, 서울지역 양육수요에 맞는 질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영아·등하원·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파견)를 제공한다.

•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발생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경험이 많은 영아 전담 돌보미 파견 서비스 제공

•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0-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의 등원 사전 준비, 등하원 동행, 하원 후 놀이활동 등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제공

•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가정의 만 0-12세 아동이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경우, 아픈 아이 전담 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자료 : 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2)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MENU2/dolbomMENU2_3/dolbomMENU2_3_1.jsp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시간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등록 아동 외의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 돌봄은 하루 단위로, 일시 돌봄은 주·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센터에서는 돌봄, 교육·놀이 프로그램, 급·간식 등을 제공한다.

자료: https://icare.seoul.go.kr/icare/user/fcctyInfoManage/BD_selectLocalCenterContactList.do?q_tap=1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3-5개 어린이집을 공유 공동체로 구성하여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기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고 양육자와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보육 모델이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인력(대체교사, 보조교사 등)과 공간의 공유, 물품 공동 구매 등을 통해 공동 운영
- 2) 어린이집 간 보육 프로그램 공유, 보육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성 강화
- 3)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공동 진행하여 부모 참여 활성화
- 4) 숲 체험원, 공원, 문화공간 등 어린이집 인근의 공간 활용 및 지역 내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킹 강화

자료: 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2) <https://iseoul.seoul.go.kr/portal/info/content.do?page=0806>

3) <https://iseoul.seoul.go.kr/portal/eco/shareCareCaseView.do?idx=11254&pageIndex=1&agubun=undefined>



양육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서울시 정책·서비스

서울키즈(Kids)오케이존

서울시는 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 '서울키즈오케이존'을 지정(대상업소들의 자율적 동참)하고 있다. 지정업체는 아이를 환영하는 가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식별마크를 부착하고 아이 의자, 아이 식기 등 식사 도움 용품을 구비한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자료: 1) <https://map.seoul.go.kr/smgis2/>
2)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86>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시는 엄마·아빠·아이가 최우선 순위로 배려받고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시설, 공원, 수변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전용 공간인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 및 확대하고 있다. '서울엄마아빠VIP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 기본형(아기침대, 기저기교환대 등 육아편의 공간 제공), 2) 휴식형(아이와 머물며 놀 수 있는 개방형 휴식 공간 제공), 3) 완성형(양육자가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놀이공간 제공)으로 구분된다.



자료: 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400?tr_code=snews

02.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여가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정책 대상인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여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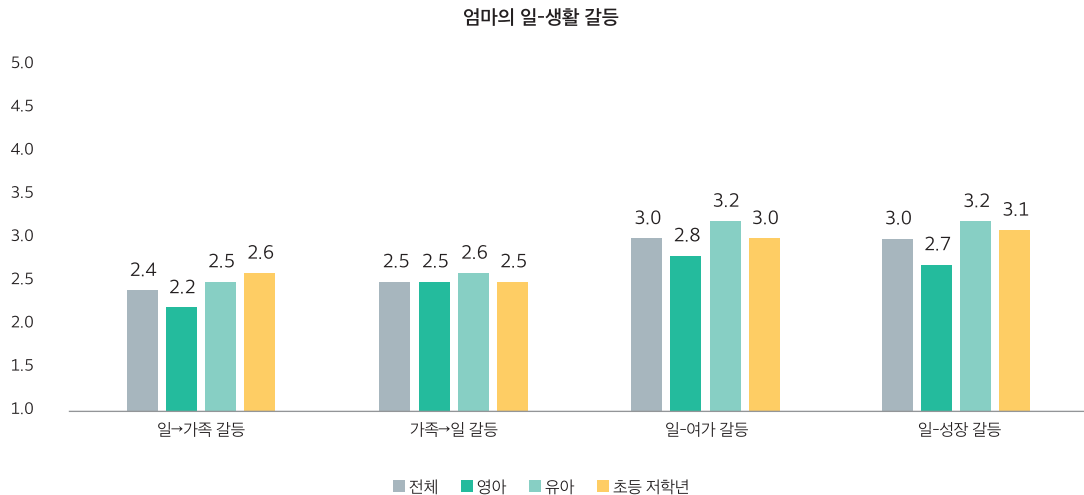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자의 일-생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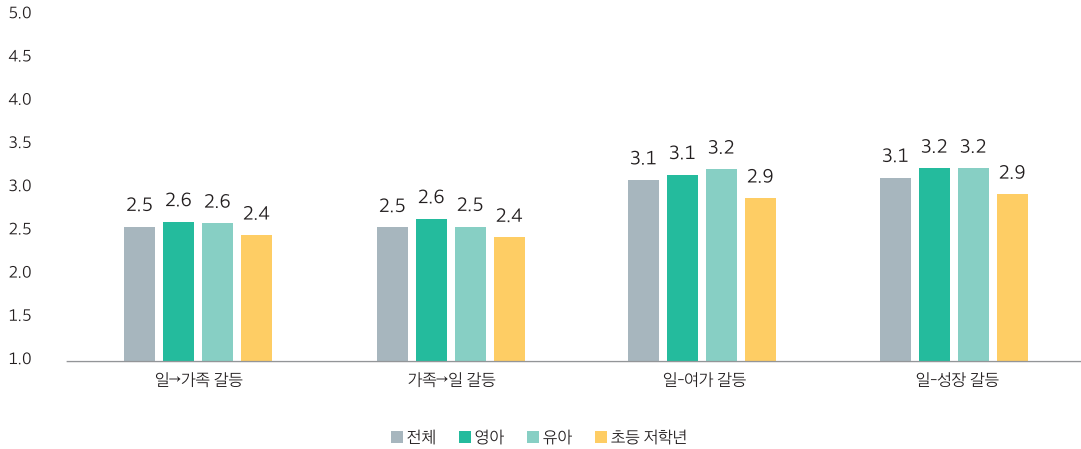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부모의 일-생활 갈등을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일-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로 인한 가족생활에서의 갈등(일→가족)과 가족생활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가족→일)은 모두 평균 2.4-2.5점(범위: 1-5점) 대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여가 갈등 및 일-성장 갈등 모두 평균 3.0-3.1점대(범위: 1-5점)로 보통 수준이었다.

엄마, 아빠의 일-생활 갈등: 만 0-9세 자녀를 둔 경제활동 부모 전체 및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아빠의 일-생활 갈등



주: 1)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에 '일하였다(1)'로 응답한 부모만을 분석하였음
 2) 일→가족 갈등 5문항, 가족→일 갈등 4문항, 일-여가 갈등 5문항, 일-성장 갈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3)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취업모 214명, 취업부 4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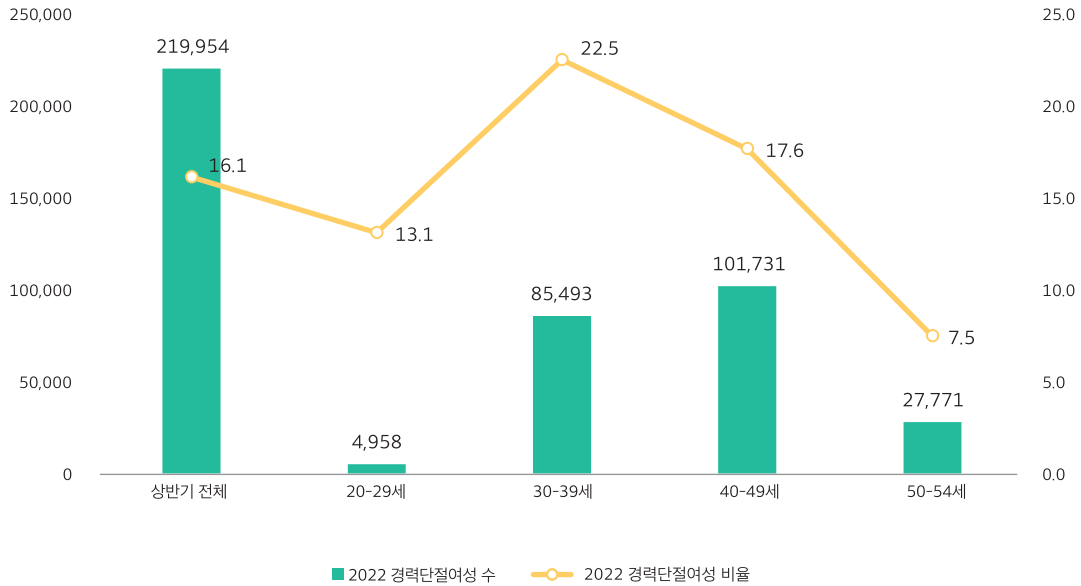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엄마가 영유아기 자녀의 엄마보다 일→가족 갈등을 더 경험합니다(범위: 1-5점).
유아기 자녀의 아빠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아빠보다 일-여가 갈등을 더 경험합니다.



[통계로 보는 서울가족]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전체 및 연령대별(2022년)

< 단위: 명, % >



- 주: 1) 경력단절 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
 2) 상반기 전체 경력단절 여성 비율 = (경력단절 여성의 전체 수 ÷ 15-54세 기혼 여성의 수) × 100
 3)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의 수 ÷ 연령대별 기혼 여성의 수) × 100

자료: 경력단절여성 현황(시도/연령·교육정도별)(2022).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GIABRM19_007&conn_path=I2에서 관련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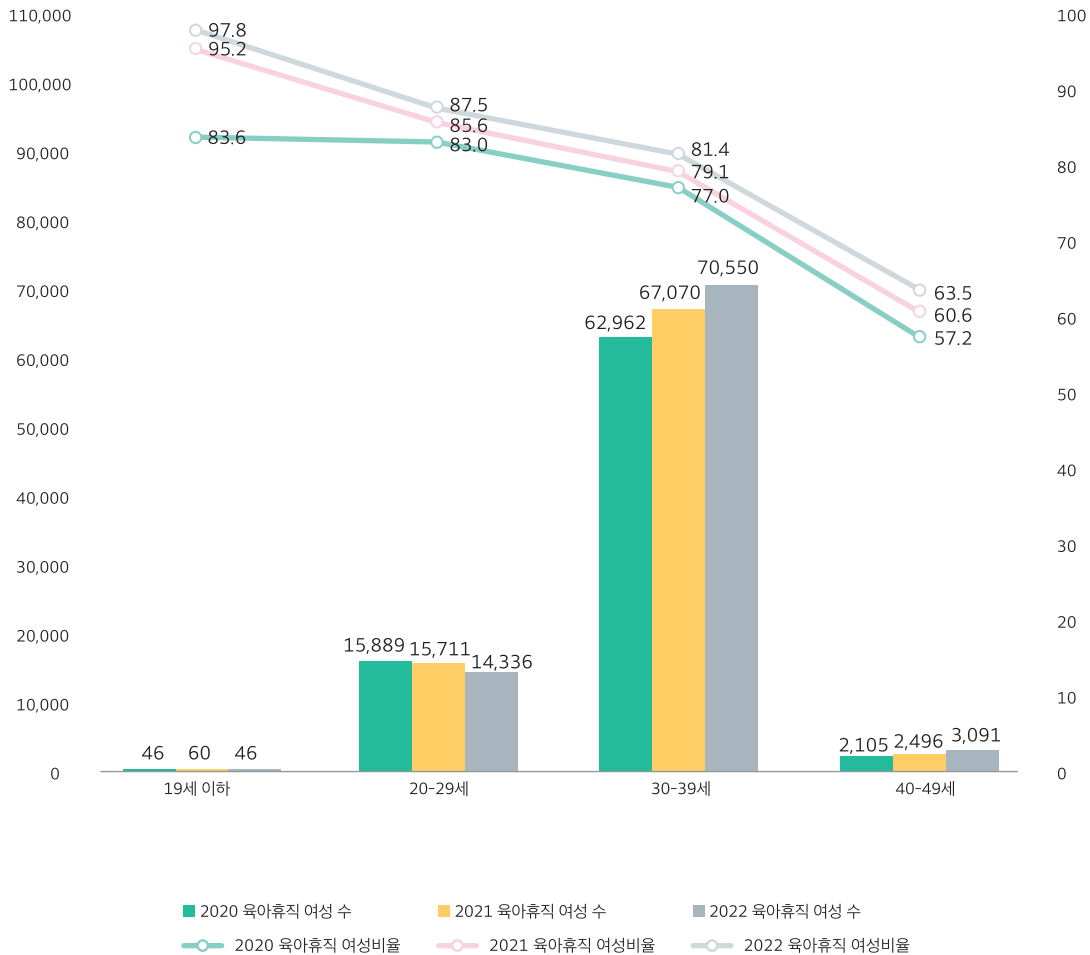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은 30대 기혼 여성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통계로 보는 서울가족]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

육아휴직 현황(2020-2022년)

<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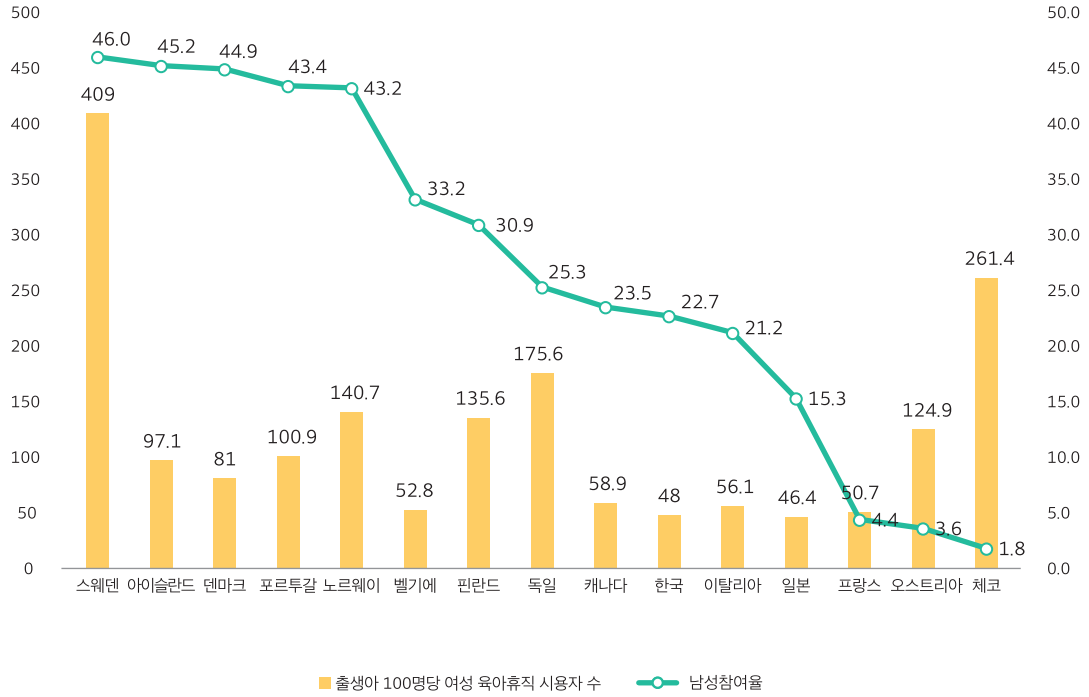
자료: 모성보호지급현황(년)(2022).

<https://eis.work.go.kr/eisps/rpt/olap/selectReptOlapPpupDtal.do?menuId=030010040>에서 조회 조건으로 [지역]에 '서울특별시', [데이터 항목(열)]에 '성별' 및 '연령_10세'를, [축정값]에 '육아휴직_순지급자수'를 설정하여 얻은 수치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그래프임

서울시 소재 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로는 **30대 여성이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낮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현황

< 단위: 명, % >



자료: OECD(2021). Family Database(PF2.2.C).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에서 관련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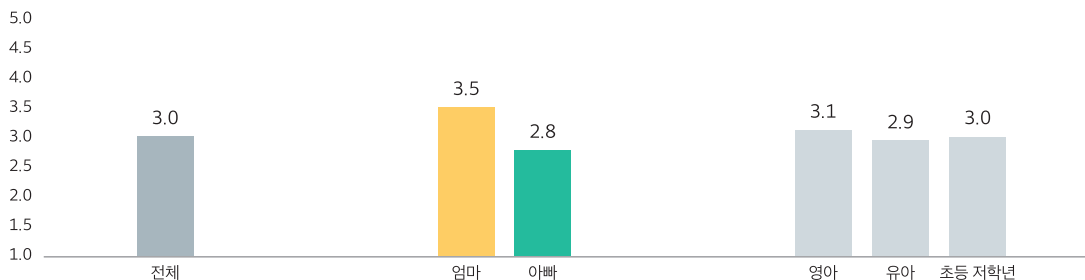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 대비 **한국 취업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은 덜 활발한 편입니다.**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자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가능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가능성: 상용직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년 서울양육자 표본(상용직 근로자 558명, 엄마 179명, 아빠 379명, 첫째 자녀 영아 179명, 유아 215명, 초등 저학년 164명)

만 0-9세 자녀를 둔 상용직 부모는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보통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범위: 1-5점)라고 인식하며, **엄마가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인식합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아빠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아빠의 수는 엄마보다 크게 적었다. 또한,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에서 상용직 근로자인 부모 중 아빠는 엄마보다 현재 직장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게 인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아빠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후속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Duvander et al., 2010; Tomm, 2019).

육아휴직제도는 법률 제정도 중요하지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수적이다. 남성적 조직문화 규범이 강하거나 직장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조직문화가 강력할 경우, 아빠는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망설이게 된다(Haas & Hwang, 2019).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정도는 정적 관련성이 있으므로(Thompson et al., 1999),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직장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1) Duvander, A. Z., Lappegård, T., & Andersson, G. (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45-57.

2) Haas, L., & Hwang, C. P. (2019). Policy is not enough—the influence of the gendered workplace on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Sweden. *Community, Work & Family*, 22(1), 58-76.

3) Tamm, M. (2019). Fathers' parental leave-taking, childcare involvemen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Labour Economics*, 59, 184-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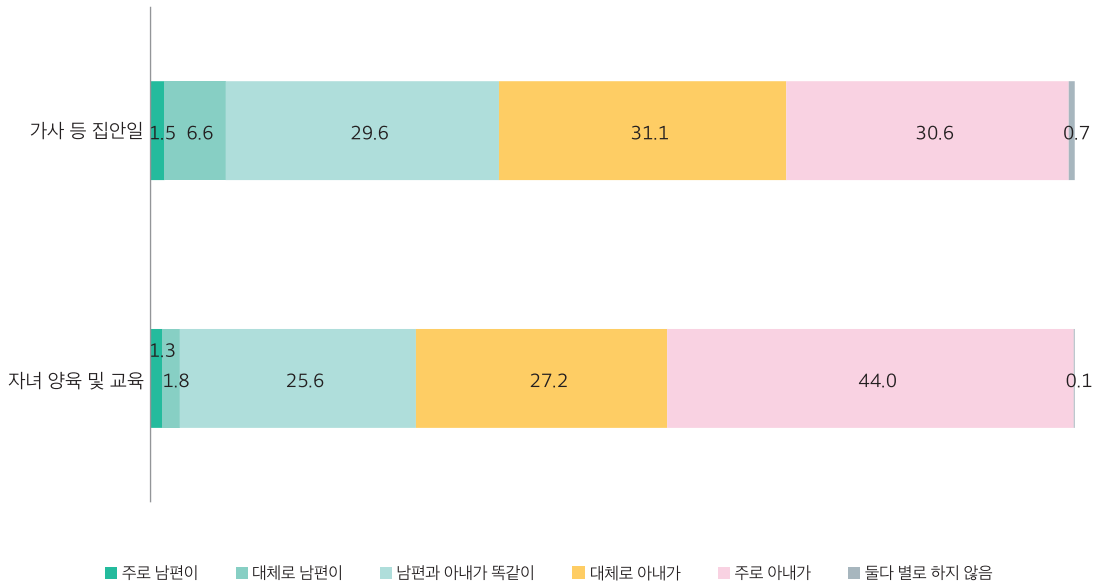
4) Thompson, C. A., Beauvais, L. L., & Lyness, K. S. (1999). When work-family benefits are not enough: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ulture on benefit utilization,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3), 392-415.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자의 가사 및 양육 분담

엄마, 아빠의 가사 및 양육 분담: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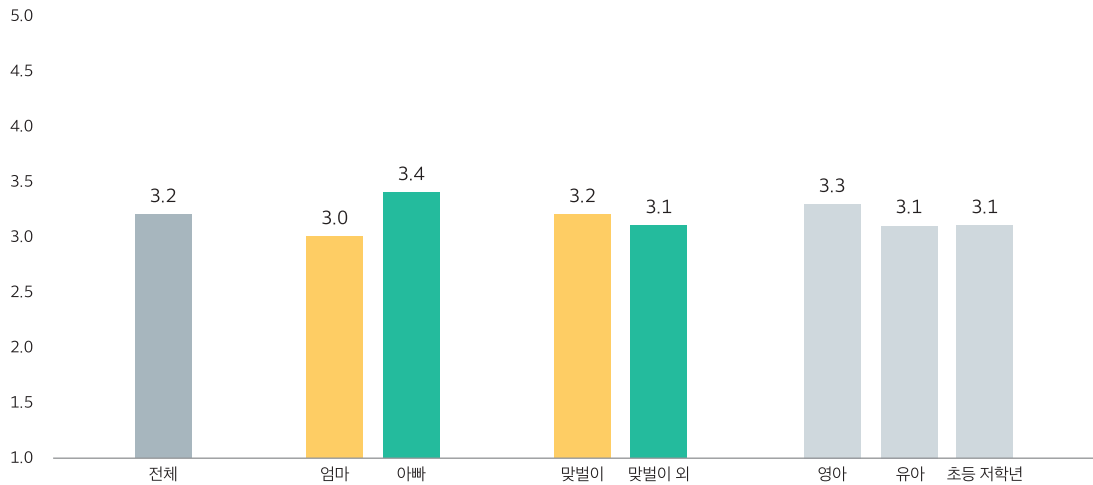
만 0-9세 자녀를 둔 서울시민 중 가사 등 집안일을 주로 또는 대체로 엄마가 하는 비율은 61.7%,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주로 또는 대체로 엄마가 하는 비율은 71.2%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노동은 엄마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자의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공정성

엄마, 아빠의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공정성: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만 0-9세 자녀의 엄마, 아빠는 부부의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공정성(범위: 1-5점)이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영아기 자녀의 부모**보다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이 **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자녀양육기 가족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사 등 집안일을 엄마가 주로 또는 대체로 하는 경우는 약 62%였고,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공정성도 엄마가 **아빠**에 비해 낮게 인식하였다. 부부가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구를 방문하여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바,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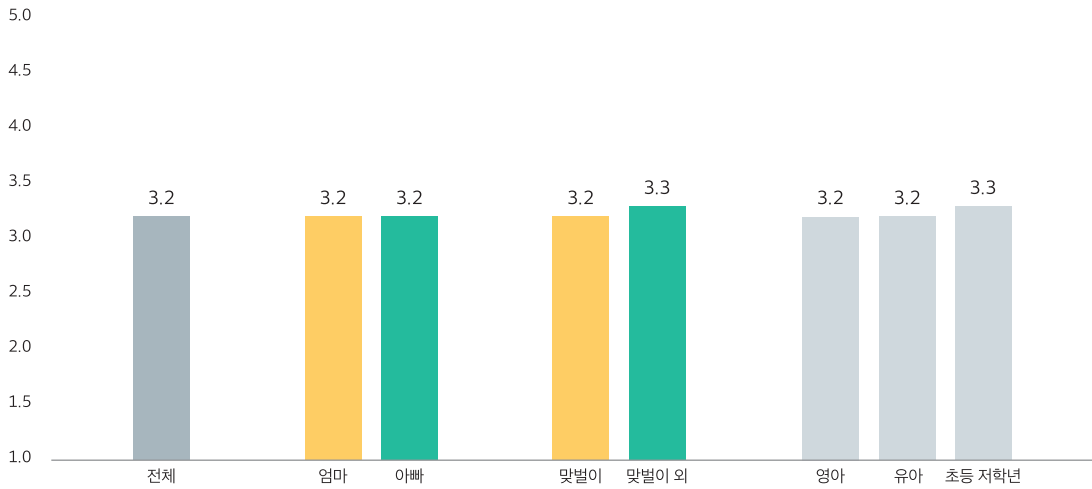
자료: <https://seoulgasa.or.kr/home/introduce>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자의 가족여가 시간 충분성

엄마, 아빠의 가족여가 시간 충분성: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맞벌이 여부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단위: 점 >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는 최근 3개월간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 충분성(범위: 1-5점)이 보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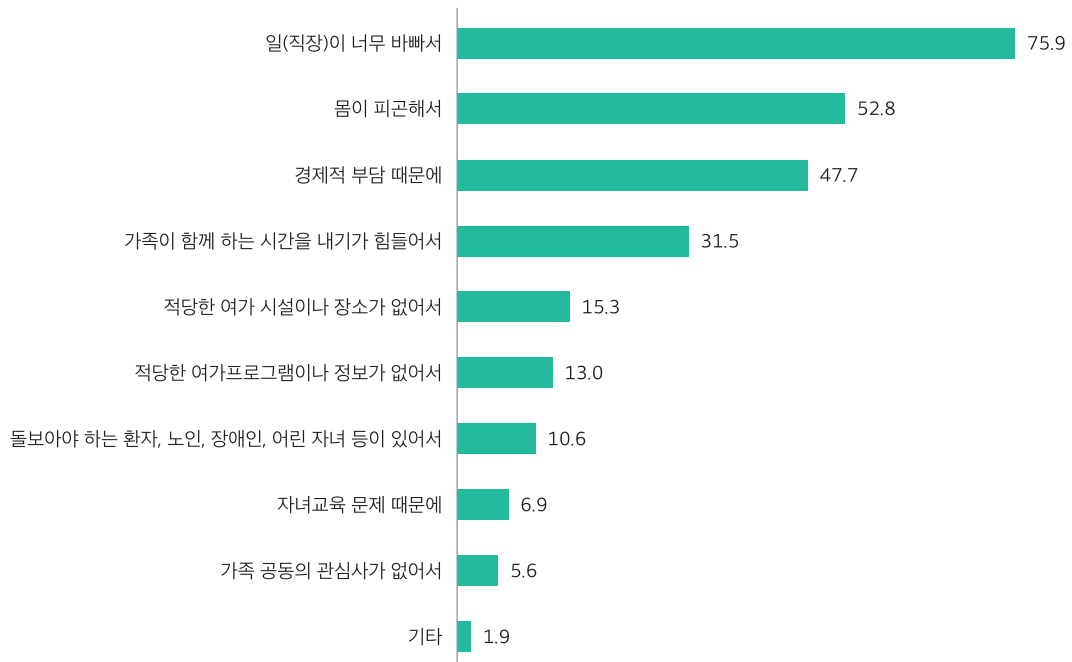


[서울양육자서베이] 양육자가 인식한 가족여가 시간이 불충분한 이유

‘최근 3개월간 귀택에서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및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로 응답한 부모들에게 그 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일이 너무 바빠서’(75.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몸이 피곤해서’(52.8%), ‘경제적 부담 때문에’(47.7%) 순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가 인식한 가족여가 시간이 불충분한 이유: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2023년)

< 단위: % >



주: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는 복수응답 문항임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최근 3개월간 귀택에서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및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로 응답한 첫째 자녀 0-9세의 부모 216명)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로 절반 이상이 선택한 것은 ‘일(직장)이 너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입니다.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서울시 정책·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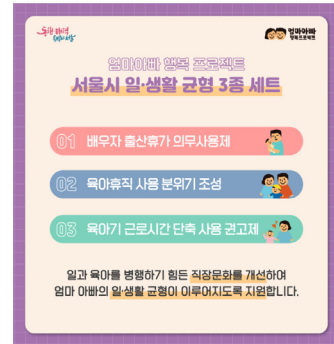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시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해, 총 12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료: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68>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직장 문화를 개선하여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이 3종 세트는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로 구성된다. 서울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3종 세트를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아빠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정기적으로 권고


자료: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3534>

자녀양육기 가족의 여가·문화 지원 서울시 정책·서비스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에서는 주로 만 0-9세(시설별 이용 대상 상이) 아동이 계절, 미세먼지 등과 상관없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놀이와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맘 강동 (서울형 키즈카페 강동구 암사1동점)



이용정원

기관
19명 이상~ 최대 19명


개인
총 정원: 19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로99길 15-3층 (암사동)

이용안내
공차세량
제약안내
오시는길
예약 신청

꾸미팡팡 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광진구 중곡3동점)



이용정원

기관
최대 45명 (영유아 기준)

개인
최저별 최대 30명(영유아 기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3층 (중곡동)

이용안내
공차세량
제약안내
오시는길
예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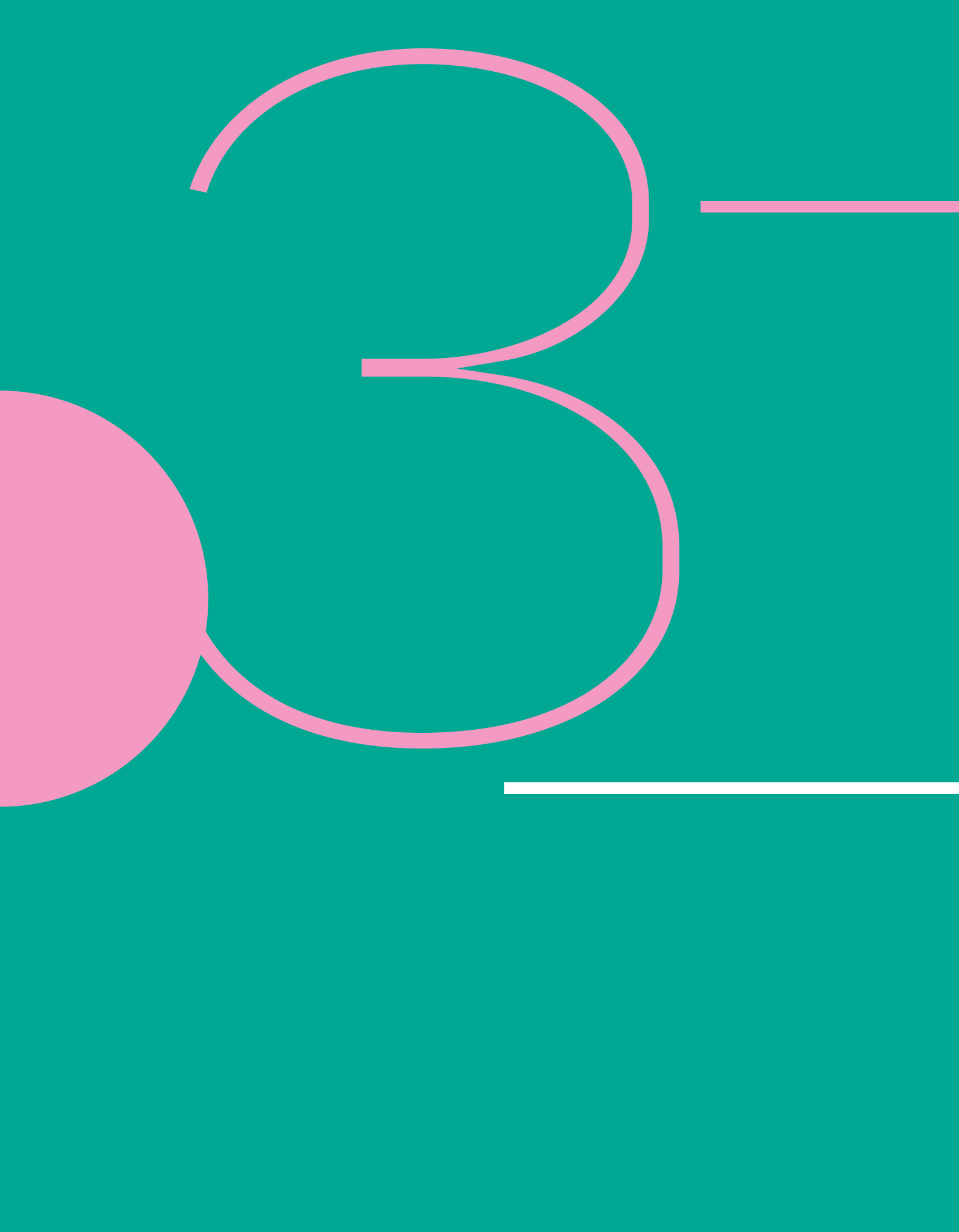
자료: 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2) https://icare.seoul.go.kr/icare/user/kidsCafe/BD_selectKidsCafeList.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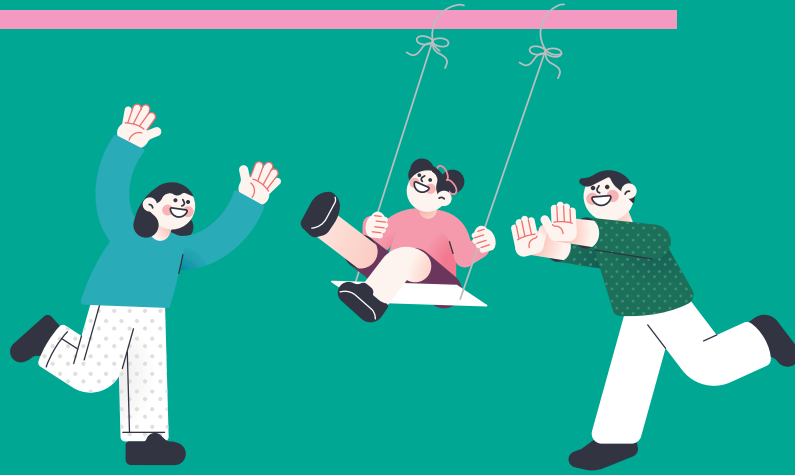
서울엄마아빠택시 i.M(아이.엠) **엄마아빠** 양육보조서비스

서울엄마아빠택시 i.M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한 나들이, 병원 인근 외출 등 이동이 필요할 때,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에 넓은 적재 공간과 카시트를 갖추고 있고, 파워 슬라이딩 도어로 차량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 영아를 동반한 부모가 이동하기 편안하도록 한다. 2023년 16개의 시범 자치구(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에 시범사업 후 2024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엠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앱에 업로드하면, 소속 자치구에서 자격 검토 후에 서비스 승인 및 이용 포인트(영아 1인당 i.M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점)를 지급한다. 이후 [아이.엠] 앱을 통해 택시 서비스 호출이나 예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 <https://www.imforyou.co.kr/pages/seoul-taxi.html>





서울가족의 관계

1. 전반적 가족관계
2. 부부관계
3. 부모자녀관계

01.

전반적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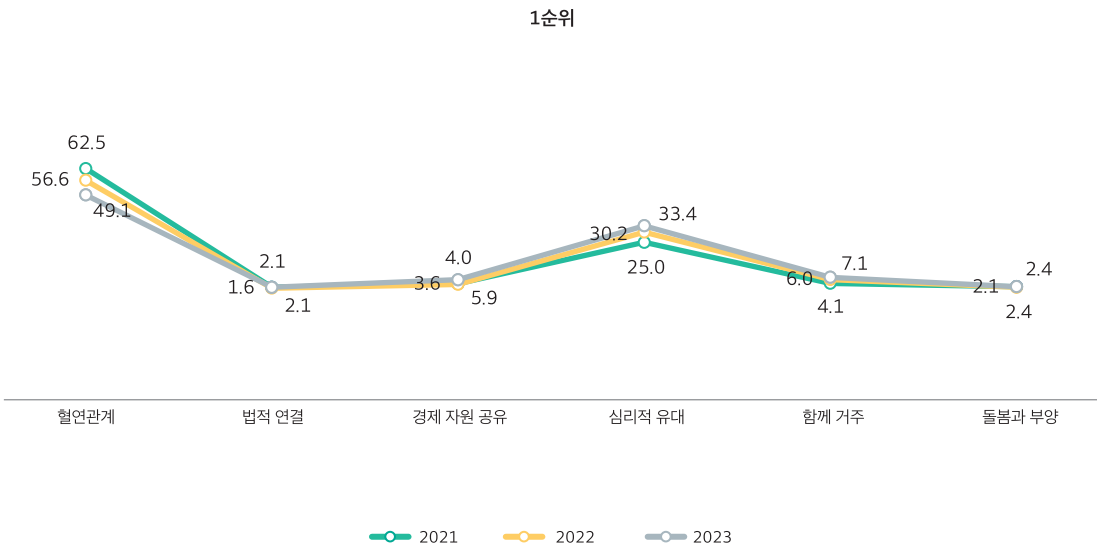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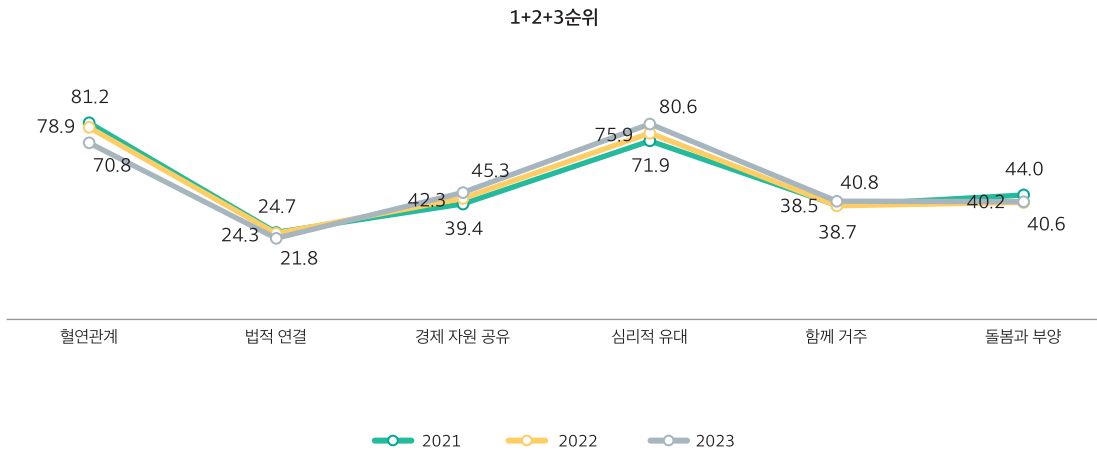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의 속성

서울시민에게 가족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을 1, 2,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2021~2023년), '혈연관계'의 비중은 감소하고 '심리적 유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1~3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한꺼번에 살펴보면 2021~2022년에는 '혈연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심리적 유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중요한 가족의 속성: 전체 1순위 및 1~3순위(2021~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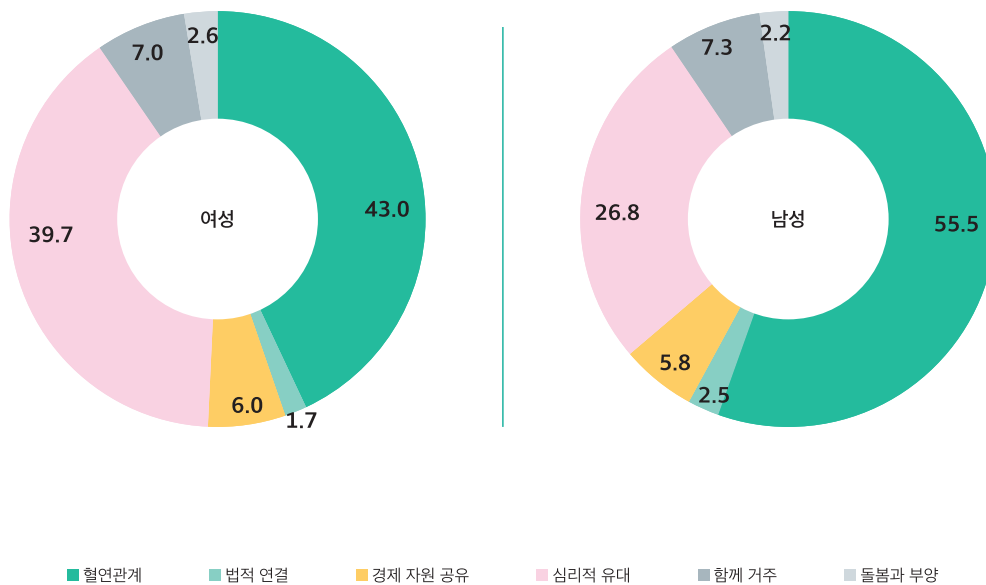


주: 각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에게 가족의 속성 중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심리적 유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족의 속성: 성별 1순위(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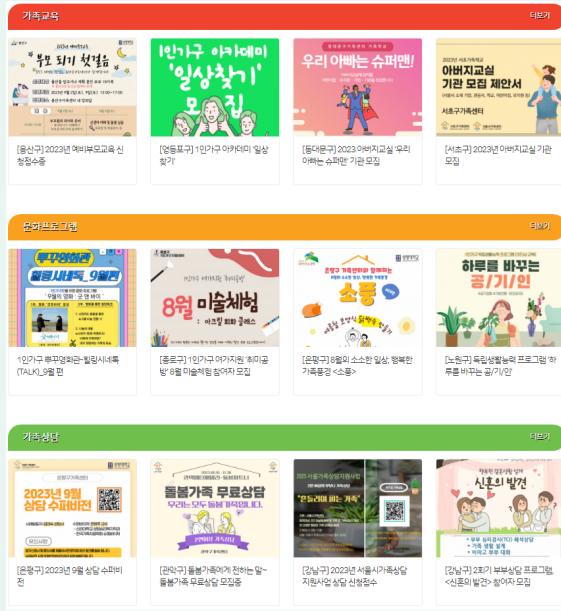


중요한 가족의 속성 1순위로 여성은 남성보다 '심리적 유대'를, 남성은 여성보다 '혈연관계'를 선택한 비율이 높습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

2023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서울시민은 가족의 정의를 혈연관계와 같은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유대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지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강조한 것처럼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외에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비혈연, 비혼동거 등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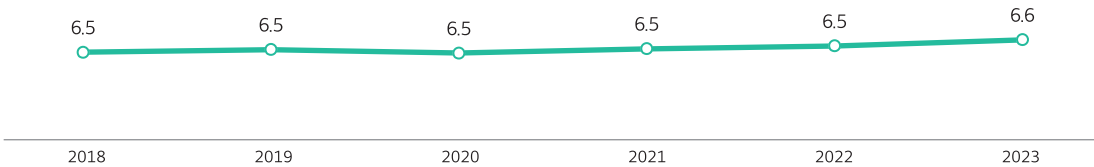
자료: 1)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home2018>
 2) 패밀리서울. 강북구 1인가구 개인상담. <https://familyseoul.or.kr/node/21355>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생활 행복감

가족생활 행복감: 전체(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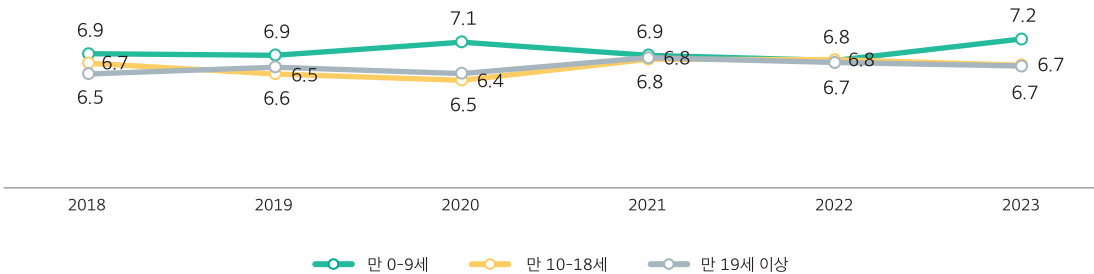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행복감(범위: 1-9점)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생활 행복감: 자녀 연령대별(2018-2023년)

< 단위: 점 >



주: 자녀 연령은 첫째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자녀가 있는 응답자 2018년 620명; 2019년 844명; 2020년 888명; 2021년 765명; 2022년 773명; 2023년 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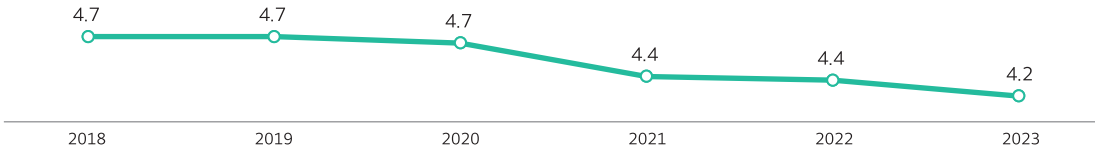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0-9세인 서울시민은 첫째 자녀가 만 10-18세, 만 19세 이상인 서울시민보다 가족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서울가족서베이] 가족 중요도

가족 중요도: 전체(2018-2023년)

< 단위: 점 >



주: 2018-2022년에는 '귀하에게 가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라고 질문하였고,
2023년에는 일-가족-사회관계-개인생활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응답하도록 한 부분 중 가족의 중요도를 분석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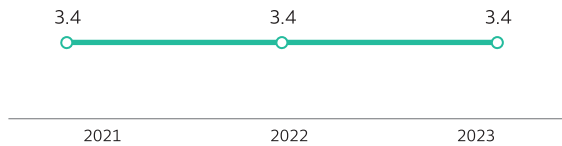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수준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범위: 1-5점).



[서울가족서베이] 가족 탄력성

가족 탄력성: 전체(2021-2023년)

< 단위: 점 >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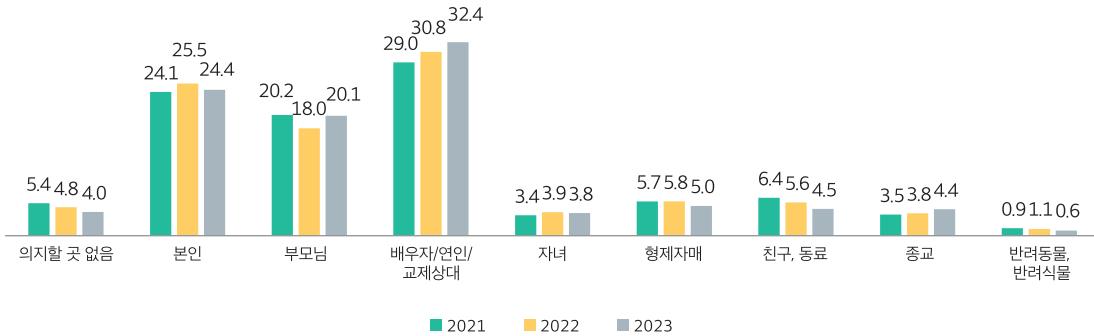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지각한 가족 탄력성(가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 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가족서베이] 심적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

심적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 전체(2021-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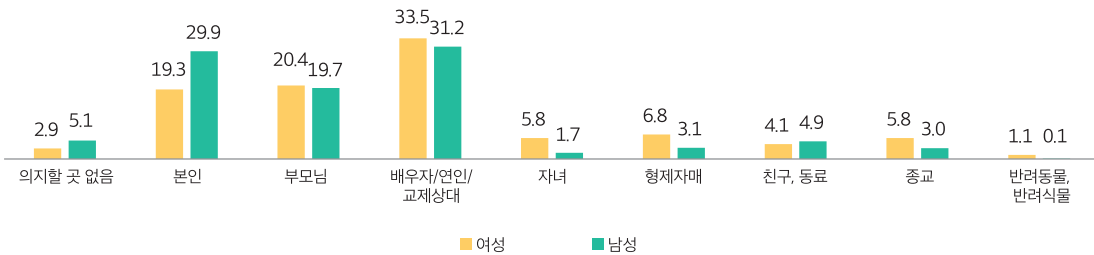


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1% 미만인 '친척', '이웃', '전문가', '기타' 응답보기는 생략한 그래프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은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배우자/연인/교제상대', '본인', '부모님'에게 주로 의지합니다.

심적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 성별(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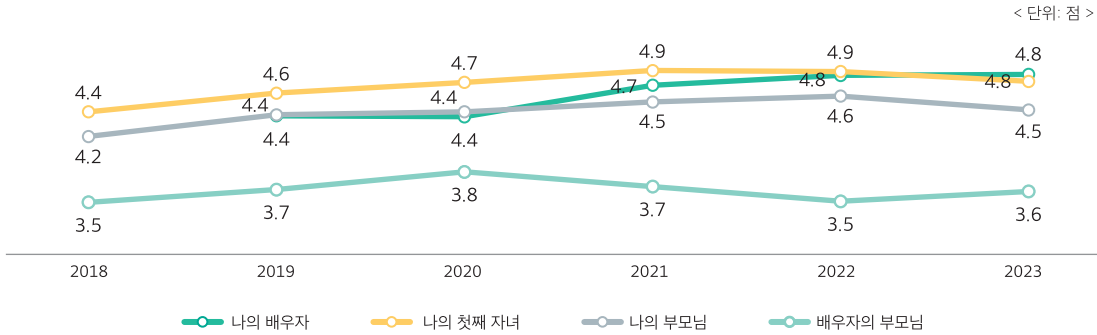
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1% 미만인 '친척', '이웃', '전문가', '기타' 응답보기는 생략한 그래프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우자/연인/교제상대',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종교'에 의지한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본인', '친구/동료'에게 의지한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음'을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습니다.



[서울가족서비스] 가족구성원별 친밀감

가족구성원별 친밀감: 전체(201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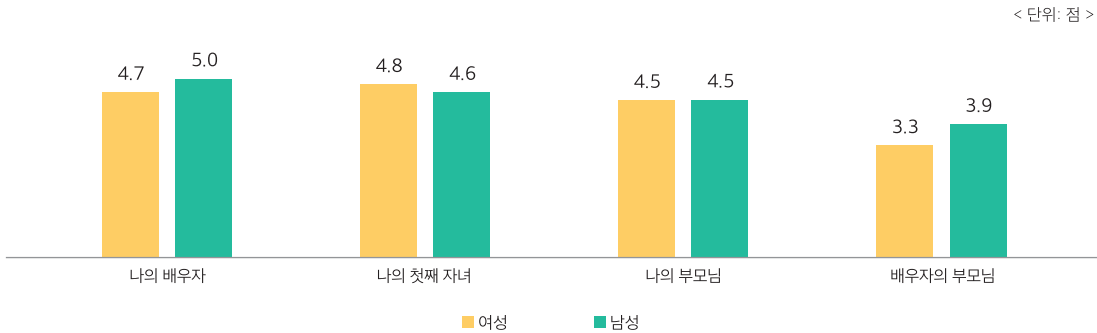


주: 1)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나의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나의 첫째 자녀'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나의 부모님'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2) 2018년에는 '나의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조사하지 않았음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

서울시민은 '나의 배우자', '나의 첫째 자녀', '나의 부모님'과 가깝다고 여깁니다(범위: 1-6점).

가족구성원별 친밀감: 성별(2023년)



주: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나의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67명; '나의 첫째 자녀'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700명; '나의 부모님'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1,357명; '배우자의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5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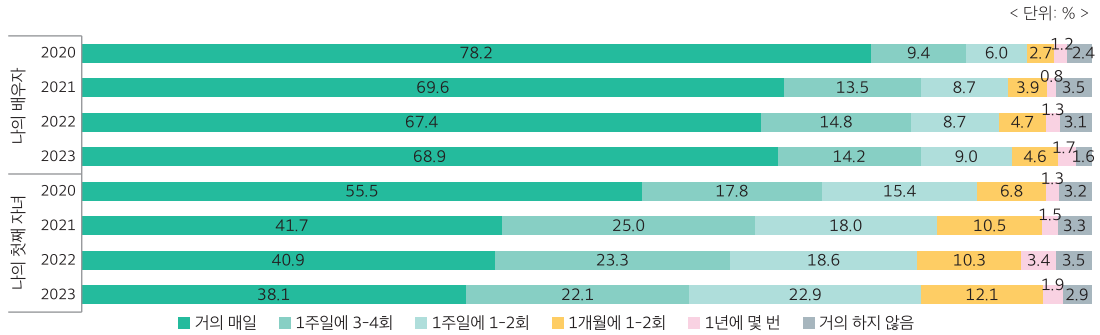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

남성은 여성보다 '나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과 가깝다고 느끼고,
여성은 남성보다 '나의 첫째 자녀'와 가깝다고 느낍니다.



[서울가족서베이] 가족과의 비대면 상호작용 빈도

배우자 및 첫째 자녀와의 비대면 상호작용 빈도: 전체(202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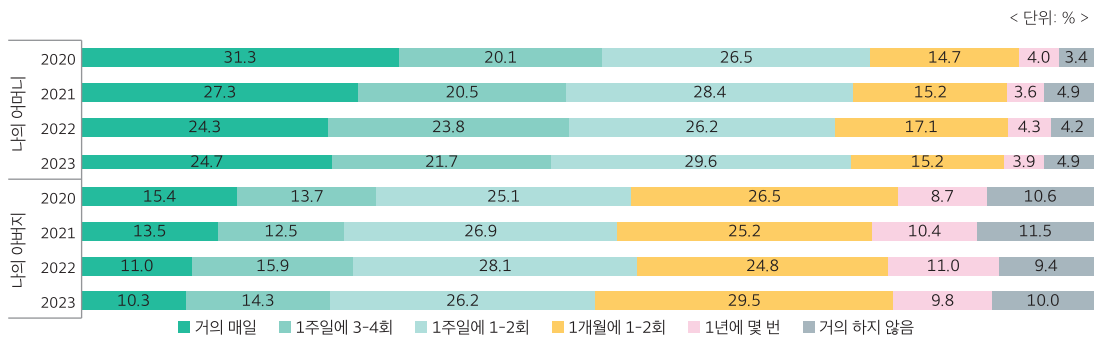
주: 1) 응답 보기 중 '전화 없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나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로 2020년 991명, 2021년 769명, 2022년 837명, 2023년 767명; '나의 첫째 자녀'는 첫째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상인 응답자로 2020년 772명, 2021년 690명, 2022년 703명, 2023년 643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배우자 및 첫째 자녀와 전화, 문자나 톡으로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부모와의 비대면 상호작용 빈도: 전체(2020-2023년)



주: 1) 응답 보기 중 '전화 없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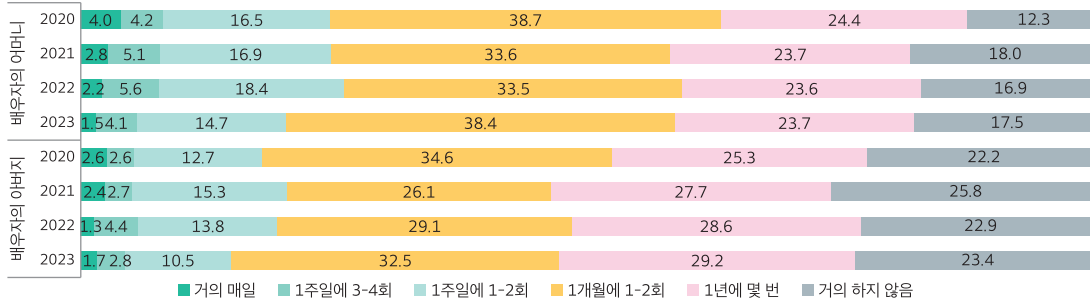
2)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나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생존한 응답자로 2020년 1,658명, 2021년 1,369명, 2022년 1,420명, 2023년 1,303명;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생존한 응답자로 2020년 1,306명, 2021년 1,091명, 2022년 1,135명, 2023년 999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이 부모님과 전화, 문자나 톡으로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와의 비대면 상호작용 빈도: 전체(2020-2023년)

< 단위: % >



주: 1) 응답 보기 중 '전혀 없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배우자의 어머니'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한 응답자로 2020년 727명, 2021년 575명, 2022년 630명, 2023년 563명; '배우자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한 응답자로 2020년 526명, 2021년 398명, 2022년 457명, 2023년 400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배우자의 부모님과 전화, 문자나 독으로 '1개월에 1-2회'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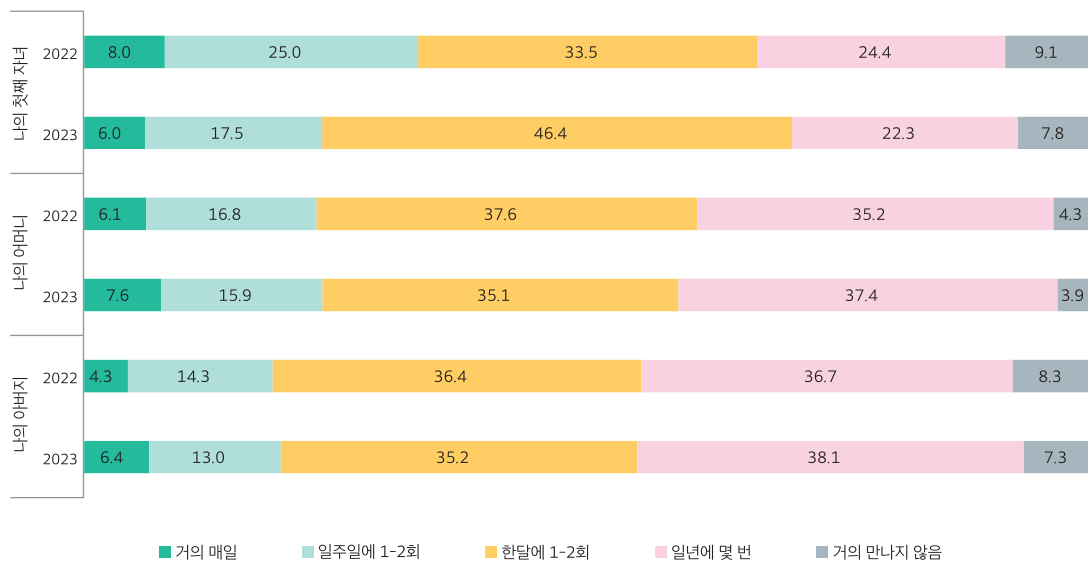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가족과의 대면 상호작용 빈도

부모 입장에서, 같이 살지 않는 성인 첫째 자녀와 대면으로 만나는 빈도가 ‘한 달에 1-2회’라는 응답비율은 2022년 33.5%에서 2023년 46.4%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인 자녀 입장에서,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의 대면 만남 빈도는 ‘한 달에 1-2회’, ‘일 년에 몇 번’ 만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같이 살지 않는 배우자의 부모와 ‘일 년에 몇 번’ 만나다는 응답비율은 약 49%로 절반 정도였다.

비동거 첫째 자녀 및 부모와의 대면 상호작용 빈도(2022-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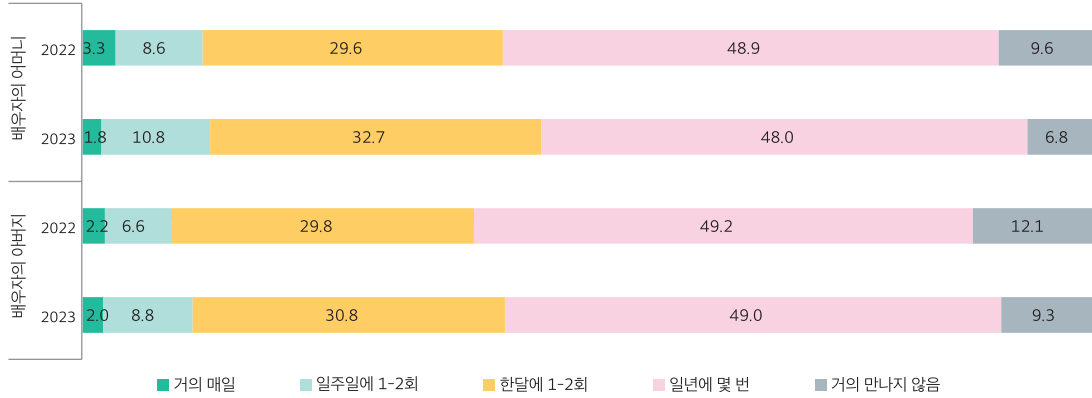
주: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나의 첫째 자녀는 동거하지 않는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로 2022년 176명, 2023년 166명;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생존하고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로 2022년 950명, 2023년 919명;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생존하고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로 2022년 791명, 2023년 716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은 동거하지 않는 성인 첫째 자녀와 ‘한 달에 1-2회’, 동거하지 않는 나의 부모님과 ‘한 달에 1-2회’ 또는 ‘일 년에 몇 번’ 만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비동거 배우자 부모와의 대면 상호작용 빈도(2022-2023년)

< 단위: % >



주: 응답 대상이 항목별로 상이함('배우자의 어머니'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하고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로 2022년 615명, 2023년 548명; '배우자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하고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로 2022년 453명, 2023년 396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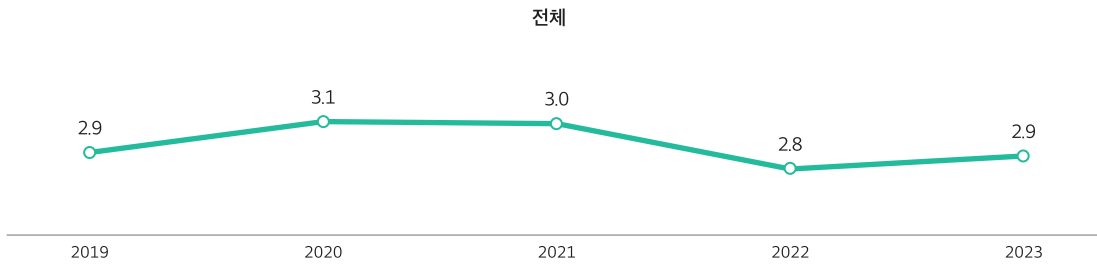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일년에 몇 번'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 가족 여가시간 충분성 및 충분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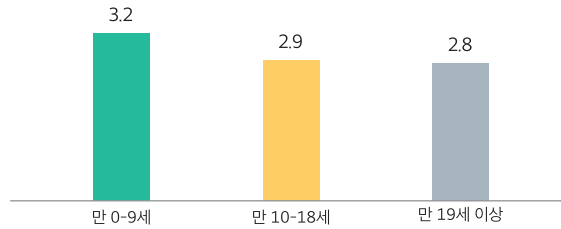
가족 여가시간 충분성: 전체(2019-2023년) 및 자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자녀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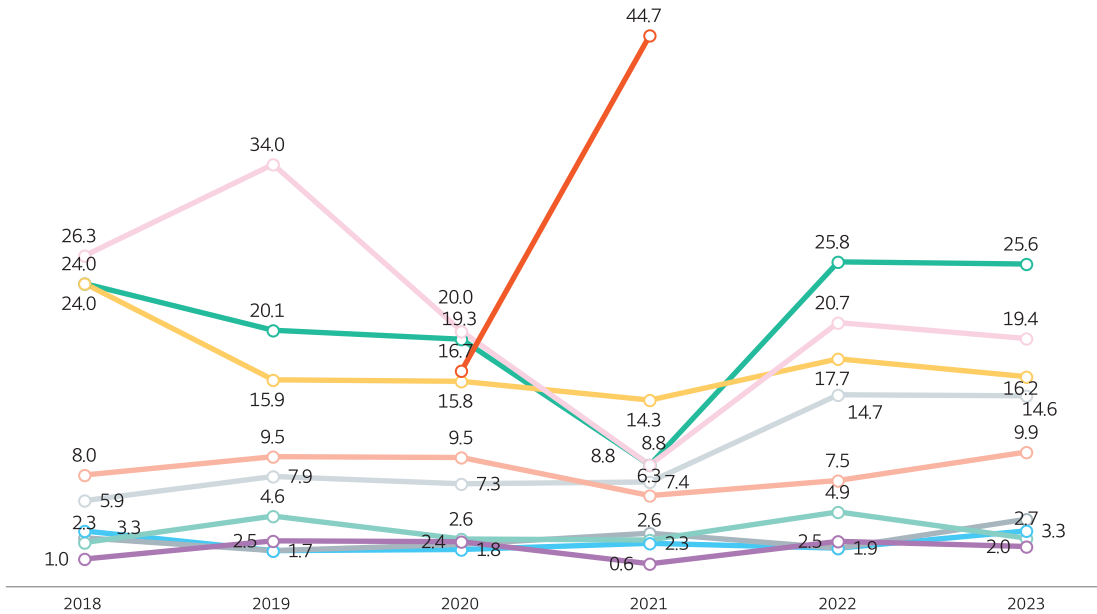
주: 자녀 연령은 첫째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만 0-9세 118명, 만 10-18세 155명, 만 19세 이상 427명)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가족 여가시간 충분성(범위: 1-5점)은 보통 수준입니다.

가족 여가시간 부족 이유: 전체(2018-2023년)

< 단위: % >



- 일이 너무 바빠서
- 가족 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
- 몸이 피곤해서
- 돌보아야 하는 환자, 노인, 장애인, 어린 자녀 등이 있어서
-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주: 1)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해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와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임(중복응답)
 2) '자녀교육문제 때문에'의 연도별 응답 보기가 상이함(2018, 2021-2023년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2019, 2020년 '자녀의 공부 때문에')
 3)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의 연도별 응답 보기가 상이함(2018-2022년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2023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4)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응답보기에 포함되었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은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중복응답)로 2018-2020년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2022-2023년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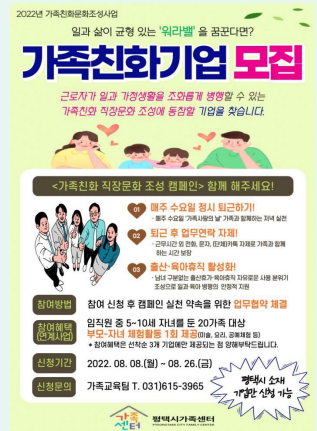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기업과 연계한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및 가족사랑의날

2018-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가족 여가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일이 너무 바빠서’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울시민이 일과 가족여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오전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공예품 만들기 등)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민의 가족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가족여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사업 목적은 가족이 양질의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일-가족 갈등 완화, 정서퇴근 문화 정착, 직장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근로자가 일과 가족여가 시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확장한다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최고경영자층이 가족친화문화에 관심이 많은 기업(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캠페인 참여 기업, 고용노동부 워라밸 실천기업)과 연계하여 직장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가족센터는 2022년 기업을 모집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내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과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여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들과 연계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플러스 직장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후속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가족캠핑, 2019년에는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자료: 1) 한국복지신문(2022. 8. 9). "평택시 가족센터, 가족친화기업 발굴 캠페인 실시" http://thebestnew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801
 2) 여주신문(2018. 10. 17). "2018년 경기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사업" <https://www.yeoj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1>
 3) 이천뉴스룸(2019. 10. 29). "가족행복 더하기 나들이 가족그림그리기 대회 열려" <https://www.ditime.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

2023 SEOUL FAMILY POLICY

서울시 가족여행 지원

서울행복여행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서울·지방 1박 여행 상품을 지원하는 서울행복여행 사업을 2023년 4월과 5월에 실시하였다. 서울행복여행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계가족을 최대 4인까지 동반할 수 있다.

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2023. 4. 17.). 지원 받고 떠나자! 서울형 여행바우처, 서울행복여행.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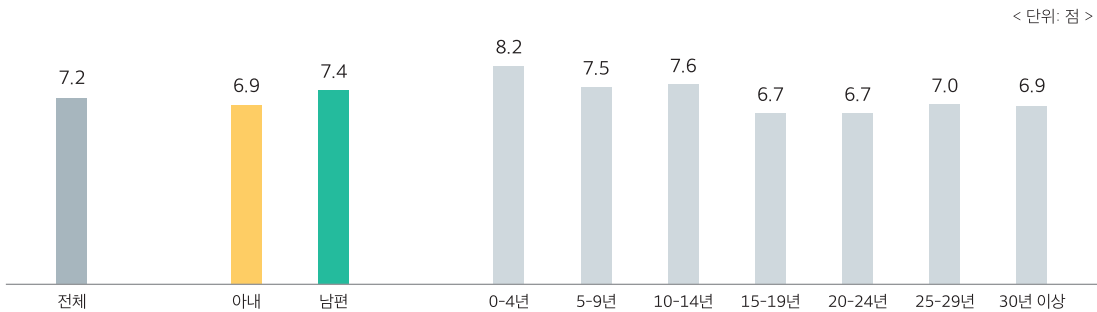
02.

부부관계



[서울가족서비스] 부부관계 행복감

부부관계 행복감: 전체 및 성별, 결혼지속연수별(2023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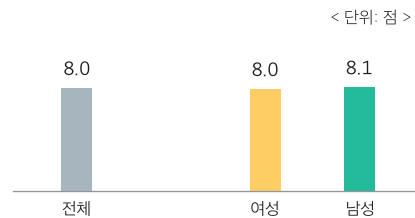
기혼 서울시민의 부부관계 행복감(범위: 1-10점)은 평균 7.2점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한 지 0-4년인 부부가 15년 이상인 부부보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다고 인식합니다.

연인관계 행복감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서울시민의 연인관계 행복감은 평균 8점(범위: 1-10점)이었다. 부부관계 행복감과 비교하면, 결혼한 지 0-4년인 부부의 행복감은 연인관계 행복감보다 미세하게 높다. 연인관계 행복감은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부관계 행복감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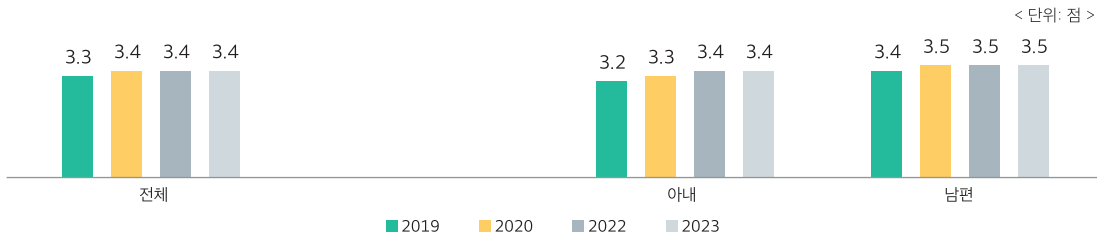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현재 교제 중인 상대가 있는 서울시민 294명)





[서울가족서베이] 부부의 대화 충분성

부부의 대화 충분성: 전체 및 성별(2019-2020년,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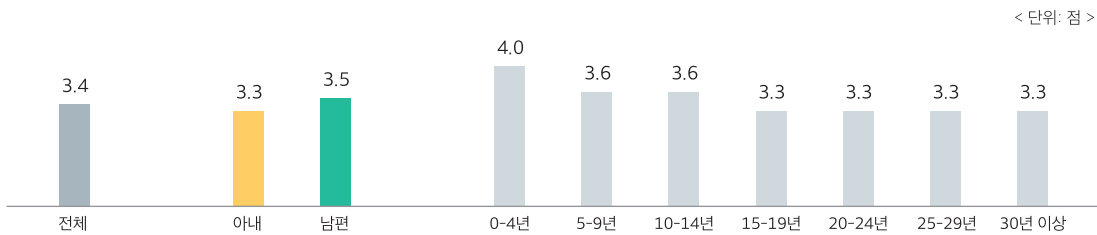


주: 2021년에는 부부간 대화 충분성을 조사하지 않았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기혼자 아내 2019년 463명, 2020년 483명, 2022년 421명, 2023년 383명; 남편 2019년 448명, 2020년 508명, 2022년 416명, 2023년 384명)

기혼 서울시민의 부부간 대화 충분성(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부부의 대화 충분성: 전체 및 성별, 결혼지속연수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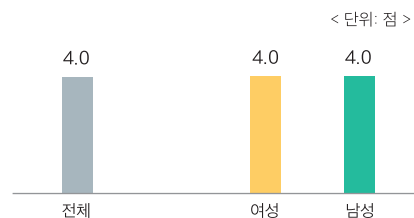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기혼자 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기혼 서울시민은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한 지 15년 이상인 부부가 0-4년인 부부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덜 충분하다고 인식합니다.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서울시민(294명)의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은 평균 4점(범위: 1-5점)으로 부부간 대화 충분성의 평균보다 높았고,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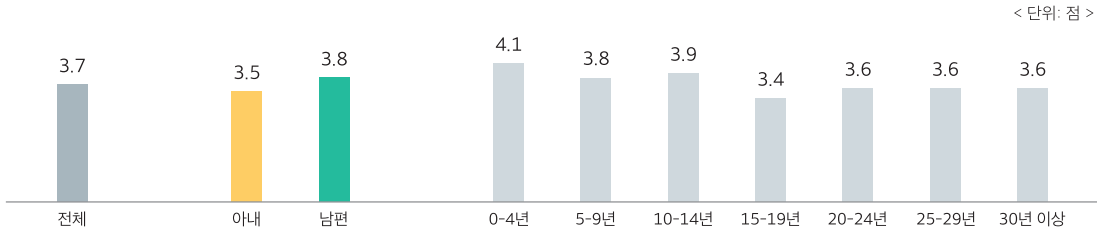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현재 교제 중인 상대가 있는 서울시민 294명)





[서울가족서베이] 부부관계 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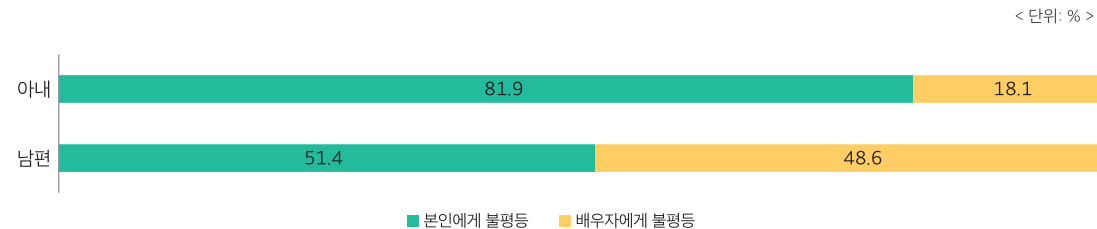
부부관계 평등 인식: 전체 및 성별, 결혼지속연수별(2023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기혼자 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서울시민은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한 지 0-4년인 부부가 15-24년, 30년 이상인 부부보다 자신의 부부관계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범위: 1-5점).

부부관계 불평등 양상: 성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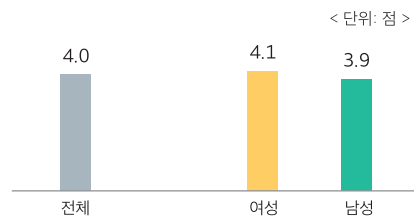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부부관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혼자 아내 149명, 남편 105명)

기혼 서울시민은 남녀 모두 부부관계가 본인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배우자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보다 많습니다. 아내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부부관계가 자신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인관계 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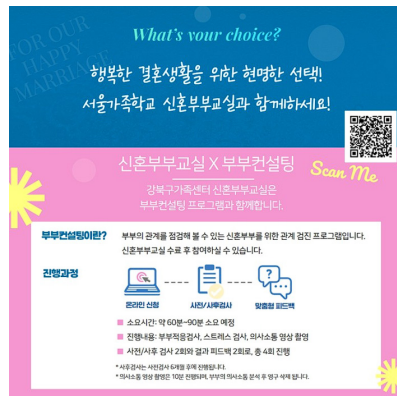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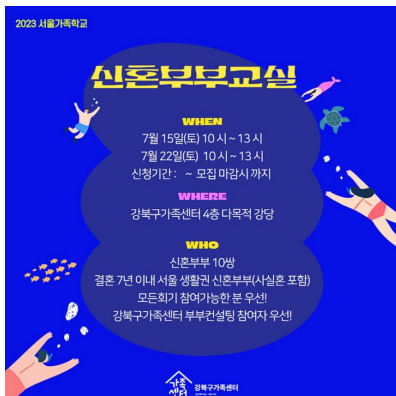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서울시민의 연인관계 평등 인식은 평균 4점(범위: 1-5점)으로 부부관계 평등 인식의 평균보다 높았다. 흥미롭게도, 여성(4.1점)의 평균이 남성(3.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현재 교제 중인 상대가 있는 서울시민 294명)

서울시 신혼부부학교

신혼기는 결혼생활의 규칙, 역할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결혼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신혼기에 겪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교실', 부부관계 점검 및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중 '예비·신혼부부교실'은 25개 전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 중이다. 신혼부부학교는 2023년 5개 자치구 가족센터(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자료: 1) 서울시 보도자료(2023. 7. 13.)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https://opengov.seoul.go.kr/press/28855849>

2) 서울시 가족센터 네이버 블로그(2023. 6. 23.) [강북구센터] 7월 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oulfamilyc&logNo=223136904120&parentCategoryNo=6&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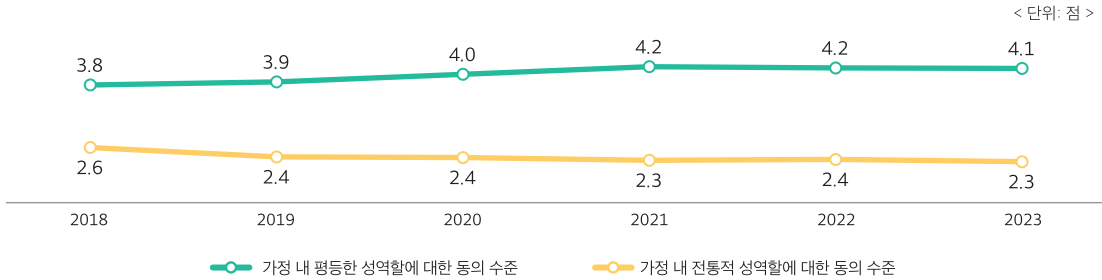
3)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2023. 7. 28.) "자기가~ 싸움은 그만, 신혼부부교실 가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632>



[서울가족서베이] 가정 내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 전체(201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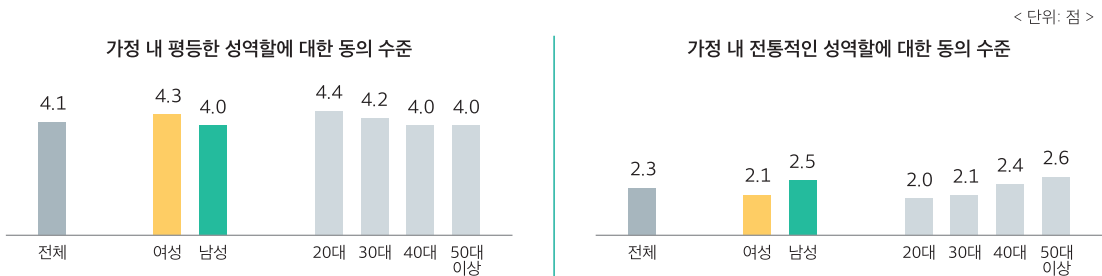


- 주: 1)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2문항의 평균임
 2)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자에게서 나와야 한다' 등 4개 문항의 평균임
 3)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 중 1문항이 연도별로 상이함(2018-2020년 '집안일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2021-2023년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은 가정 내 **평등한 성역할에 대체로 동의합니다**(범위: 1-5점).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낮습니다.

성역할 태도: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주: 1)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2문항의 평균임
 2)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자에게서 나와야 한다' 등 4개 문항의 평균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가정 내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낮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 부부 역할분담

[부부 역할분담] 자녀 양육 및 교육: 전체(2018-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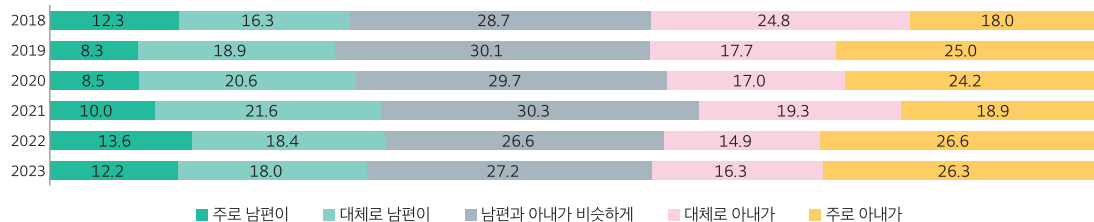
주: 1) 응답 대상이 연도별로 상이함(2018-2020년 배우자 있음; 2021년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음; 2022-2023년 배우자 있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2) 응답 보기 중 2018-2020년 '해당 없음', 2022-2023년 '둘 다 별로 하지 않음'은 제외하고 분석함(분석 대상: 2018년 309명; 2019년 809명; 2020년 803명; 2021년 701명; 2022년 374명; 2023년 319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기혼 서울시민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은 아내가 '대체로' 또는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부부 역할분담] 재산 관리: 전체(2018-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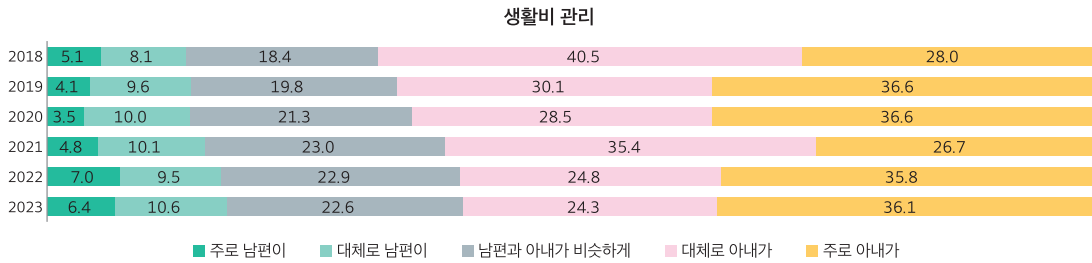
주: 1) 응답 대상이 연도별로 상이함(2018-2020년 배우자 있음; 2021년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음; 2022-2023년 배우자 있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2) 응답 보기 중 2018-2020년 '해당 없음', 2022-2023년 '둘 다 별로 하지 않음'은 제외하고 분석함(분석 대상: 2018년 664명; 2019년 809명; 2020년 984명; 2021년 145명; 2022년 824명; 2023년 753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기혼 서울시민의 '재산 관리'는 '남편과 아내가 비슷하게'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부부 역할분담] 생활비 관리: 전체(2018-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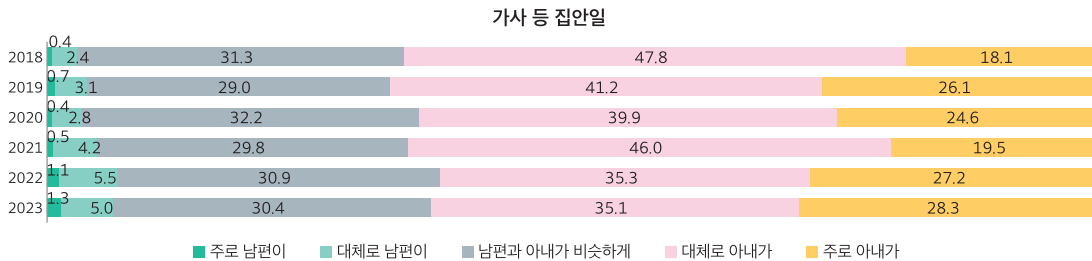
주: 1) 응답 대상이 연도별로 상이함(2018-2020년 배우자 있음; 2021년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음; 2022-2023년 배우자 있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2) 응답 보기 중 2018-2020년 '해당 없음', 2022-2023년 '둘 다 별로 하지 않음'은 제외하고 분석함(분석 대상: 2018년 664명; 2019년 809명; 2020년 988명; 2021년 769명; 2022년 824명; 2023년 753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기혼 서울시민의 '생활비 관리'는 아내가 '대체로' 또는 '주로' 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부 역할분담] 가사 등 집안일: 전체(2018-2023년)

< 단위: % >



주: 1) 응답 대상이 연도별로 상이함(2018-2020년 배우자 있음; 2021년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음; 2022-2023년 배우자 있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2) 응답 보기 중 2018-2020년 '해당 없음', 2022-2023년 '둘 다 별로 하지 않음'은 제외하고 분석함(분석 대상: 2018년 664명; 2019년 809명; 2020년 987명; 2021년 769명; 2022년 824명; 2023년 753명)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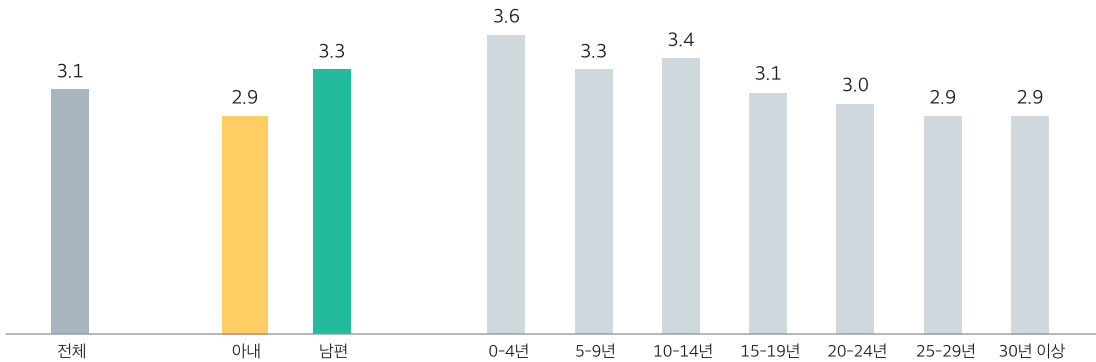
기혼 서울시민의 '가사 등 집안일'은 아내가 '대체로' 또는 '주로' 하고 있으나, 남편이 '대체로' 또는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 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

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 전체 및 성별, 결혼지속연수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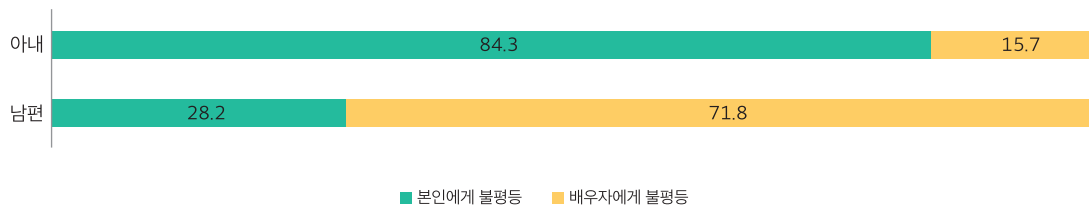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기혼자 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에 대해 기혼 서울시민은 보통 수준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범위: 1-5점).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한 지 0-4년인 부부가 15년 이상인 부부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불공평 양상(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이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혼자 아내 255명, 남편 2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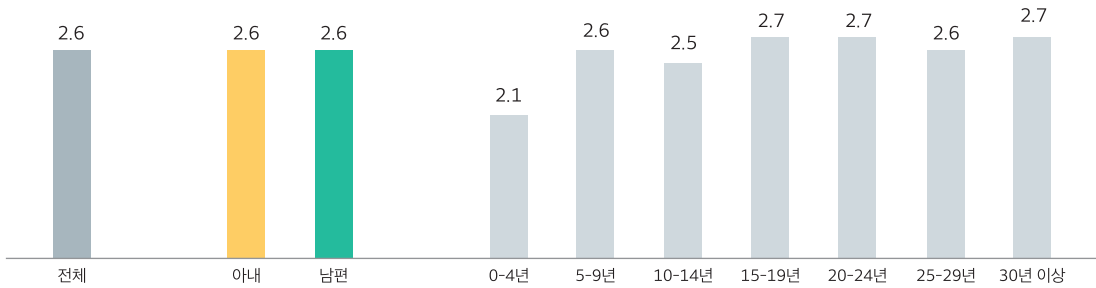
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기혼 여성 및 남성 모두 아내에게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가족서베이] 부부의 부정적 상호작용

부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 전체 및 성별, 결혼지속연수별(2023년)

< 단위: 점 >



주: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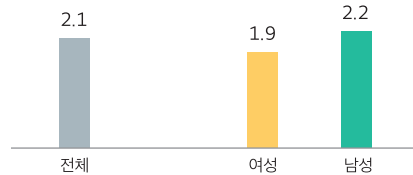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기혼자 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기혼 서울시민의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낮습니다. **결혼한 지 15-19년, 20-24년, 30년 이상인 부부가 0-4년인 부부에 비해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습니다.**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현재 교제 대상이 있는 서울시민의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평균 2.1점(범위: 1-5점)으로,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평균 2.6점)보다 낮았다.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남성(2.2점)이 여성(1.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단위: 점 >



주: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현재 교제 중인 대상이 있는 으로 서울시민 294명)

어떤 경우에 부부관계 행복감이 높을까?

2023 서울가족서베이 문항 중 기혼 남녀의 부부관계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을 종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남성인 경우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 ✓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 ✓ 배우자와의 비대면 상호작용(전화, 문자, 메신저 등)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결혼검진

2023 서울가족서베이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관계 행복감이 높았다. 결혼지속연수가 15년 이상인 부부의 부부관계 행복감은 0-4년인 부부보다 유의하게 낮지만, 결혼지속연수 0-4년인 부부의 부부관계 행복감은 연인관계 행복감보다 오히려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지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검진'을 지원한다. 결혼검진은 부부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의 가족센터는 결혼검진을 통해 부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갈등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자료: 1) 패밀리서울 [강북구] 부부스쿨(결혼검진) 참여자 모집 안내
<https://familyseoul.or.kr/node/10755>
 2) 도봉구 가족센터. 부부 결혼검진 참여자 모집
<https://dobong.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449/receipt/view.do?seq=161351>



중년기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2023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지 15년 이상인 부부는 0-4년인 부부에 비해 부부관계 행복감, 부부간 대화 충분성은 낮고,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높았다. 또한 심층분석 결과,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관계 행복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중년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원구 가족센터에서는 2023년에 중년기 부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통해 배우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MBTI 집단상담

배우자 이해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중년기 부부 집단상담

2023.05.18-06.15 (19:30-21:30)

<p>일시 2023. 5.18(목) ~ 6.15(목) 시간: 7:30-9:30</p> <p>대상 중년기(40-50대)부부 5-7커플</p> <p>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p> <p>문의 070.4613.0626 (가족사업 1팀)</p>	<p>장소 불 연민 교육실 (노원구 통일로173가길044 4층방담 3층)</p> <p>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소개 (MBTI검사) 2 부부이해 (MBTI 소그룹활동) 3 부부역사소통 및 역할이해 (자기표현) 4 부부역사소통 및 역할이해 (실용적 대화 및 조율) 5 부부성명 (갈등해결 대화 및 상호보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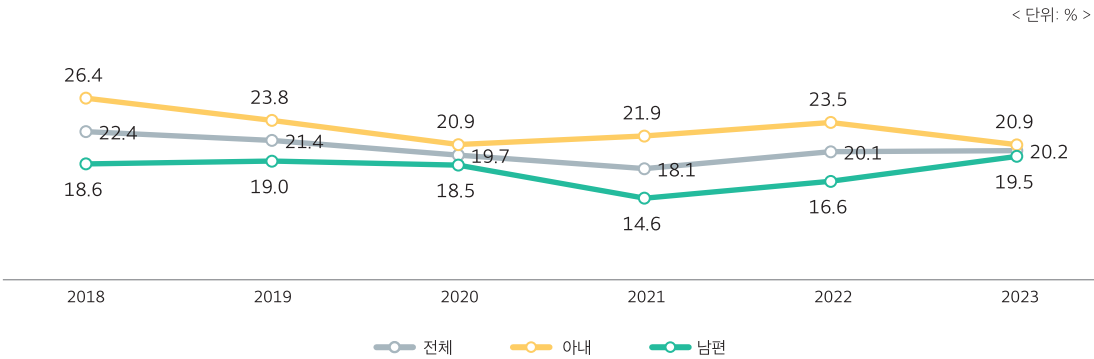
노원구

자료: 패밀리서울. [노원구] 중년기 부부집단상담. <https://familyseoul.or.kr/node/20632>



[서울가족서베이] 부부의 이혼 고민 경험

부부의 이혼 고민 경험: 전체 및 성별(2018-2023년)



주: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기혼자)

기혼 서울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사례

독일 | 갈등, 이혼 가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슈타르크(STARK)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갈등 및 이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슈타르크(STARK)를 운영하고 있다. 슈타르크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의 갈등, 별거, 이혼 절차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재정적, 법률적 도움
- 위기 상황의 부부에게 예방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부부간의 대화법, 양육비에 관한 정보 제공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분야를 따로 마련하여 가족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심리적, 교육적 지원



자료: 1)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2) 슈타르크(STARK). <https://www.stark-familie.inf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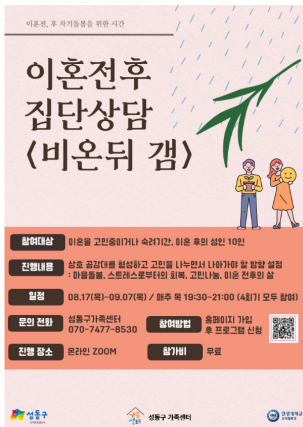
3)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online-plattform-staerkt-familien-bei-streit-und-trennung-202708>



이혼전후 서울가족 지원

가족센터에서도 부부갈등 및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 가족센터에서는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숙려기간, 또는 이혼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전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남구 가족센터에서는 상속, 공증, 이혼 등 가정 내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송파구 가족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 또는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1) 패밀리서울 [성동구] 2023 이혼전후집단상담 신청접수증. <https://familyseoul.or.kr/node/21180>

2) 패밀리서울 [강남구] 2023 무료법률상담. <https://familyseoul.or.kr/node/20149>

3) 패밀리서울 [송파구] 2023 면접교섭서비스. <https://familyseoul.or.kr/node/2047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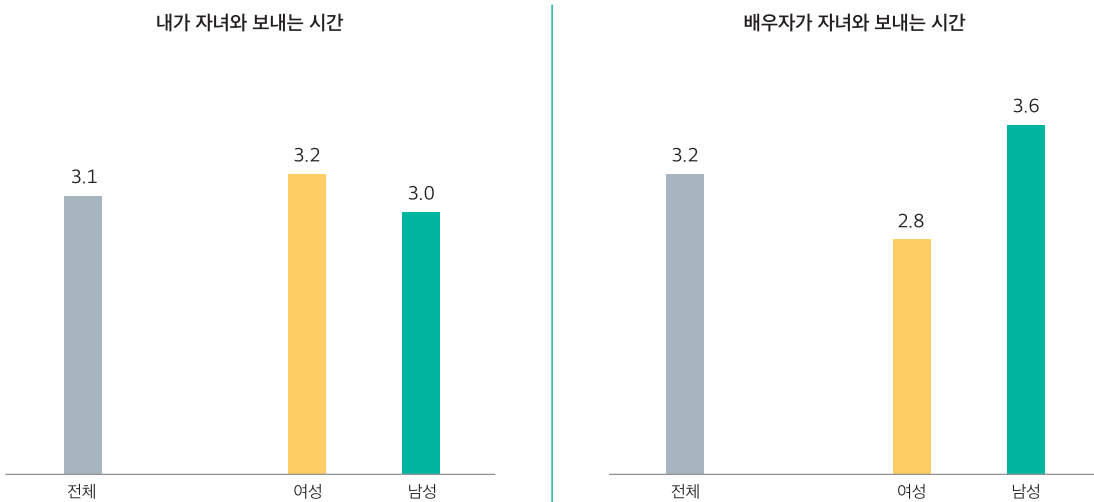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



[서울가족서베이] 부모-자녀 공유시간 충분성 및 대화 충분성

부모-자녀 공유시간 충분성: 만 0-18세 자녀를 둔 부모 전체 및 성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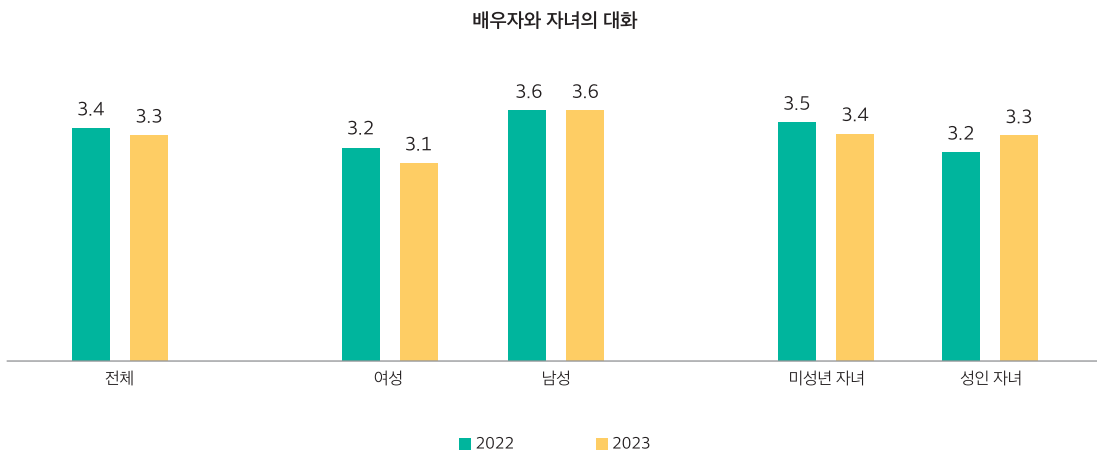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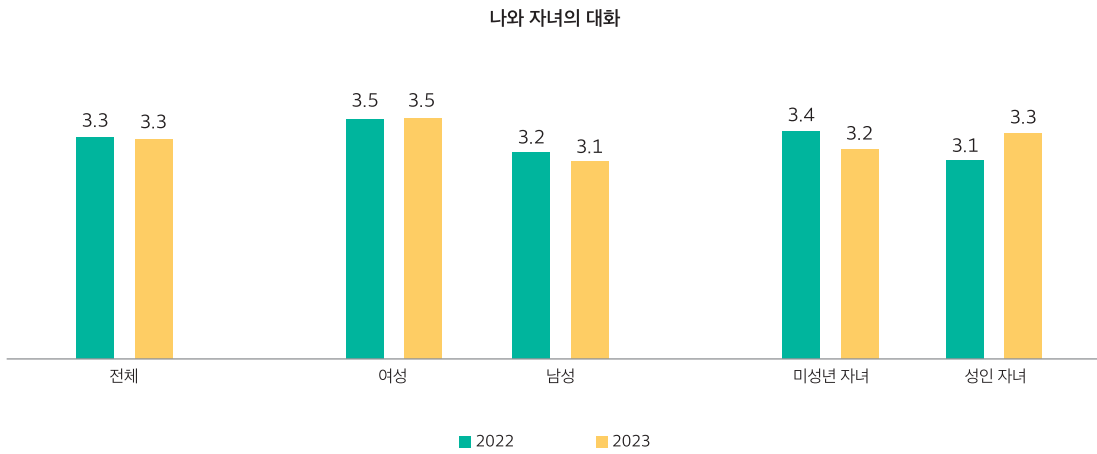


주: '내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만 0-18세 자녀가 있는 응답자 325명,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배우자가 있고 만 0-18세 자녀가 있는 응답자 325명이 보고한 자료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만 0-18세 자녀가 있는 서울시 엄마, 아빠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충분성(범위: 1-5점)이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합니다.

부모-자녀 대화 충분성: 만 7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미성년여부별(2023년)

< 단위: 점 >



주: 1) '나와 자녀의 대화'는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 2022년 304명, 2023년 634명의 자료임

2) '배우자와 자녀의 대화'는 배우자가 있고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 2022년 291명, 2023년 577명의 자료임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시 엄마, 아빠는 **엄마와 자녀의 대화**가 **아빠와 자녀의 대화**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합니다(범위: 1-5점).

2023 SEOUL
FAMILY
POLICY

서울시 아빠 육아 지원

아빠 육아달인 프로젝트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위한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23년 12개소 가족센터가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제작 및 배포한다.



자료: 1) 서울시가족센터. 2023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개발 연간사업 계획보고 (내부자료)

2) 패밀리서울.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서울 나들이] <https://familyseoul.or.kr/node/21229>

아자 프로젝트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2023년 기준 12개소)에서는 5-12세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인 ‘아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아자 프로젝트는 남성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증진, 자녀 양육 부담 불균형 해소 및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 역량 강화, 양육 스트레스 해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 서울시가족센터. 2023 아버지-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아자프로젝트」 연간사업 계획보고(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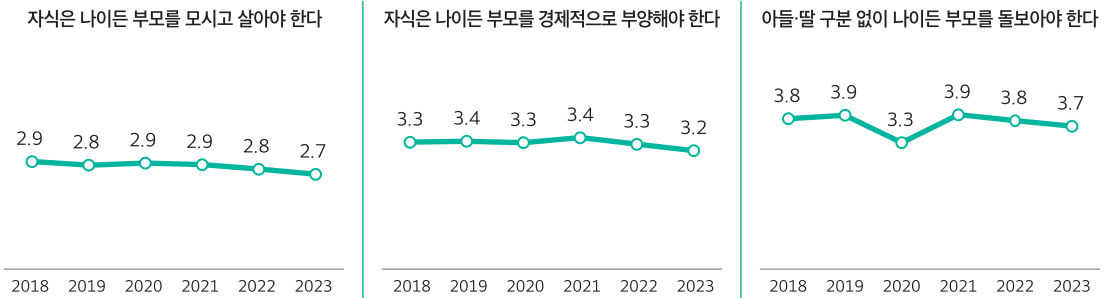
2) 패밀리서울. [송파구] 2023년 아자프로젝트 [오늘은 아자데이!]. <https://familyseoul.or.kr/node/20416>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전체(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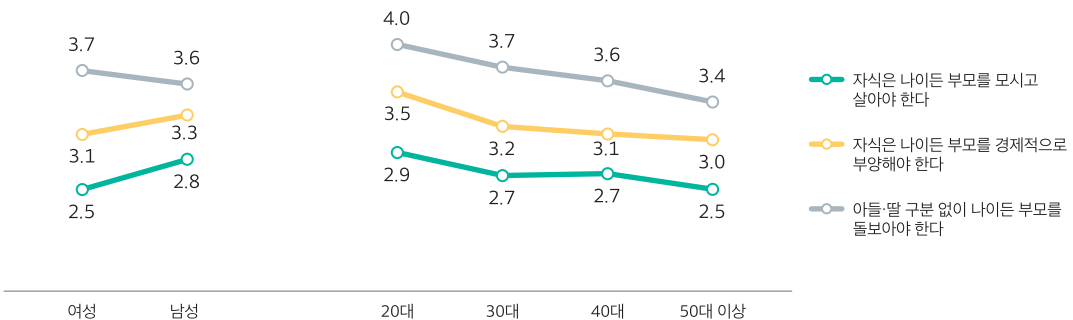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나이든 부모를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범위: 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노부모를 돌봄에 있어 아들·딸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점(범위: 1-5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성별 및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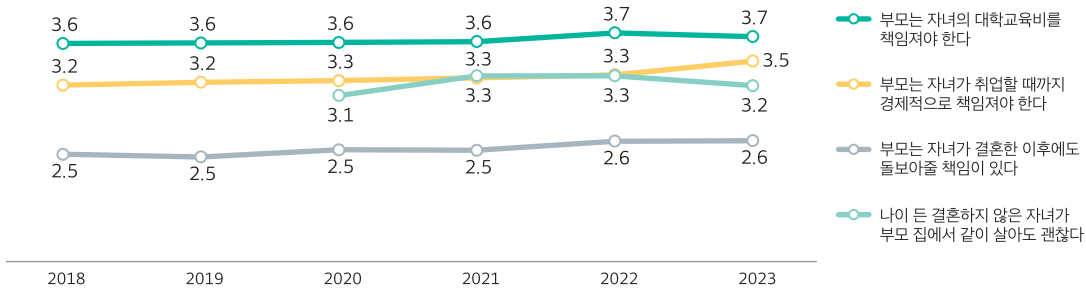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나이든 부모를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범위: 1-5점)고 생각합니다.



[서울가족서베이]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전체(2018-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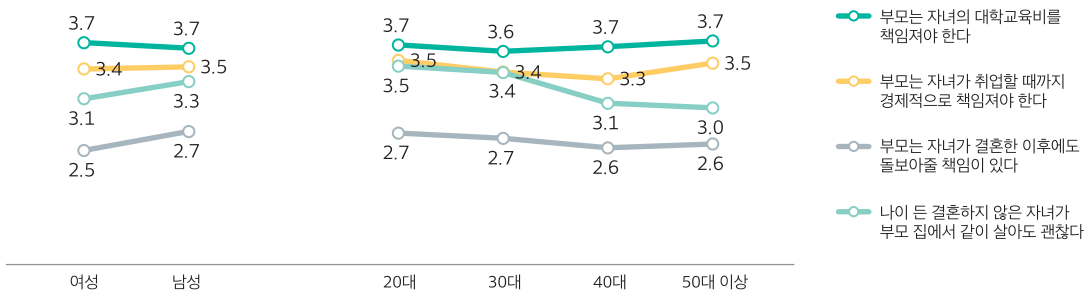


주: 2018-2019년에는 '나이 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 집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다' 문항이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자녀의 대학 교육비, 취업 전 경제적 지원, 비혼 성인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으나, 결혼 이후 돌봄 지원에 대한 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낮습니다(범위: 1-5점).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성별 및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서울시민은 20대가 40대보다 자녀 취업 전 경제적 지원과 비혼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더 동의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의 결혼 이후 돌봄 지원과 비혼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더 동의합니다(범위: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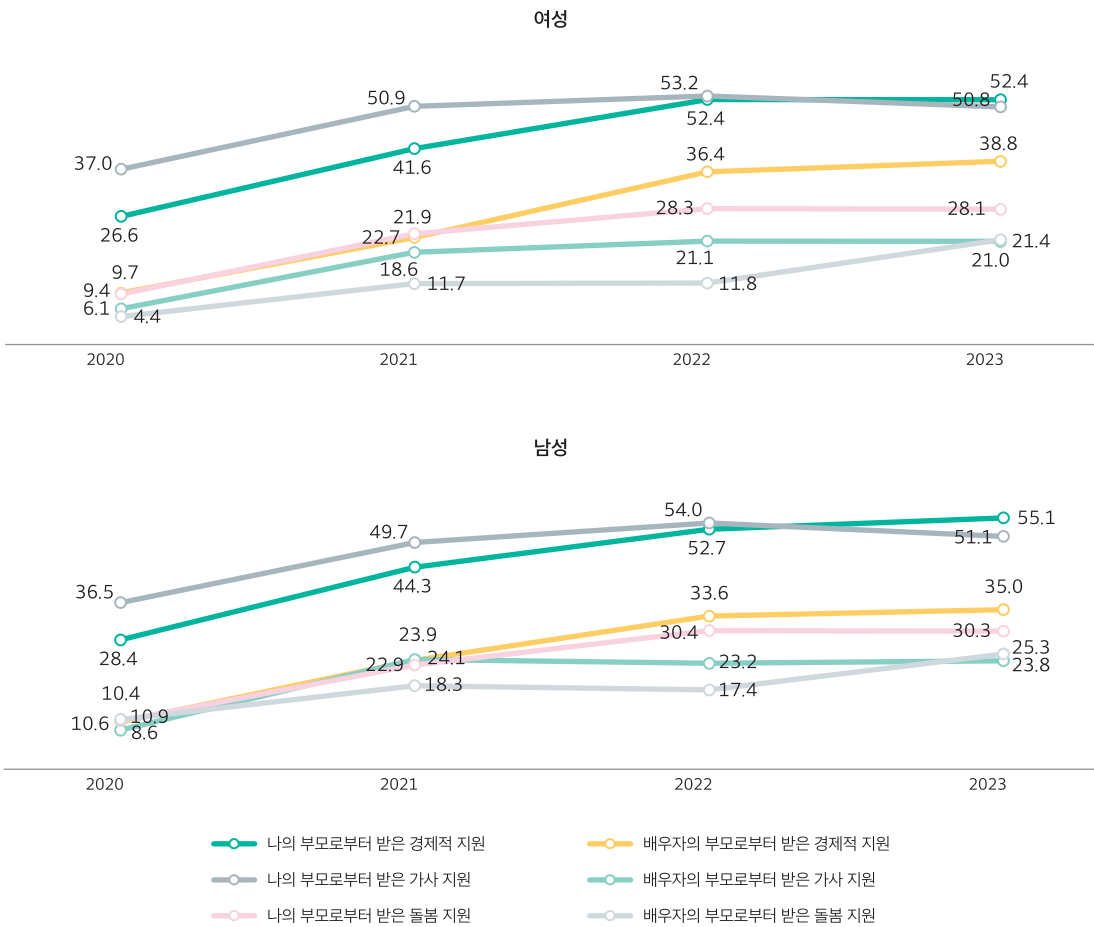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부모로부터의 지원

성인자녀인 응답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돌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 모두 2020~2023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특히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지원: 성별(2020-2023년)

< 단위: % >



주: 1) 응답 보기가 연도별로 상이함(2020년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2021~2023년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2021~2023년 자료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와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나의 부모로부터의 도움'은 본인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2020년 1,738명, 2021년 1,426명, 2022년 1,489명, 2023년 1,357명;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도움'은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2020년 770명, 2021년 611명, 2022년 667명, 2023년 597명의 자료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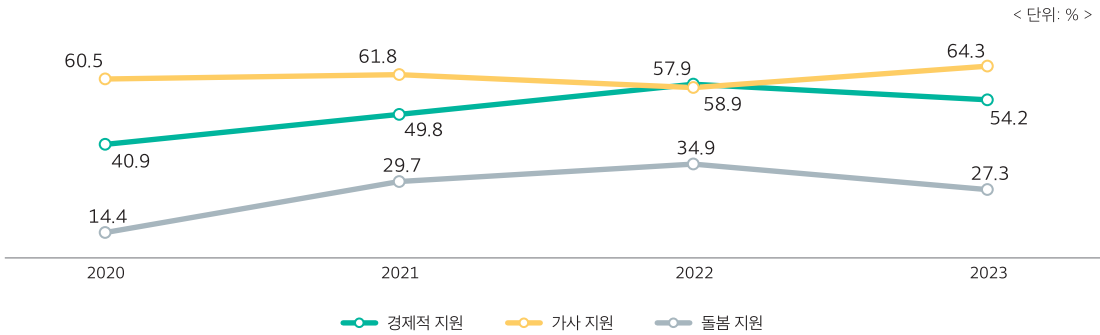
지난 12개월 동안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비정기적인 도움은 **나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가사 지원,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응답의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가족서비스]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서울시민이 지난 12개월 동안 성인자녀에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가사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비율은 64.3%,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비율은 54.2%, 돌봄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비율은 27.3%였다(2023년).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전체(2020-2023년)



주: 1) 응답 보기가 연도별로 상이함(2020년 '도움을 주었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 2021-2023년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 2021-2023년 자료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와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응답 대상이 연도별로 상이함(2020-2021년은 첫째 자녀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응답자, 2020년 306명, 2021년 293명; 2022-2023년은 첫째 자녀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응답자로 2022년 419명, 2023년 411명)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도움은 주로 가사 지원 및 경제적 지원입니다.

2023 SEOUL FAMILY POLICY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울시는 2022년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체 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14-34세 청년 약 900명을 발굴하였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연계, 심리 상담, 간병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영케어러 Care Together'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1) 서울시청 홈페이지, 청년통영정보통,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https://youth.seoul.go.kr/site/main/customSupp/mainView?bizid=A2023031400300200100000709>

2)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23. 5. 19). [스토리뉴스] #2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소개

<https://sygc.kr/publication/?q=YToyOntzOjE5OjRlZXI3b3JkX3R5cGUlOjM6MzoiYXNjZjZ2UjO2k6MTt9&bmode=view&idx=15194759&t=board>

3) 뉴스와이어(2023. 5. 2).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영케어러' 지원사업 2차 모집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66093>

4) 패밀리서울 [강북구] '마음약국' 중, 장애인 남성 자기돌봄 마음나눔 집단 모집. <https://familyseoul.or.kr/node/21192>

 해외사례

 영국 | 돌봄제공자 지원을 위한 Carers Support Centre

영국의 Carers Support Centre는 브리스톨(Bristol, South Gloucestershire)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선단체이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돌봄 관련 정보 제공
- 돌봄 관련 상담 서비스 및 사례관리
- 돌봄제공자의 휴식을 위한 돌봄수요자 간병 서비스
-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페스티벌, 나들이 프로그램
- 함께 걸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Walk and Talk 서비스
- 돌봄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 등

자료: Carers Support Centre. Our services. <https://www.carerssupportcentre.org.uk/our-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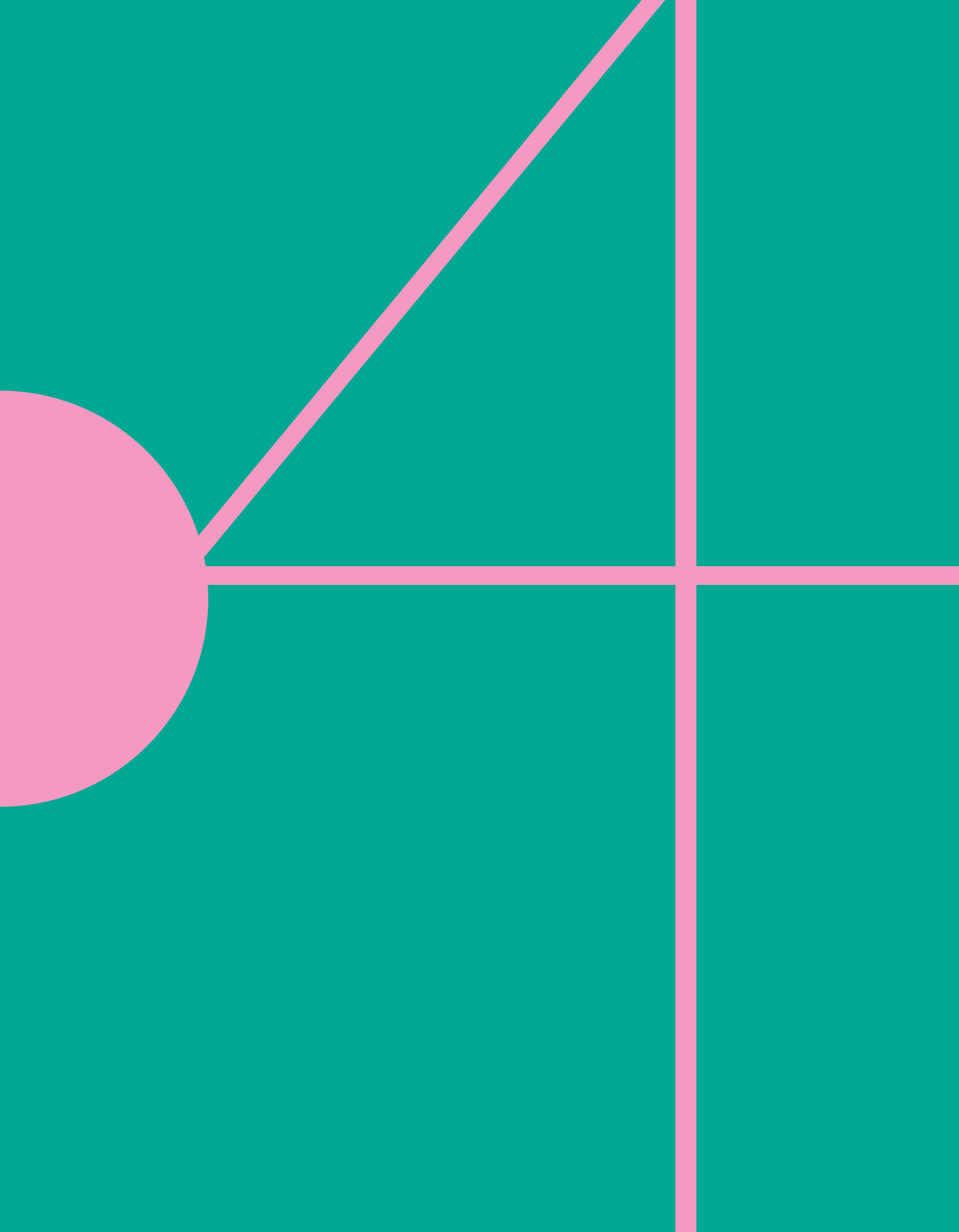
 영국,  호주,  스웨덴 |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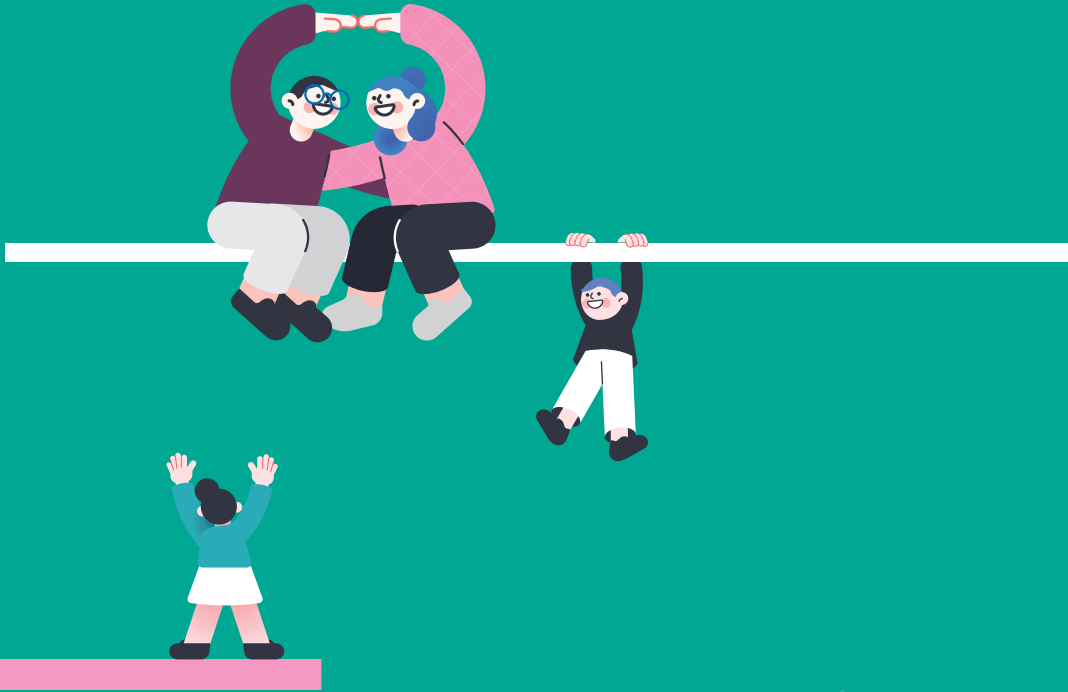
영국의 아동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은 가족돌봄청(소)년을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돌볼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가족돌봄청(소)년의 권리와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돌봄, 교육, 여가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는 모든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가족돌봄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돌봄제공자가 필요로 할 때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돌봄제공자에게 돌봄수당(carer’s allowance)을 지원하기도 한다.

호주는 가족돌봄청(소)년 스스로가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자신이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돌봄제공자법(Carers Act)을 근거로 호주 정부는 포털사이트 Carer Gateway를 통해 돌봄제공자를 위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청(소)년 또한 돌봄제공자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주 정부의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는 코칭 서비스(carer gateway self-guided coaching), 장학금(young carer bursary program) 등이 있다.

스웨덴은 가족돌봄청(소)년을 young carer가 아닌 ‘친족으로서의 아동(Barn som anhoriga)’라고 칭하며, 18세 미만의 가족돌봄제공자는 아동복지법, 18세 이상의 가족돌봄제공자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스웨덴의 가족돌봄청(소)년 정책은 돌봄제공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복지 차원의 정책에 가까우며, 가족돌봄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가족 전체를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영국, 호주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정책과 다르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청(소)년 가족은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보육시설, 부모휴가, 재가복지 및 방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통학을 지원하며, 부모로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김정현, 박선영(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251-280.





서울가족의 생활

1. 경제생활 및 주거생활
2. 일과 생활
3. 가족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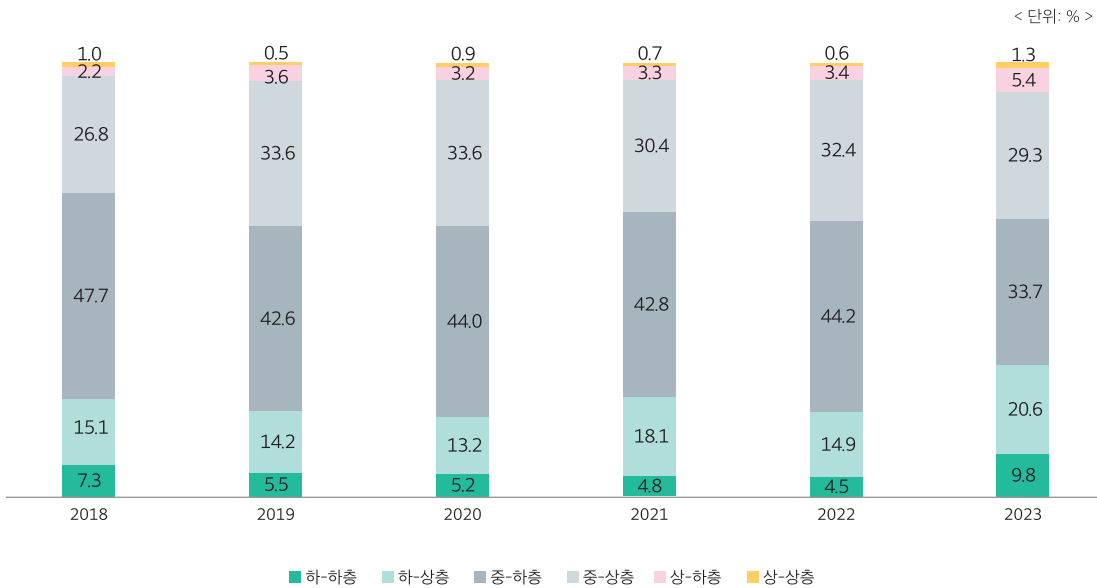
01.

경제생활 및 주거생활



[서울가족서베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전체(2018-2023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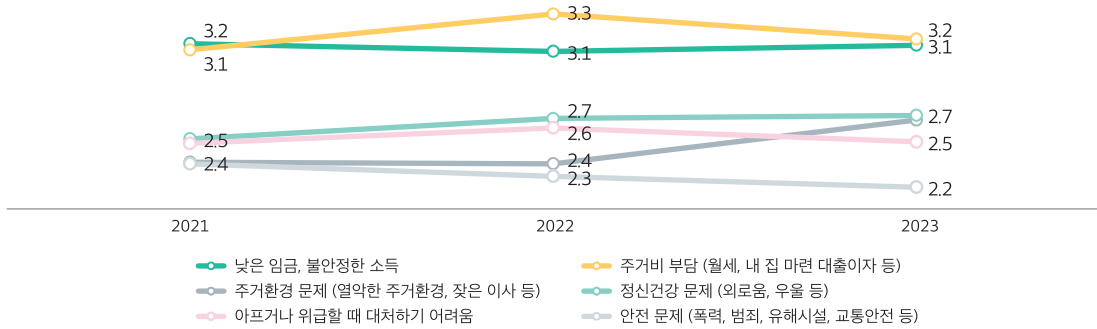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63.0%**가 2023년에 **중간 계층**(중-하층 33.7% + 중-상층 29.3%)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2018-2022년에 비해 낮은 비율입니다.
반면, 상층이라는 응답과 하층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높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전체(2021-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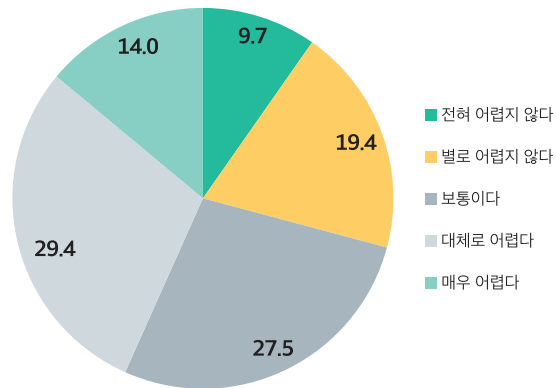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은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범위: 1-5점) 중 '주거비 부담'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주거비 부담: 전체(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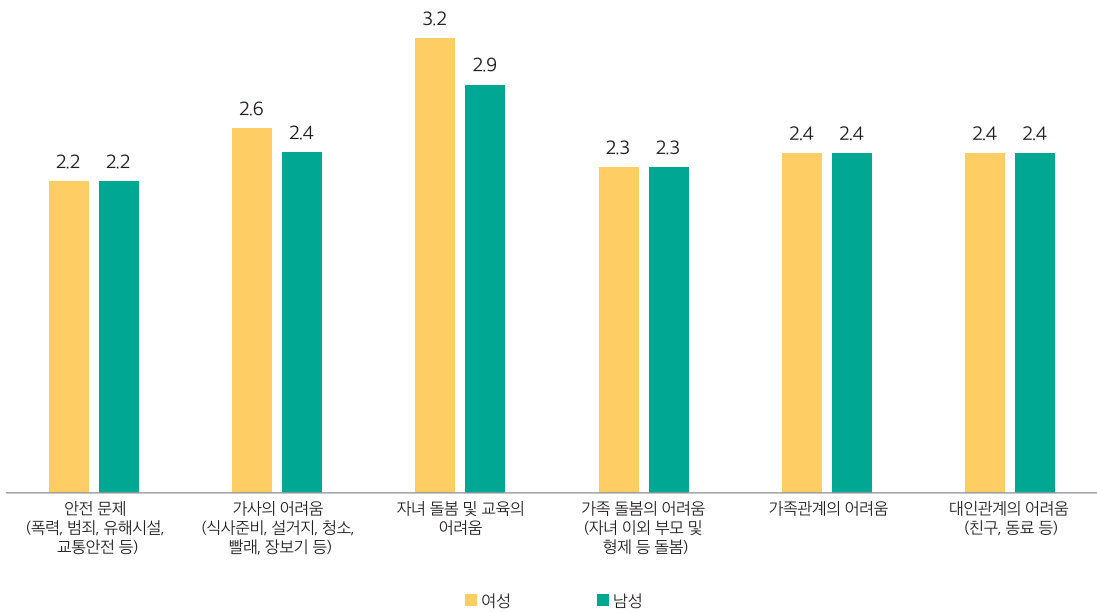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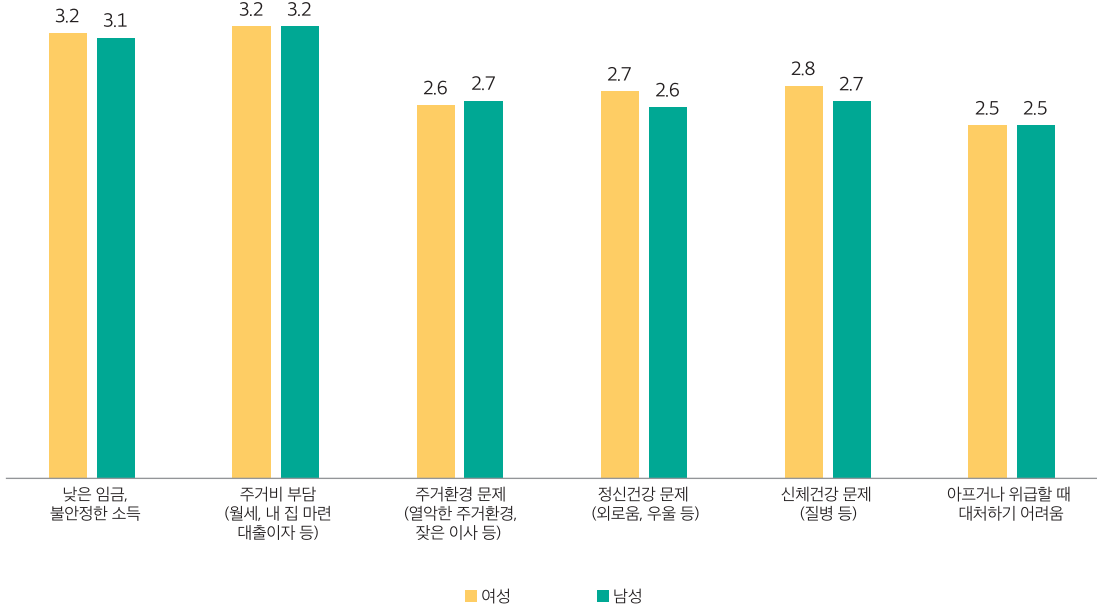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열 명 중 네 명 이상의 서울시민은 '주거비 부담(월세, 내 집 마련 대출이자 등)'으로 대체로 또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성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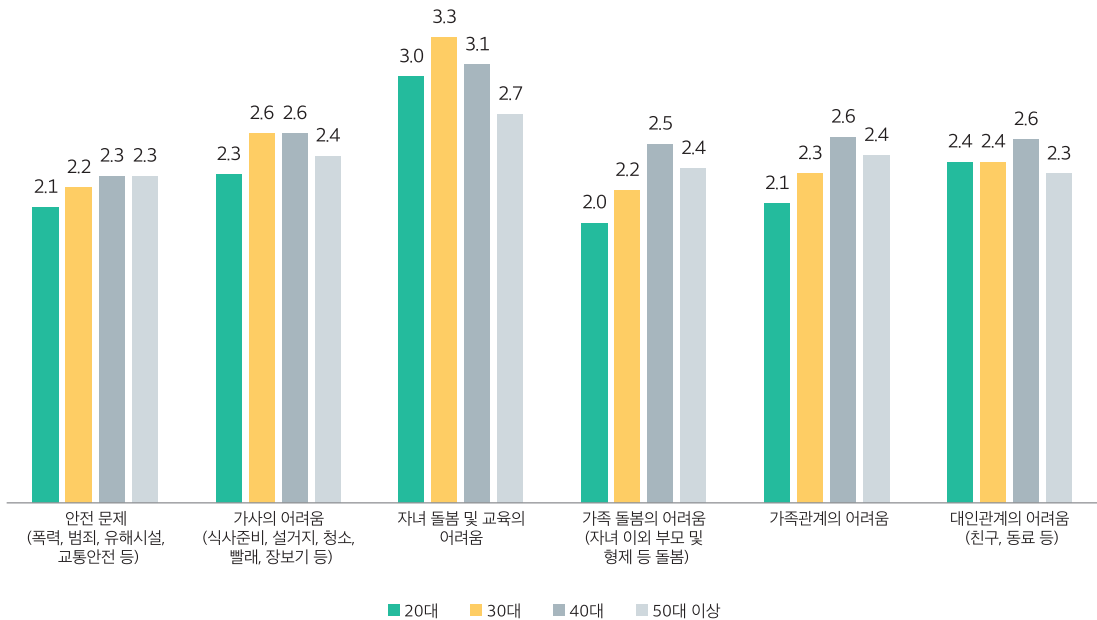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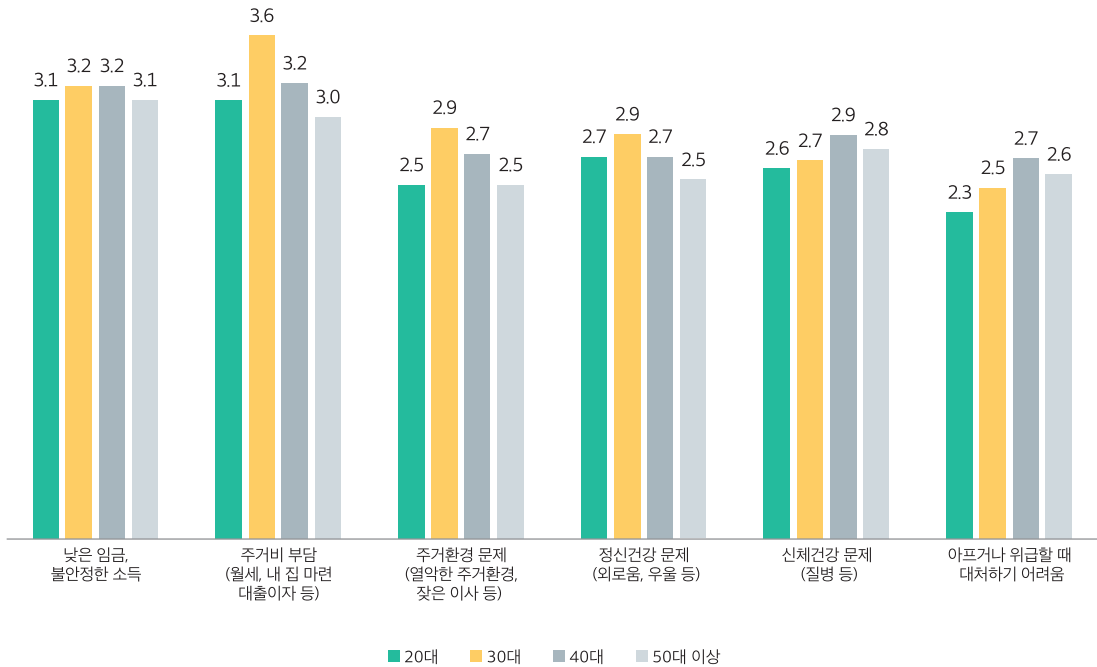
주: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은 만 0-18세 자녀가 있는 325명의 응답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여성의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평균 3.2점)과 '가사의 어려움'(평균 2.6점) 수준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주: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은 만 0-18세 자녀가 있는 325명의 응답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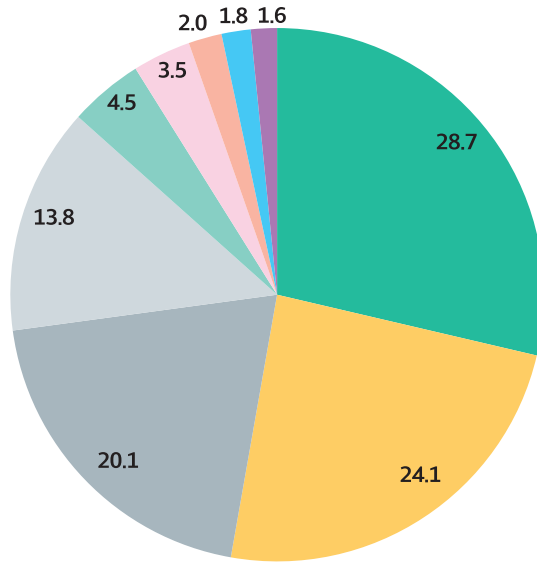
30대의 '주거비 부담'(평균 3.6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30대의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평균 3.3점)도 보통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가족서베이] 부담되는 지출항목

부담되는 지출항목: 전체(2023년)

< 단위: % >



- 식비
- 주거비(월세, 관리·수리비)
- 대출이자(주택 관련 대출 포함)
- 자녀 양육·교육비
- 병원·의료비
- 여가·자기계발비
- 기타
- 본인 교육·취업 준비 비용
- 교통·통신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서울시민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식비'(28.7%), '주거비'(24.1%), '대출이자'(20.1%)입니다. '주거비'와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의 44.2%를 차지하여 주거 관련 부담이 큼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서울시민의 주거비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고, 부담이 되는 주요 지출항목에서도 주거비와 대출이자를 선택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서울시민의 경제적 복지, 더 나아가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주거비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거비에는 주택 가격, 임대료뿐 아니라 대출 원리금 상환 비용, 광열비, 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도 포함되므로, 주거비 중 특별히 부담이 되는 세부 항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한편,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에서 30대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잦은 이사 및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였다. 연령대별, 혹은 가족생활주기별 주거비 부담 요인 및 주거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주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정병호, 정재호(2015).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3(19), 256-267.
박희석, 정현철(2019).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21.

해외사례

독일 |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독일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는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Wohneigentum für Familien)'라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베를린과 같은 독일의 대도시에서도 서울에서와 같이 주택 부족 문제와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족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독일국영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최대 24만 유로(약 3억 4,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소득이 최대 6만 유로(약 8,510만 원)를 초과하지 않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족을 지원한다.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대출 가능한 연 소득 한도가 1만 유로(약 1,420만 원)씩 증가한다.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의 대출 금리는 1.25%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며, 10년간 고정 금리이고, 대출 만기는 35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가족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 기준이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중 대출 금리보다는 낮지만 대부분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가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독일의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과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연 소득 한도를 올리고, 고정 금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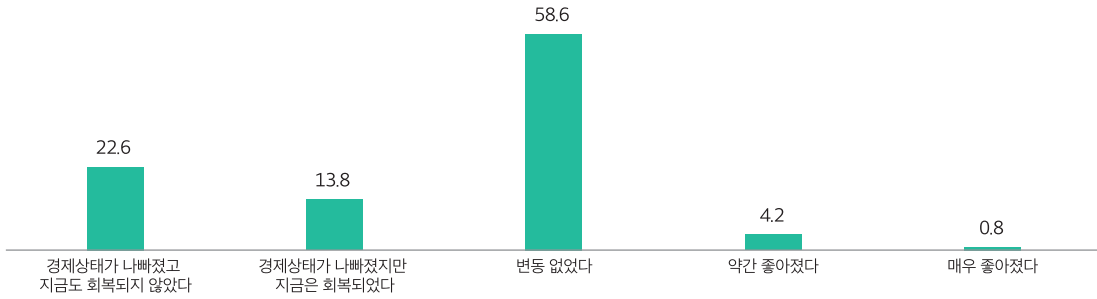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24000431>
<https://www.bmwsb.bund.de/SharedDocs/kurzmeldungen/Webs/BMWSB/DE/2023/05/WEF.html>



[서울가족서비스]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전체(2023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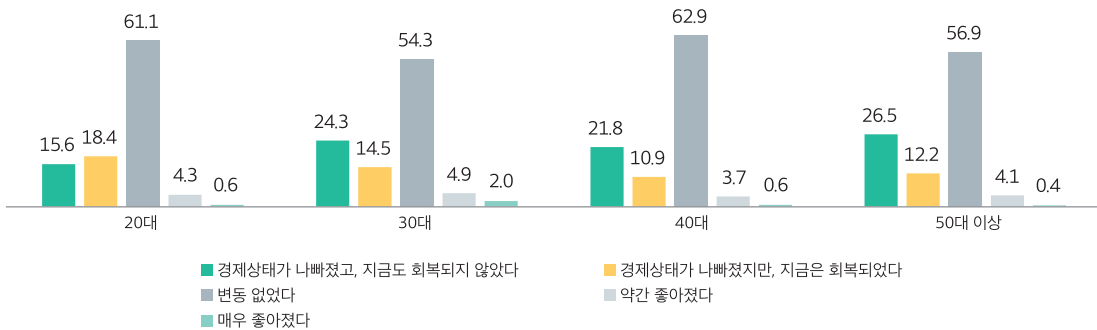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의 변화에 대해 '변동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경제상태가 나빠졌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4분의 1에 가까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연령대별(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

50대 이상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태가 나빠졌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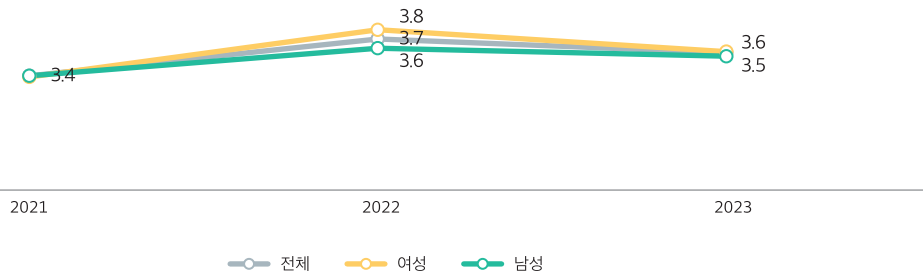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청년의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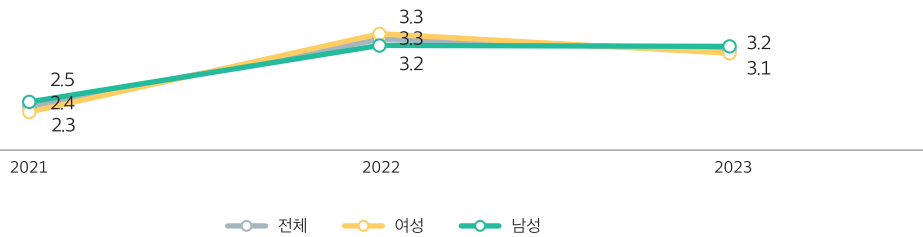
청년의 미래 전망: 전체 및 성별(2021-2023년)

< 단위: 점 >

(언젠가)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주: 1) 2021년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으로 질문하였음

2) 2021년 및 2022년은 자가소유 여부와 무관한 20-39세의 응답이며, 2023년은 20-39세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20-39세: 2021년 720명, 2022년 746명, 2023년 안정된 직장 693명, 집 소유 가능성 5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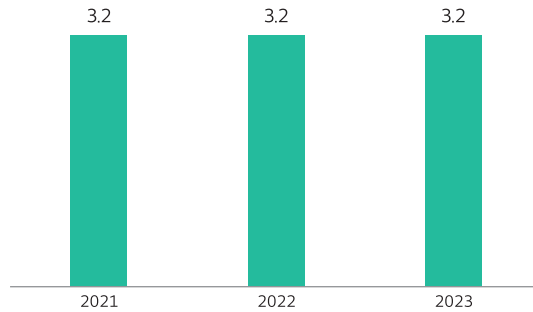
20-30대 청년 서울시민은 향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전망하고,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전망합니다(범위:1-5점).



[서울가족서베이] 주거환경 및 동네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전체(2021-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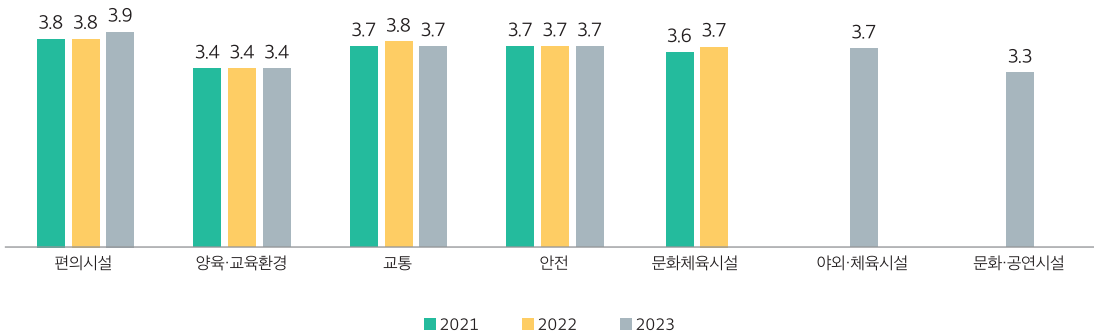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거주하는 집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범위: 1-5점)는 보통 수준입니다.

동네환경 영역별 만족도: 전체(2021-2023년)

< 단위: 점 >



주: 2021년과 2022년에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2023년에는 야외·체육시설과 문화·공연시설로 분리하여 조사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동네환경의 영역별 만족도(범위: 1-5점)는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높으며,
 '양육·교육환경', '문화·공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양육·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 생활인프라 접근 도입 필요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은 양육자들이 선택한 항목은 '자녀 교육 여건이 좋아서'(1장 서울가족의 탄생 참조)였다. 그러나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에서 동네환경의 여러 영역 중 '양육·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타 지역 대비 서울의 교육환경이 우수하지만 서울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교육환경 개선은 복합 생활인프라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및 교통인프라, 문화인프라, 상업인프라 등 정책의 큰 틀에서 양육·교육환경과의 접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서울주거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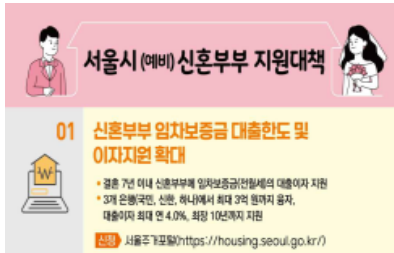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청년 월세지원, 청년 안심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과 노인이 주거를 공유하는 노장청 셰어 하우스(한지붕 세대공감) 등의 주거정책과 임대,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임대차 분쟁, 집수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서울시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민에게 주요한 어려움은 주거비 문제이다. 특히,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의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 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는 기존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 지원은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출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ews/11690>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챗봇 서비스로 전세사기 상담 지원

서울시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무료로 전세사기 및 강통전세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를 2023년 5월에 시작했다.

출처: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296>

02.

일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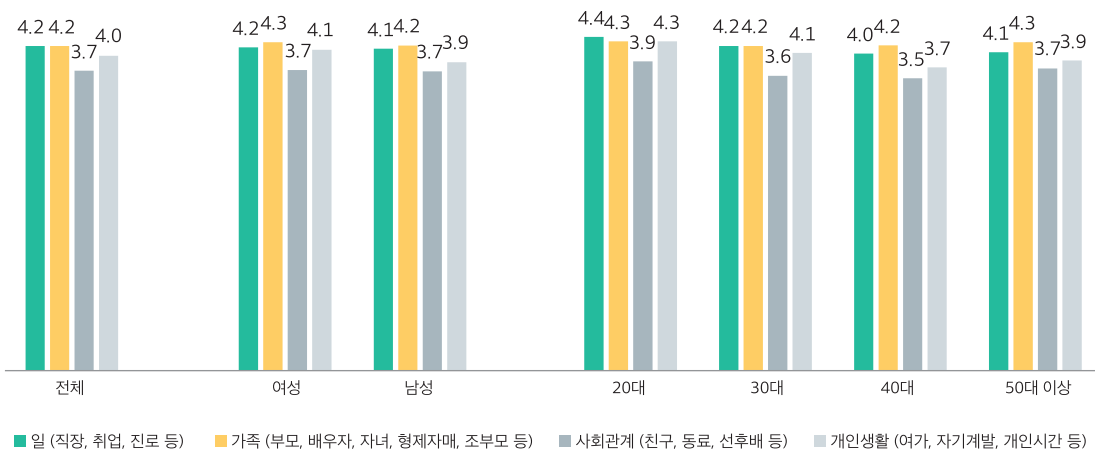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삶의 영역별 중요도

유급노동 영역인 '일'과 나머지 영역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는 '생활'에 대해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일 이외의 생활을 가족, 사회관계, 개인생활로 나누어 살펴본 영역별 중요도(범위: 1-5점)의 평균은 '가족'(4.2점), '일'(4.2점), '개인생활'(4.0점), '사회관계'(3.7점)의 순이었다. '일'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중요도: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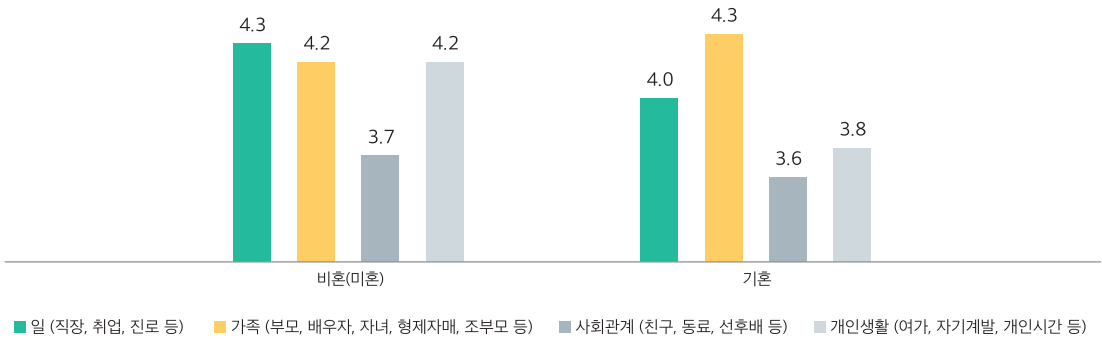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20대는 일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영역별 중요도: 결혼 여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비혼(미혼)이 기혼에 비해 일과 개인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가족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서울시가족센터 포털사이트 패밀리 서울

서울시는 서울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패밀리 서울 사이트(<https://familyseoul.or.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25개 서울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유용한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출처: <https://familyseou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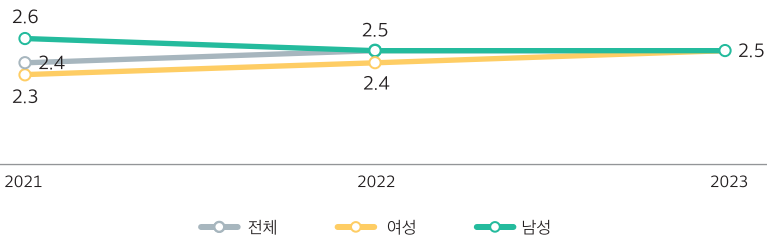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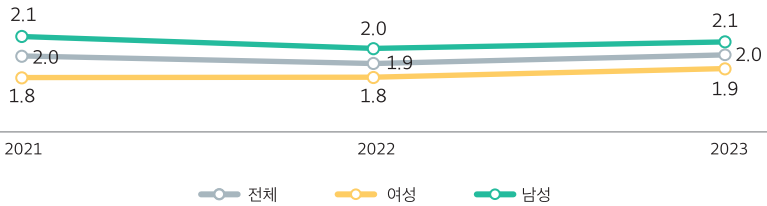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유연성: 전체 근로자 및 성별(2021-2023년)

< 단위: 점 >

근로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근로장소를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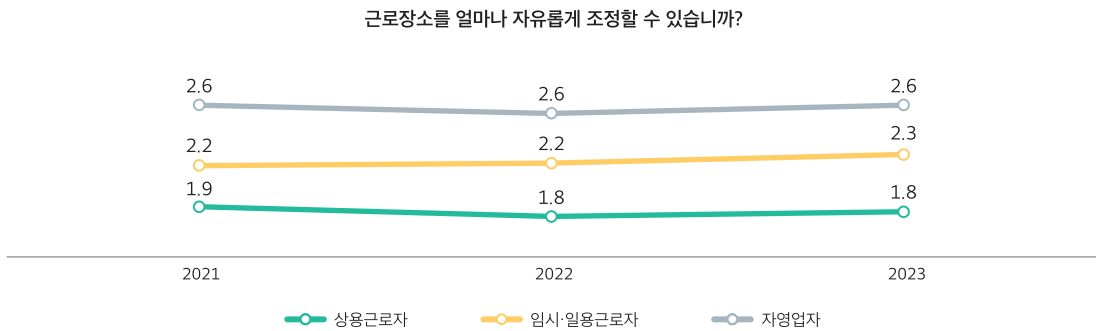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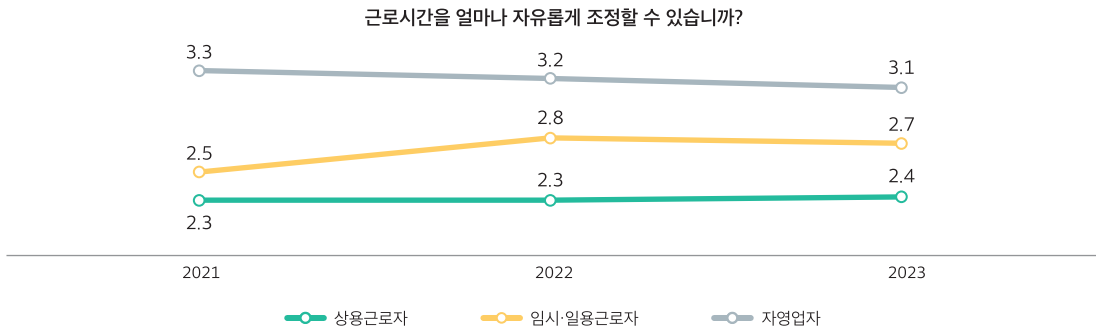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음(1 = 전혀 조정할 수 없다, 2 =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 3 =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4 = 항상 조정할 수 있다)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 거주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성은 보통이며,
근로장소는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유연성: 고용지위별(2021~2023년)

< 단위: 점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음(1 = 전혀 조정할 수 없다, 2 =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 3 =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4 = 항상 조정할 수 있다)

자료: 서울가족서베이(2021년 상용근로자 939명, 임시·일용근로자 178명, 자영업자 100명; 2022년 상용근로자 1,033명, 임시·일용근로자 161명, 자영업자 118명; 2023년 상용근로자 905명, 임시·일용근로자 231명, 자영업자 1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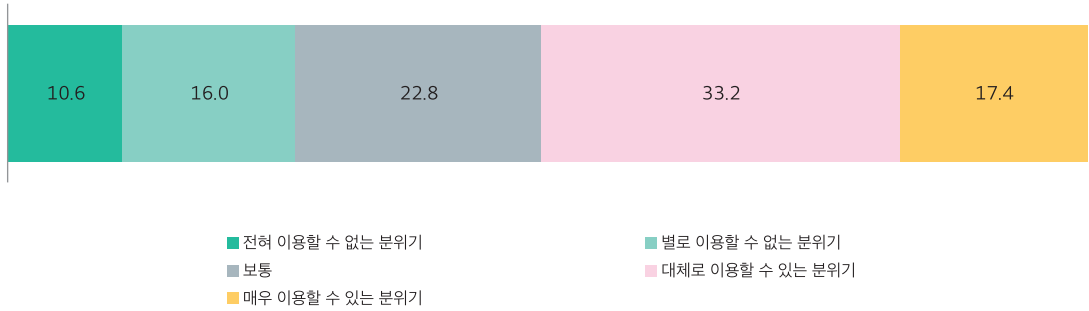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족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이용가능성

육아휴직제도 이용가능성: 전체 상용근로자(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상용근로자 9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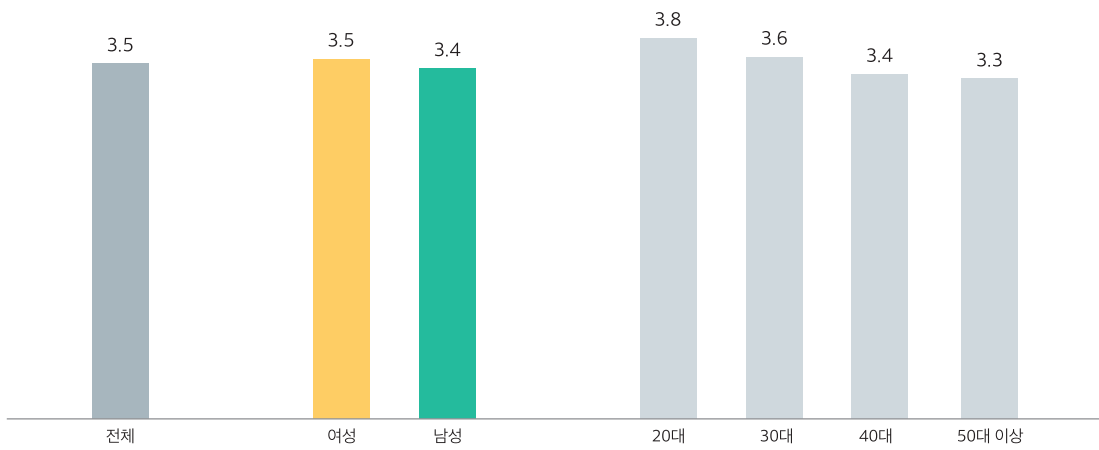
서울시 거주 상용근로자 중 절반 정도는 현재의 직장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대체로' 또는 '매우'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 근로자, 성별 및 연령대(2023년)

< 단위: 점 >



주: 1) '업무보다 개인 혹은 가족 일을 우선시하는 직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개인 혹은 가족 문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근무시간에 가족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임을 의미하도록 역산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178명)

현재 직장의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인지를 세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3.5점(범위: 1-5점)으로 서울시 근로자는 현재 직장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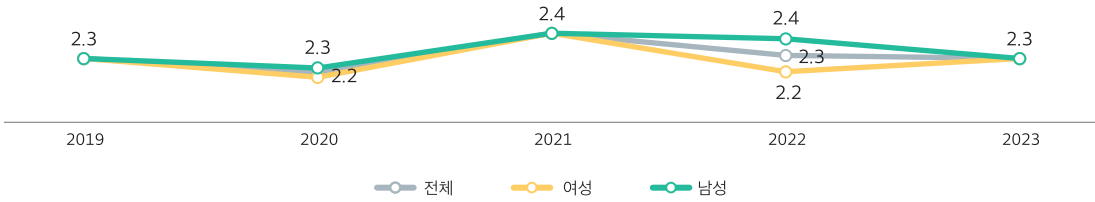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일-생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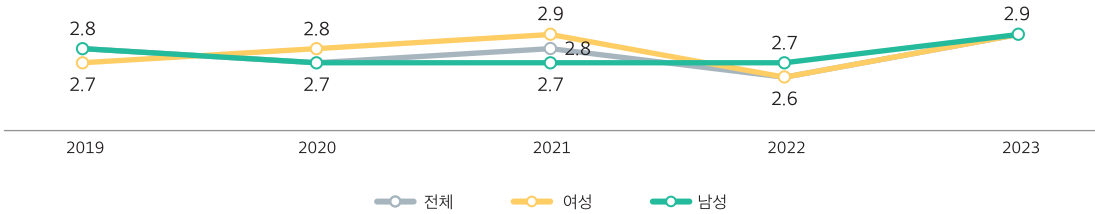
일-생활 갈등: 전체 근로자 및 성별(2019-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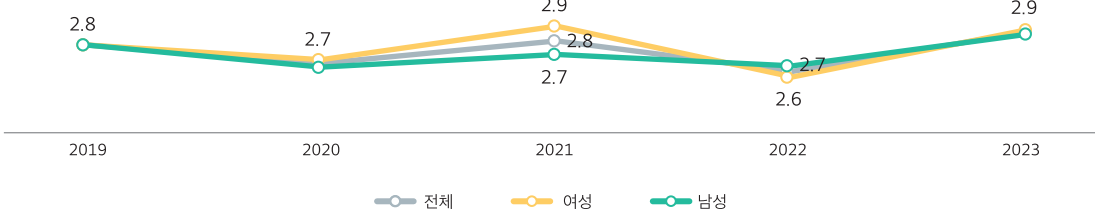
일-가족 갈등



일-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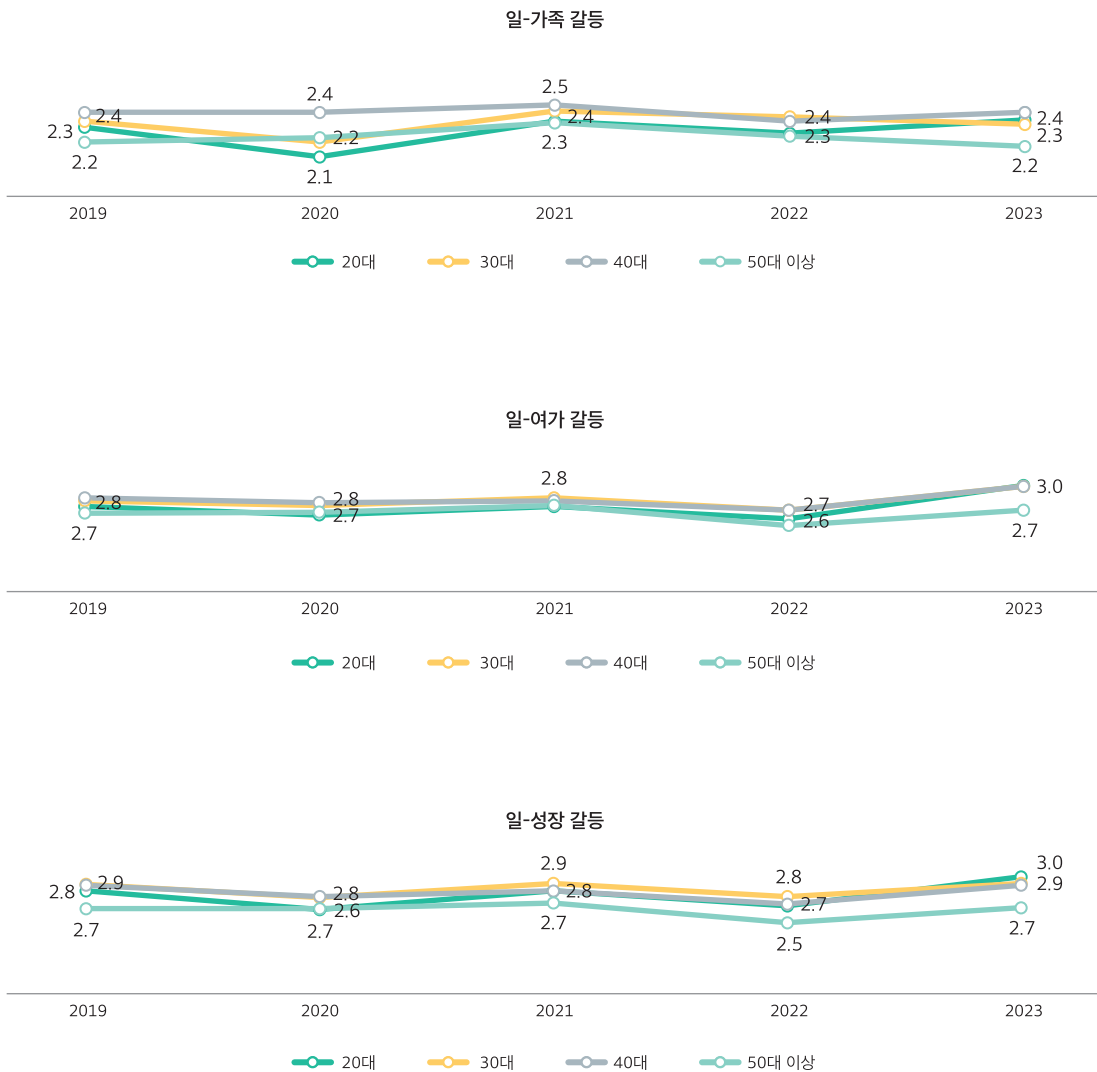


주: 2019-2023년에 사용된 동일한 문항(일-가족 갈등 5문항, 일-여가 갈등 5문항, 일-성장 갈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응답자 2019년 1,138명, 2020년 1,240명, 2021년 1,227명, 2022년 1,328명, 2023년 1,176명)

서울시 거주 근로자의 일-생활 갈등 수준은 높지 않으며, 일-가족 갈등에 비해 일-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합니다(범위: 1-5점).

일-생활 갈등: 연령대별(2019-2023년)

< 단위: 점 >



주: 2019-2023년에 사용된 동일한 문항(일-가족 갈등 5문항, 일-여가 갈등 5문항, 일-성장 갈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응답자 2019년 1,138명, 2020년 1,240명, 2021년 1,227명, 2022년 1,328명, 2023년 1,176명)

일-가족 갈등과 일-여가 갈등은 40대가, 일-성장 갈등은 20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합니다(2023년 기준).

2023년에는 일-가족 갈등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갈등이 전이되는 방향을 나누어서, 일로 인한 가족 생활에서의 갈등(이하 일→가족 갈등, 5문항)과 가족생활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이하 가족→일 갈등, 4문항)을 살펴보았다.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 전체 근로자 및 성별(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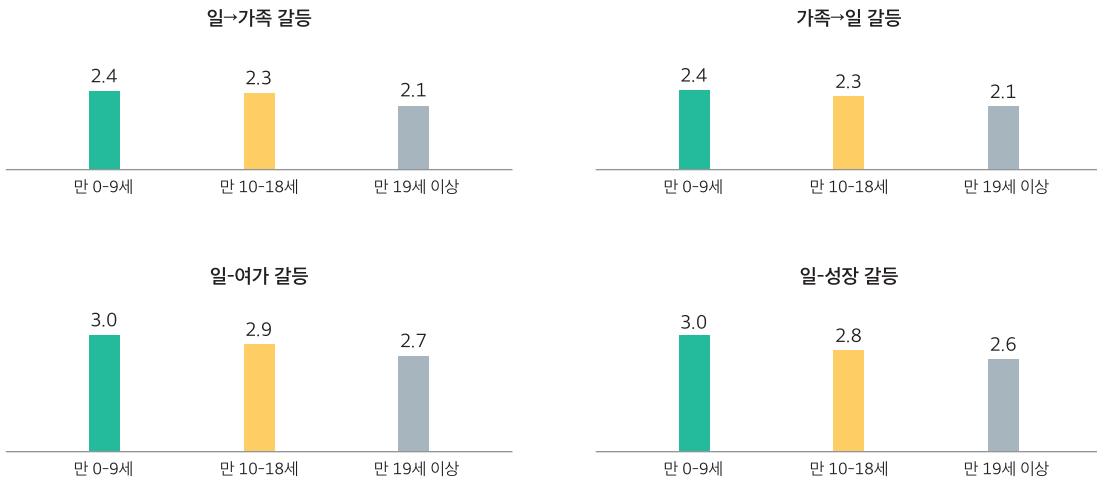


주: 2023년 신규 문항을 포함하여 일→가족 갈등 5문항, 가족→일 갈등 4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응답자 2023년 1,176명)

서울시민은 일로 인한 가족생활에서의 갈등(일→가족 갈등)을 가족생활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가족→일 갈등)보다 **조금 더 경험합니다**(범위: 1-5점).

일-생활 갈등: 자녀 연령별(2023년)

< 단위: 점 >



주: 2023년 신규 문항을 포함하여 일→가족 갈등 5문항, 가족→일 갈등 4문항, 일-여가 갈등 5문항, 일-성장 갈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응답자 중 첫째 자녀가 만 0-9세인 87명, 만 10-18세인 116명, 만 19세 이상인 298명)

유자녀 서울시민 중, 첫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가** 첫째 자녀가 성인인 경우보다 **일-가족 갈등, 일-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합니다.**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상용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일-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의 관련 예측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누가 일→가족 갈등을 더 겪을까?



- ✓ 연령이 낮을수록
- ✓ 근로시간이 길수록
- ✓ 근로장소 조정이 가능할수록
- ✓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겪을수록
- ✓ 직장의 조직문화가 덜 가족친화적일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일→가족
갈등이 높았음

● 누가 가족→일 갈등을 더 겪을까?



- ✓ 연령이 낮을수록
- ✓ 일을 덜 중요하게 여길수록
- ✓ 근로장소 조정이 가능할수록
- ✓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겪을수록
- ✓ 직장의 조직문화가 덜 가족친화적일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족→일
갈등이 높았음

● 누가 일-여가 갈등을 더 겪을까?



- ✓ 연령이 낮을수록
- ✓ 근로시간이 길수록
- ✓ 일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 ✓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겪을수록
- ✓ 직장의 조직문화가 덜 가족친화적일수록



일-여가
갈등이 높았음

● 누가 일-성장 갈등을 더 겪을까?



- ✓ 연령이 낮을수록
- ✓ 근로시간이 길수록
- ✓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수록
- ✓ 직장의 조직문화가 덜 가족친화적일수록



일-성장
갈등이 높았음

주: 2023년 신규 문항을 포함하여 일→가족 갈등 5문항, 가족→일 갈등 4문항, 일-여가 갈등 5문항, 일-성장 갈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이 우선되어야

2023년 서울가족서비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장의 조직문화가 덜 가족친화적일수록 일→가족 갈등, 가족→일 갈등, 일-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이 모두 높았다. 즉,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일-생활의 모든 하위 영역인 일→가족, 가족→일, 일-여가, 일-성장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3년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제시된 선택근로제 확대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유연한 근로방식을 확산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직장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 SEOUL FAMILY POLICY

서울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울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는 서울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돕기 위한 싱크탱크이자 허브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연구, 캠페인, 교육,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별과 상관없이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을 목표로 가족, 직장, 사회가 함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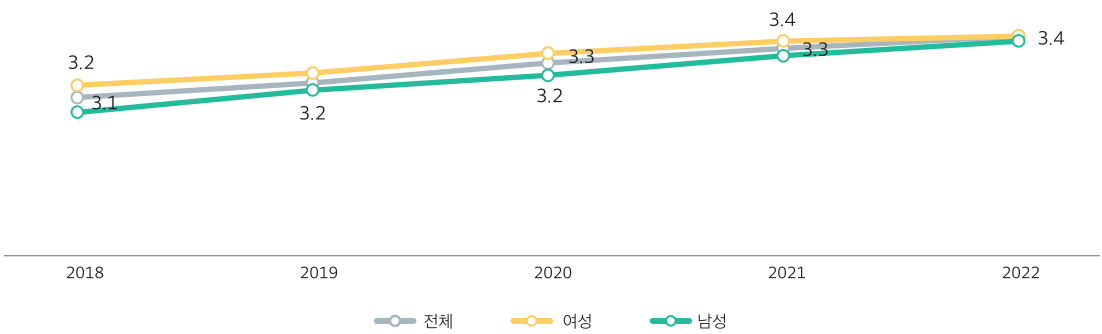
출처: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친화 도시, 서울**

가족친화 도시: 전체 및 성별(2018-2022년)

< 단위: 점 >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이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 도시**(범위: 1-5점)라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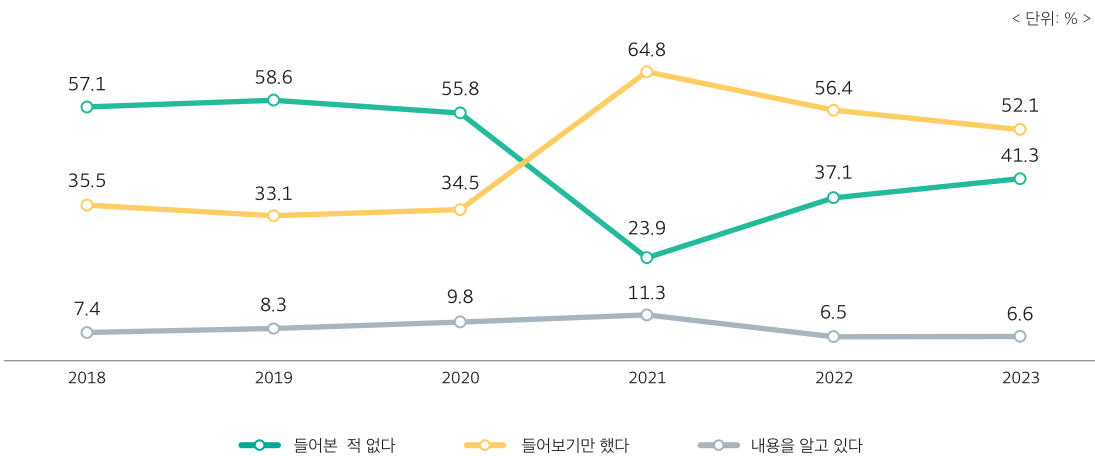
가족지원서비스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센터 인지도

가족센터의 명칭 변화에 따라 2018-2020년 서베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년 서베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2023년 서베이는 가족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명칭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지도는 유사하였으나, 2021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졌고, ‘들어보기만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에 추가되면서 인지도가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서베이에 반영한 2022년 이후의 인지도는 다소 낮아졌다.

가족센터 인지도: 전체(201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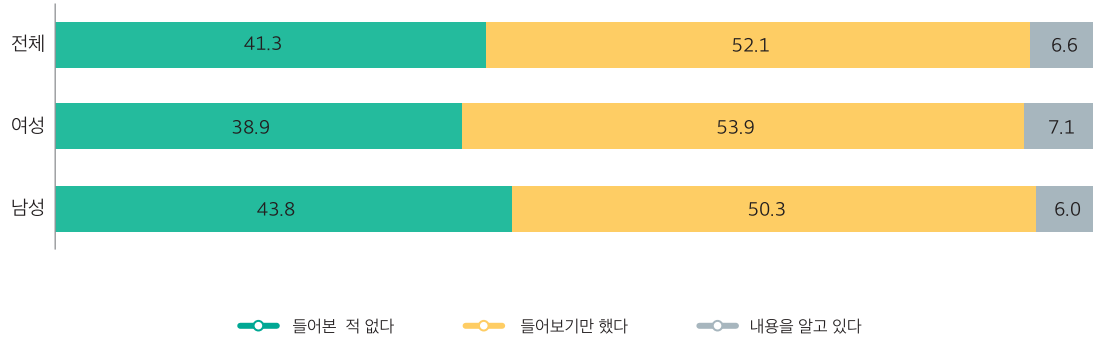
주: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2018-2020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년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2023년은 가족센터로 질문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가족센터 인지도는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족센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는 ‘들어보기만 했다’(52.1%), ‘들어본 적 없다’(41.3%), ‘내용을 알고 있다’(6.6%)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가족센터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들어본 적 없다’는 남성의 응답률(43.8%)이 여성(38.9%)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여성의 응답률(7.1%)이 남성(6.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센터 인지도: 전체 및 성별(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

서울시민의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족센터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센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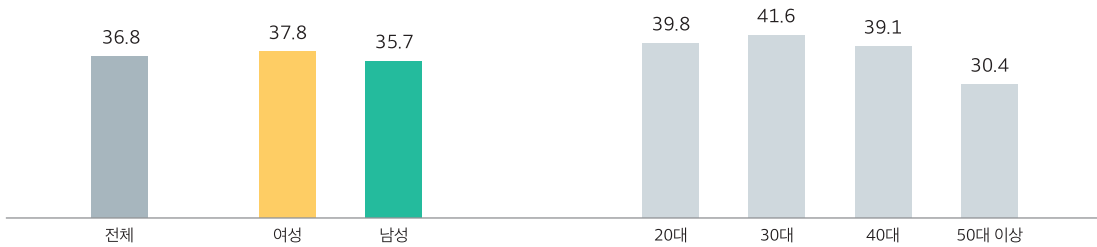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센터 이용의향

향후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용의향이 '없다'(63.2%)는 응답이 이용의향이 '있다'(36.8%)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 가족센터 이용의향을 살펴본 결과 이용의향이 '없다'는 50대 이상의 응답률(69.6%)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의향이 '있다'는 30대의 응답률(41.6%)이 가장 높았다.

가족센터 이용의향: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단위: % >



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모든 연령대 중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서울가족 **클로즈업**

#가족센터 이용경험 유무 및 이용의향

누가 가족센터를 이용했을까?

2021-2023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의 가족센터 이용경험 유무('있음' 또는 '없음'으로 조사)와 관련된 요인을 이항로짓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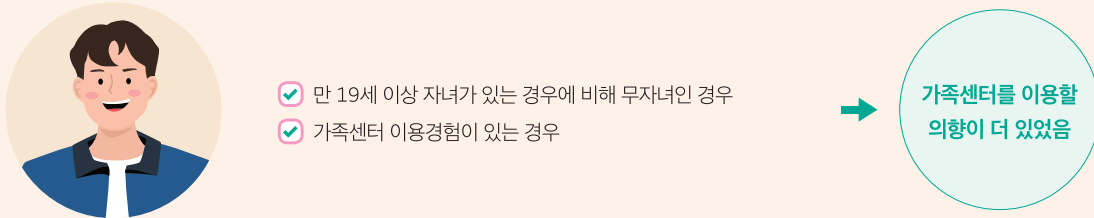
- 무자녀에 비해 만 0-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교육연수가 길수록
-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2021년에 비해 2023년 응답자인 경우



가족센터 이용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음

누가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을까?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의 가족센터 이용의향(‘있음’ 또는 ‘없음’으로 조사)과 관련된 요인을 이항로지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가족센터 인지도 제고 노력 필요

서울가족서베이 2018-2023년 자료로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2021년에 인지도가 올라갔고, 2022년에는 다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다문화가족지원 업무가 센터 명칭에 포함되어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센터의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센터의 명칭만으로 인지도가 달라지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처럼 업무의 내용이 일반 시민에게도 명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의 브랜드가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효과적인 브랜드를 통해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경제활동 인구 및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등에 대한 가족센터 접근성 제고 필요

서울가족서베이 2021-2023년 자료로 가족센터 이용경험 유무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 연령이 만 0-9세이고, 교육연수가 길며,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가족센터 이용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현재 가족센터 프로그램 홍보와 전달이 주로 센터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이루어져서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숙련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정보 부족 및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집단이 가족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또한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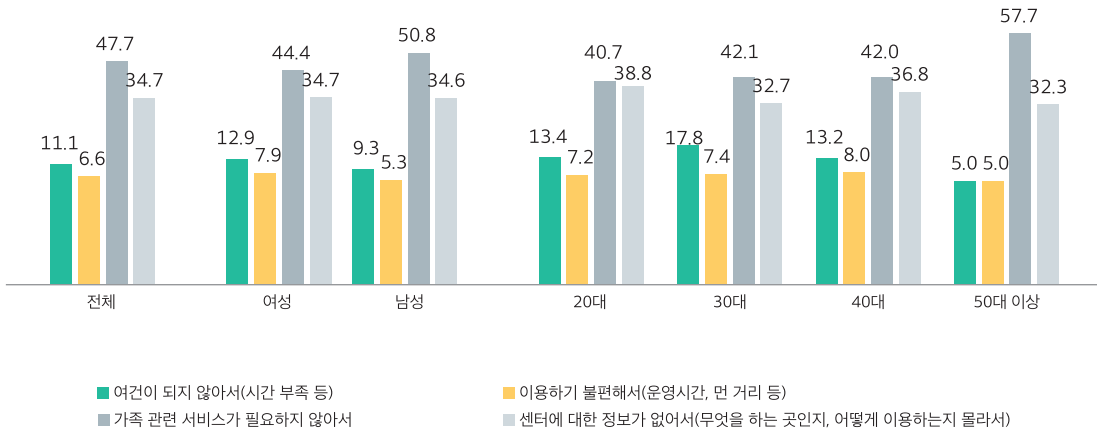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가족센터 이용의향 없는 이유

‘가족센터 이용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족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47.7%), ‘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4.7%), ‘여건이 되지 않아서’(11.1%), ‘이용하기 불편해서’(6.6%)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8.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가족센터 이용 의향 없는 이유: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단위: %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가족센터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001명)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 없다는 응답률이 높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가족 정책·서비스 인사이트

예방적·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는 가족센터 브랜딩 필요

2023 서울가족세베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센터 인지도가 낮고 이용의향도 낮으며, 가족 관련 서비스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5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가족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남성과 50대 이상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50대 이상 중장년기 가족의 요구가 높은 돌봄지원 교육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연령대에서 '가족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가족센터 이용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족센터가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예방적이고 보편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가족 학교'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s://seocho.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449/receipt/view.do?seq=140391>
http://www.healthyfamily.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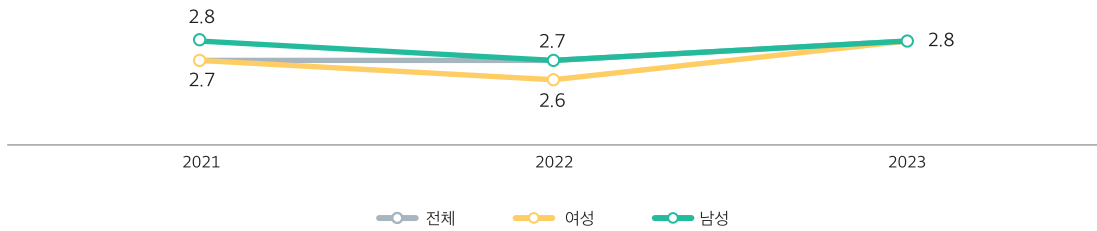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베이]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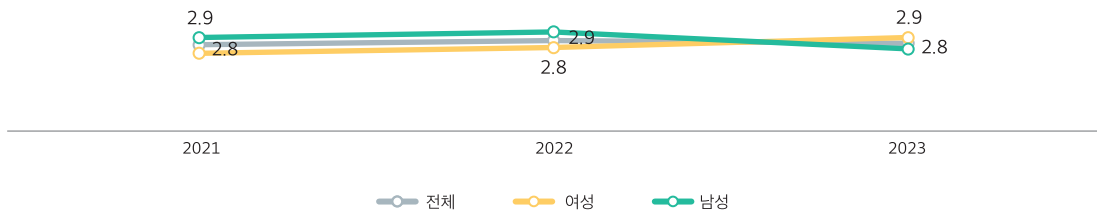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의향: 전체 및 성별(2021-2023년)

<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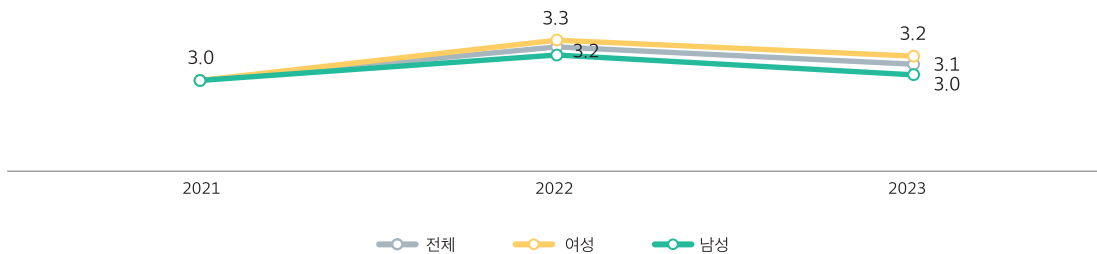
부부·커플관계 관련 교육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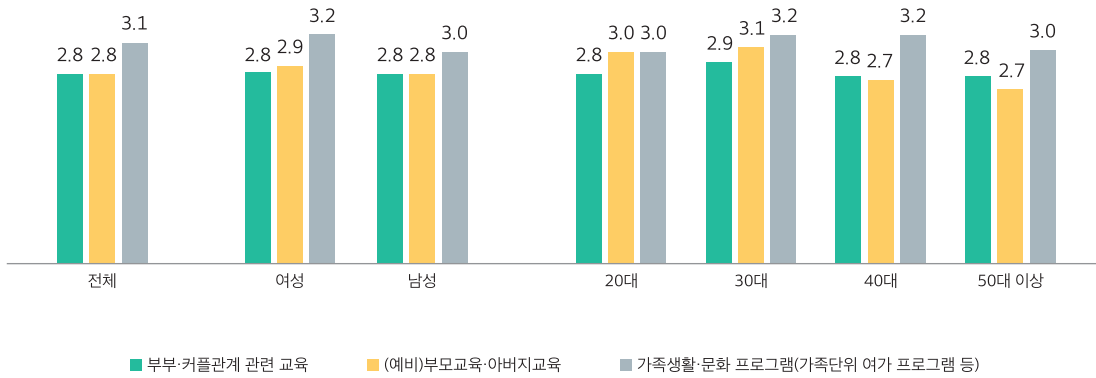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서울시민이 지역사회에서 '부부·커플관계 관련 교육',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범위: 1-5점)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고,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의향: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단위: 점 >



자료: 2023 서울가족서비스

여성이 남성보다, 30-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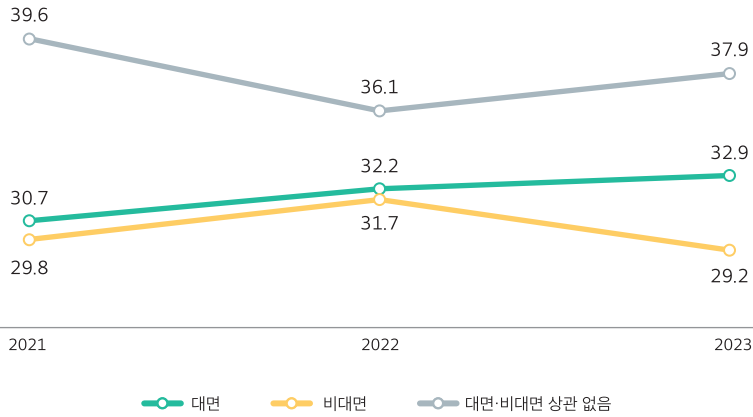


[서울가족서비스]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제공 형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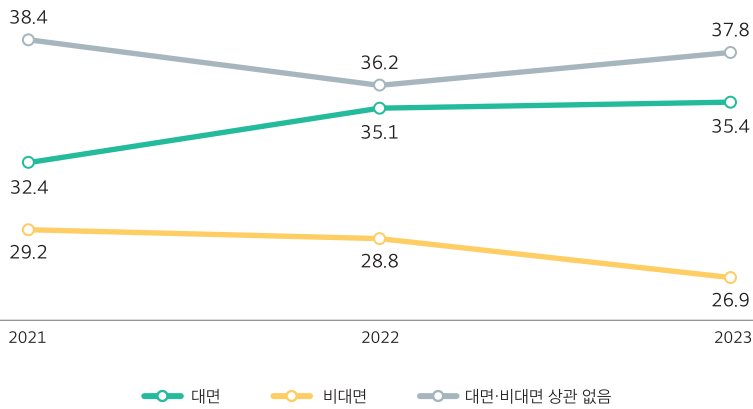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제공 형태 선호도: 전체(2021-2023년)

< 단위: % >

가족교육 제공 형태 선호도



가족상담 제공 형태 선호도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

가족서비스 제공 형태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모두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최근 3년간 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누가 부부·커플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

2023년 서울가족서비스 응답자 중 기혼자의 부부·커플교육 참여의향 관련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배우자와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부부·커플교육
참여의향이
더 있었음

누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

2023년 서울가족서비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부모교육 참여의향 관련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자녀 돌봄 및 교육으로 어려움을 더 겪을수록



부모교육
참여의향이
더 있었음

누가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

2023년 서울가족서비스 응답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참여의향 관련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 ☑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자녀 돌봄 및 교육으로 어려움을 더 겪을수록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참여의향이
더 있었음





서울가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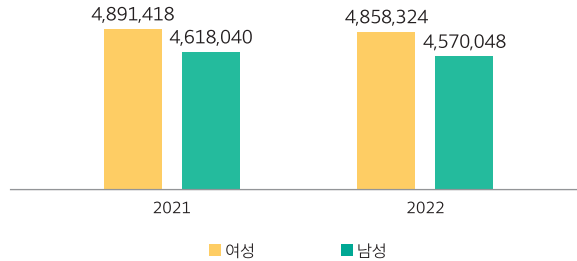
1. 인구 및 가구
2. 혼인 및 신혼부부
 3. 출생
 4. 맞벌이가구
 5. 한부모가구
6. 비혼모(부), 청소년모(부), 조손가구
 7. 다문화가구
 8. 수급가구
9. 가족돌봄청(소)년
10.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11. 비혈연가구
 12. 반려동물 보유가구

01.

인구 및 가구

서울시 성별 인구(2021-2022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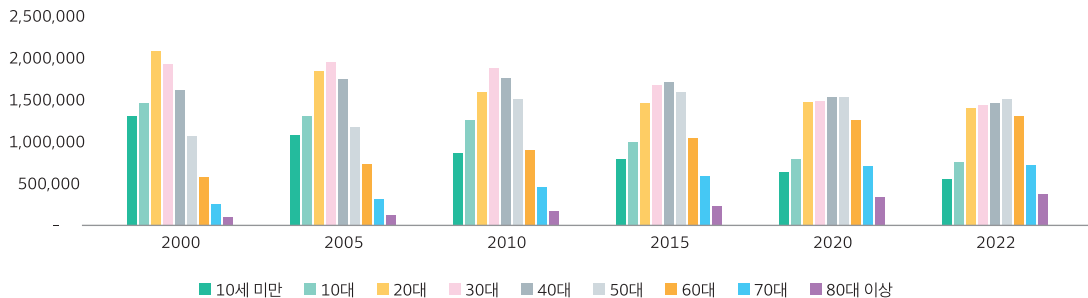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서울시에는 2022년에 총 9,428,372명이 살고 있으며, 2021년에 비해 약 8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총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남녀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94.1로, 전국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2000-2022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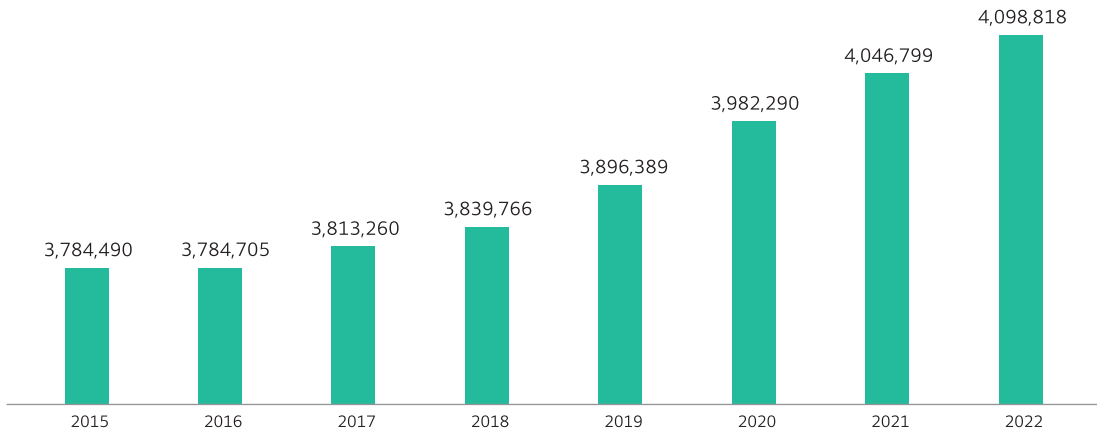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2022년 기준)는 50대가 1,476,71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40대 1,449,706명(15.4%), 30대 1,425,808명(15.1%), 20대 1,389,483명(14.7%), 60대 1,297,787명(13.8%), 10대 749,118명(7.9%), 70대 713,496명(7.6%), 10세 미만 545,317명(5.8%), 80세 이상 364,855명(3.9%)의 순입니다. 2003년까지는 20대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30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 총 가구 수(2015-2022년)

<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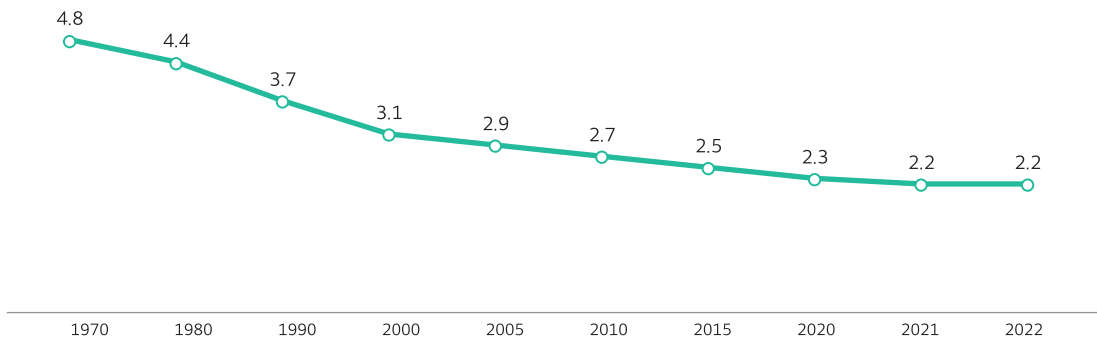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의 전체 가구 수는 4,098,818가구(2022년 기준)로 2021년과 비교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1970-2022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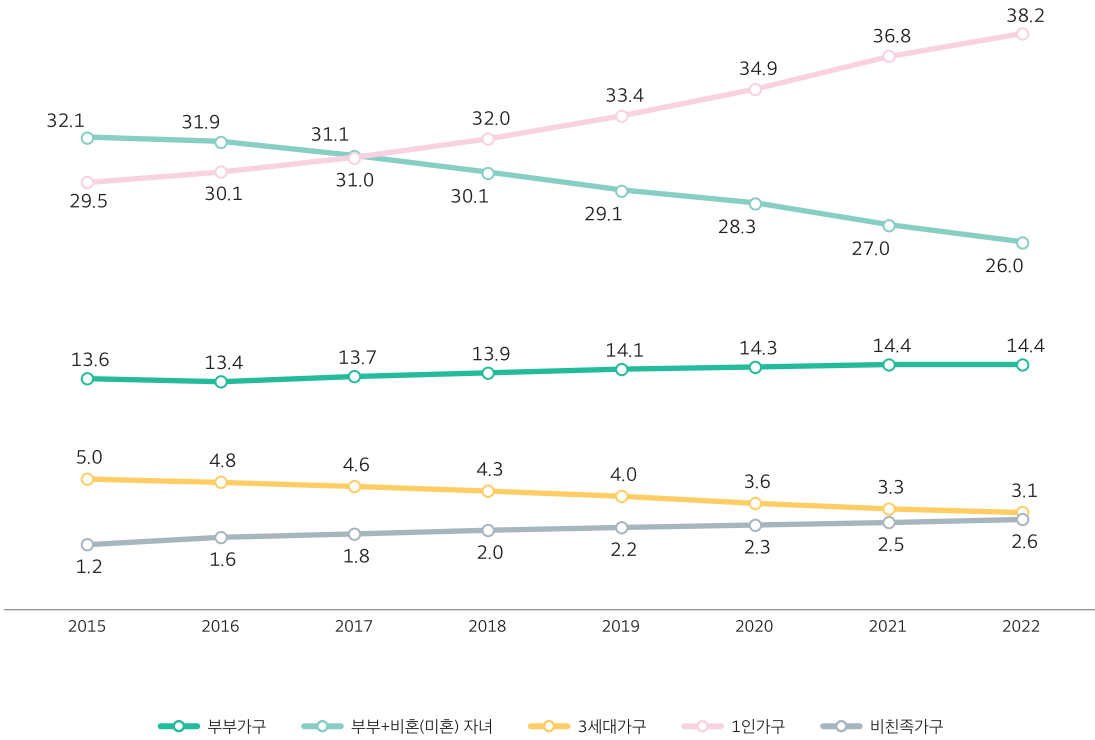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2022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수(2015-2022년)

<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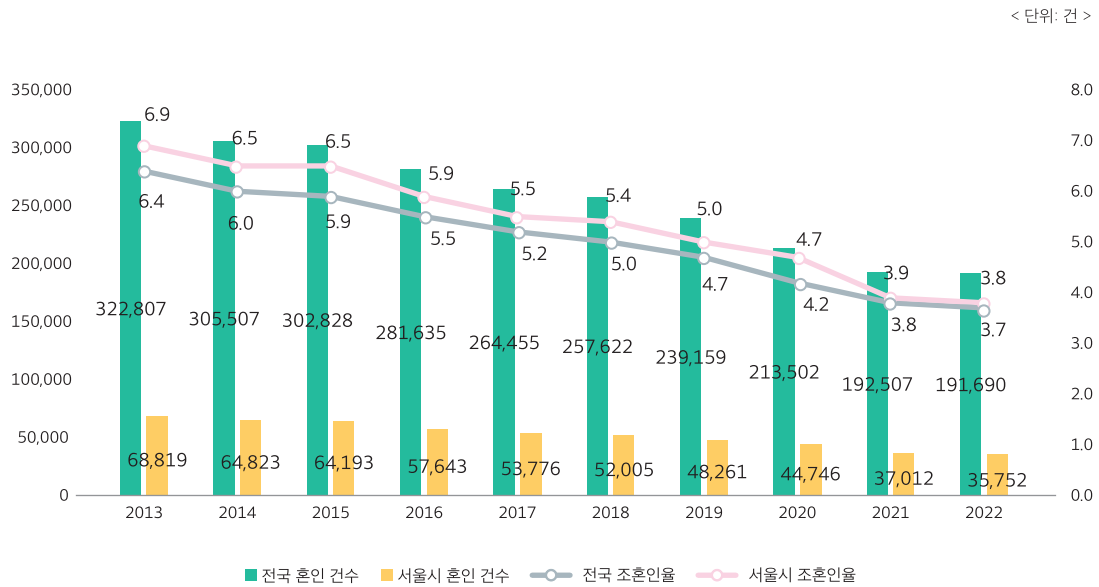
서울시의 가구형태별로는 부부와 비혼(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인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1,564,187가구(38.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부와 비혼(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1,067,097가구(26.0%), 부부가구 590,521가구(14.4%), 3세대가구 125,014가구(3.1%), 비친족가구 107,951가구(2.6%) 순입니다.

02.

혼인 및 신혼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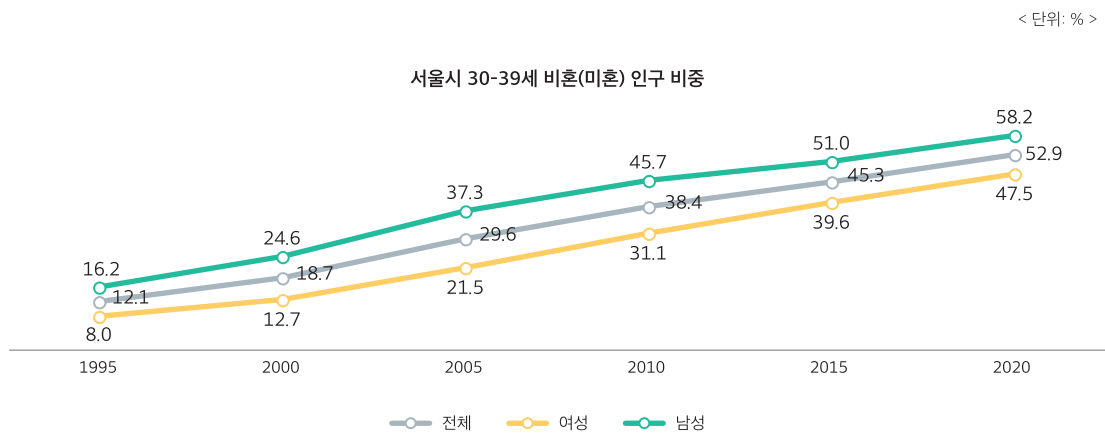
서울시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13-2022년)



주: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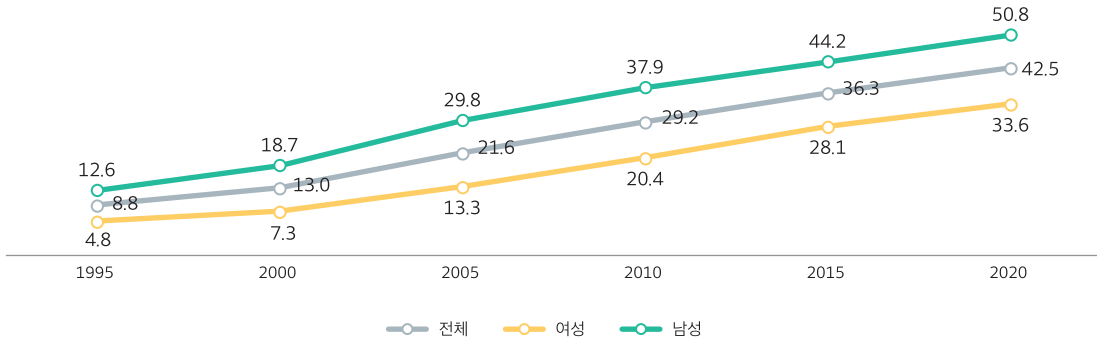
서울시의 총 혼인 건수는 35,752건, 조혼인율은 3.8건입니다(2022년 기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시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30-39세 비혼(미혼) 인구 비중(1995-2020년)



전국 30-39세 비혼(미혼) 인구 비중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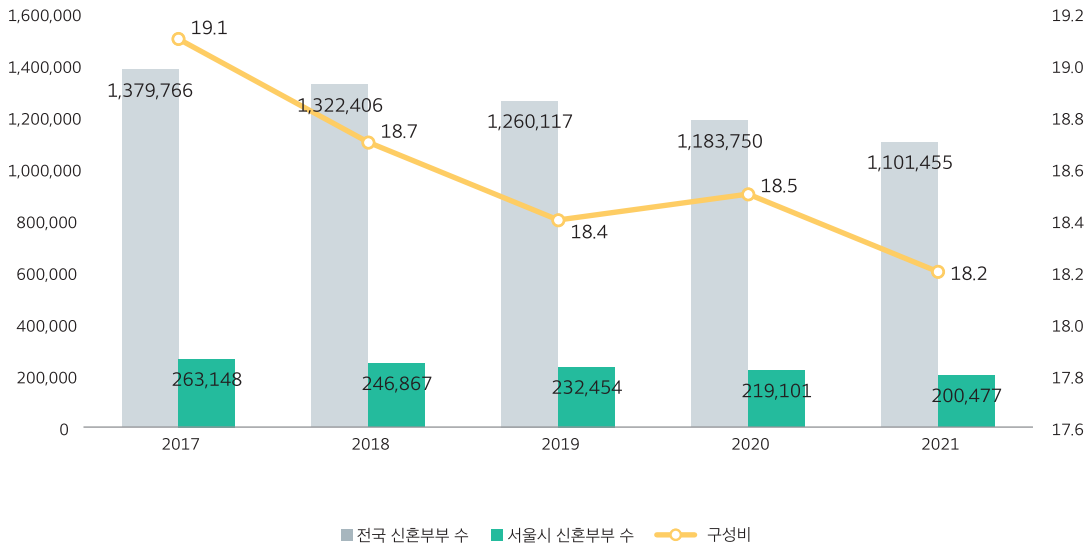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의 비중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30대 인구 중 비혼(미혼) 인구의 비율은 여성 47.5%, 남성 58.2%입니다(2020년 기준). 30대 비혼(미혼) 인구의 비중은 여성과 남성 모두 서울시가 전국보다 높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수(2017-2021년)

< 단위: 쌍, % >



주: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5년 미만 경과한 부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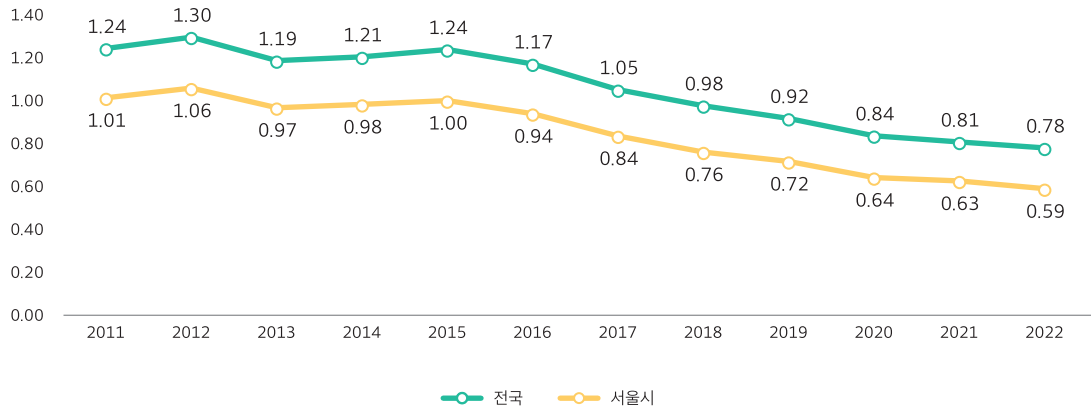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총 200,477쌍(2021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는 송파구(14,829쌍)이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자치구는 종로구(2,249쌍)입니다.

03.

출생

서울시 합계출산율(2011-2022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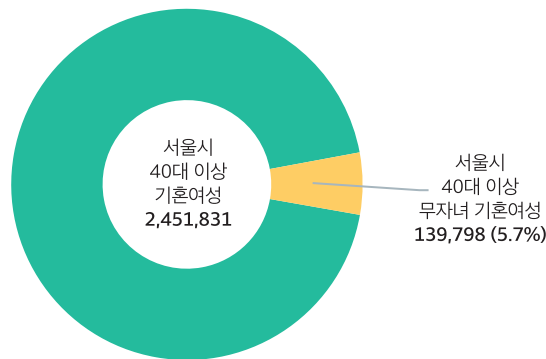


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월 인구동향, 2022.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 0.5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시 무자녀 기혼여성 수(2020년)

<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40대 이상 기혼상태의 서울시 거주 여성 중 5.7%(139,798명)는 자녀가 없습니다(2020년 기준).

서울시 초혼 신혼부부 자녀 수(2017-2021년)

< 단위: 쌍, % >



주: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5년 미만 경과한 부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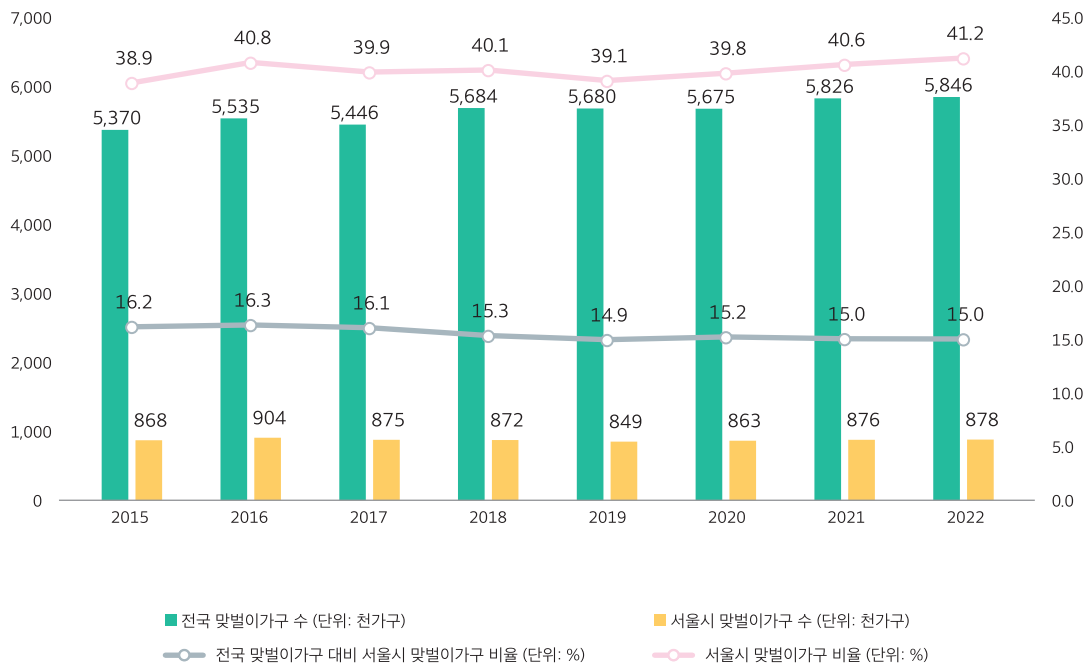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미만 경과) 중 53.5%(92,430쌍)는 자녀가 없습니다(2021년 기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04.

맞벌이가구

서울시 맞벌이가구 수(2015-2022년)

< 단위: 천가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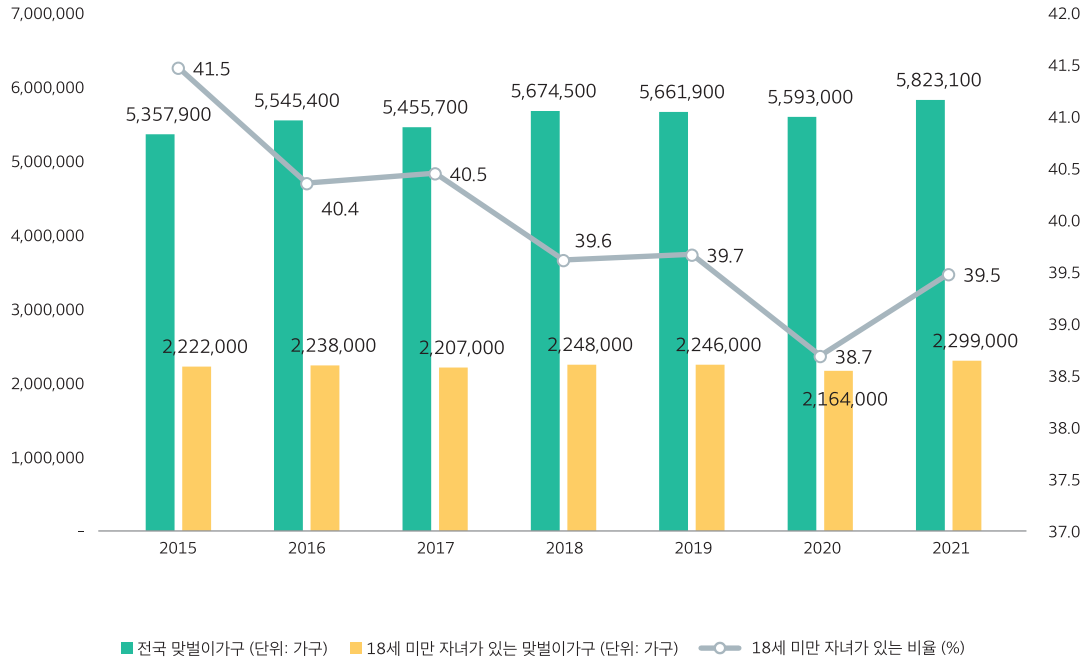
주: 1) 맞벌이가구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임
 2) 맞벌이가구 비율 = (맞벌이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전국 맞벌이가구의 15.0%(약 87만 8,000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유배우자 가구의 41.2%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
 서울시 맞벌이가구의 수 및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국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 비중(2015-2021년)

< 단위: 가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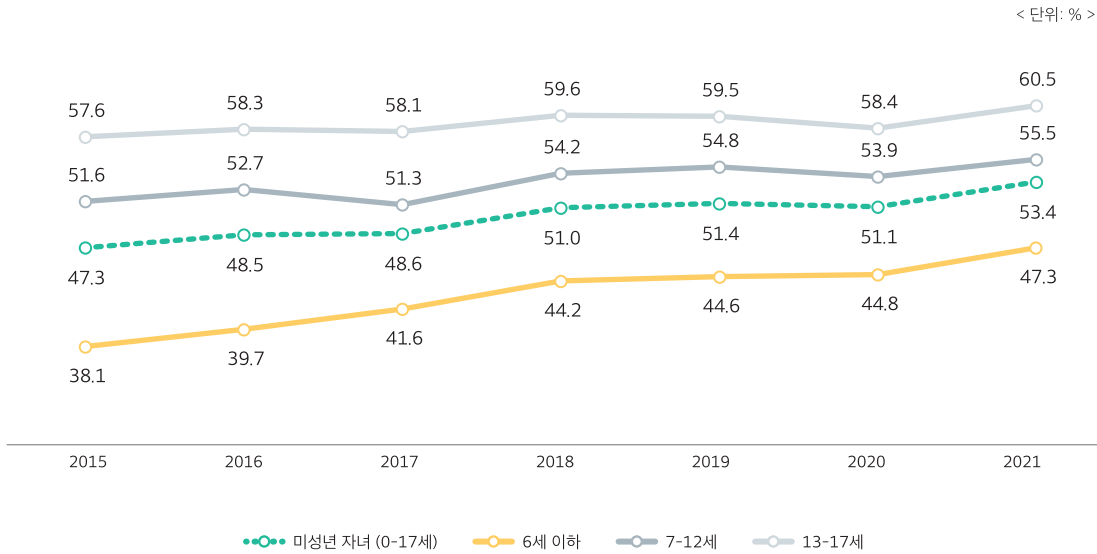


주: 1)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맞벌이가구 비율 = (맞벌이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전국 맞벌이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는 39.5%(229만 9,000가구)입니다(2021년 기준). 즉, 맞벌이가구 중에는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보다 많습니다.

전국 막내 자녀 연령별 맞벌이가구 비율(2015-2021년)



주: 1)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율임
 2) 맞벌이가구 비율 = (맞벌이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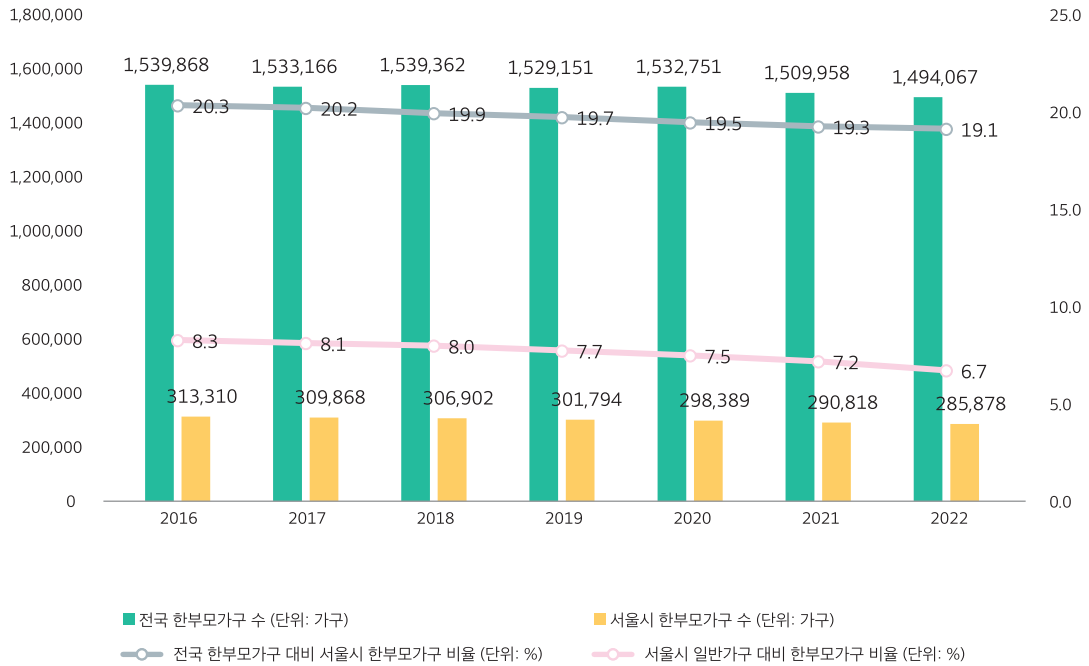
전국에서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둔 맞벌이가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에서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13-17세)인 가구의 60.5% > 막내 자녀가 7-12세인 가구의 55.5% > 막내 자녀가 6세 이하 자녀인 가구의 47.3%가 맞벌이가구입니다(2021년 기준).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면, 막내 자녀가 영유아(6세 이하)인 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5.

한부모가구

서울시 한부모가구 수(2016-2022년)

< 단위: 가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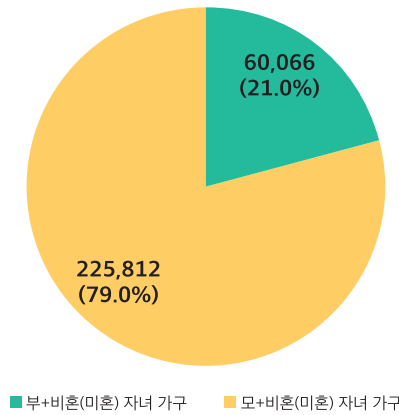
주: 1) 한부모가구란 비혼(미혼) 자녀와 비혼(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비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로 이뤄진 가구를 의미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전국 한부모가구의 19.1%(285,878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6.7%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구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모 성별에 따른 서울시 한부모가구 분포(2022년)

<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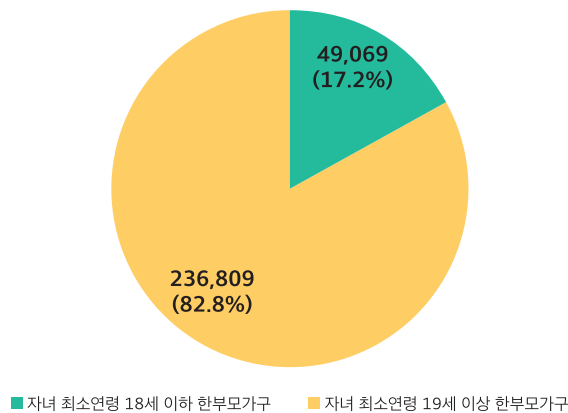
주: 1) '부+비혼(미혼) 자녀 가구':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 이외에 기타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모두 포함함
 2) '모+비혼(미혼) 자녀 가구'는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로만 이뤄진 가구,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 이외에 기타 가구원으로 이뤄진 가구를 모두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서울시 한부모가구 중 79.0%(225,812가구)는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이며, 21.0%(60,066 가구)는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로 이뤄진 가구입니다(2022년 기준).

자녀연령별 서울시 한부모가구 분포(2022년)

<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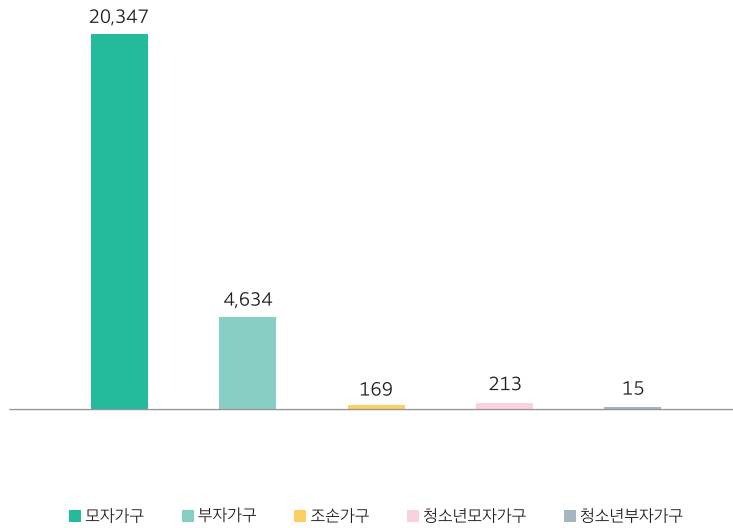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서울시 한부모가구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는 17.2%(49,069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 유형별 서울시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2022년)

< 단위: 가구 >



주: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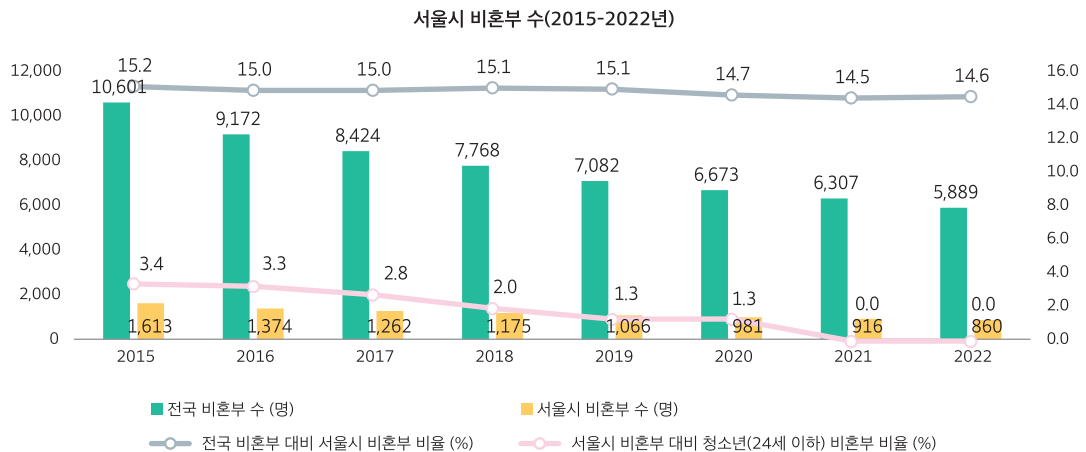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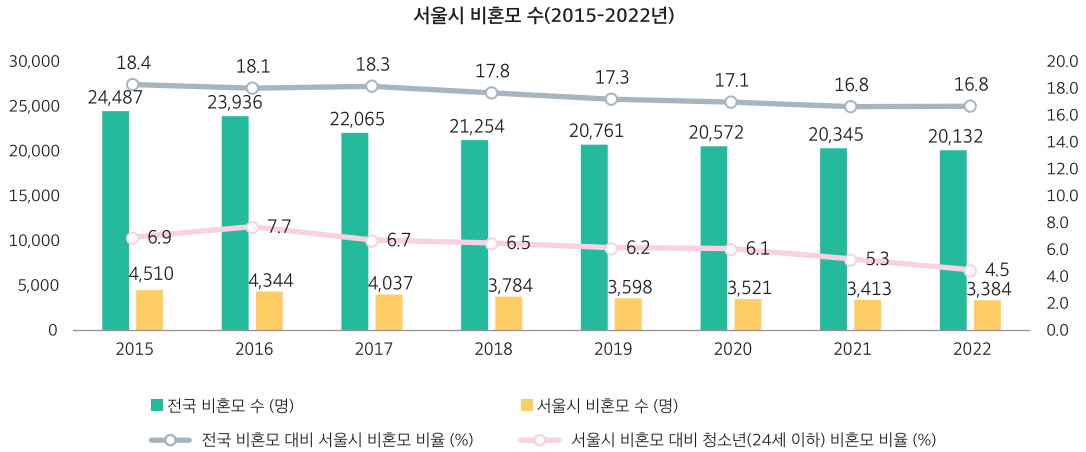
서울시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 모자가구가 80.2%(20,347가구), 부자가구가 18.3%(4,634가구), 청소년모자가구가 0.8%(213가구), 조손가구가 0.7%(169가구), 청소년부자가구가 0.1%(15가구를 차지합니다(2022년 기준).

06.

비혼모(부), 청소년모(부), 조손가구

서울시 비혼모(부) 수(2015-2022년)

< 단위: 명, % >



주: 1) 비혼모(부)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엄마 또는 아빠를 의미함

2) 청소년 비혼모(부)란 24세 이하인 비혼모(부)를 의미함

3) 원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5 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에 따라, 본 그래프에서 X는 0으로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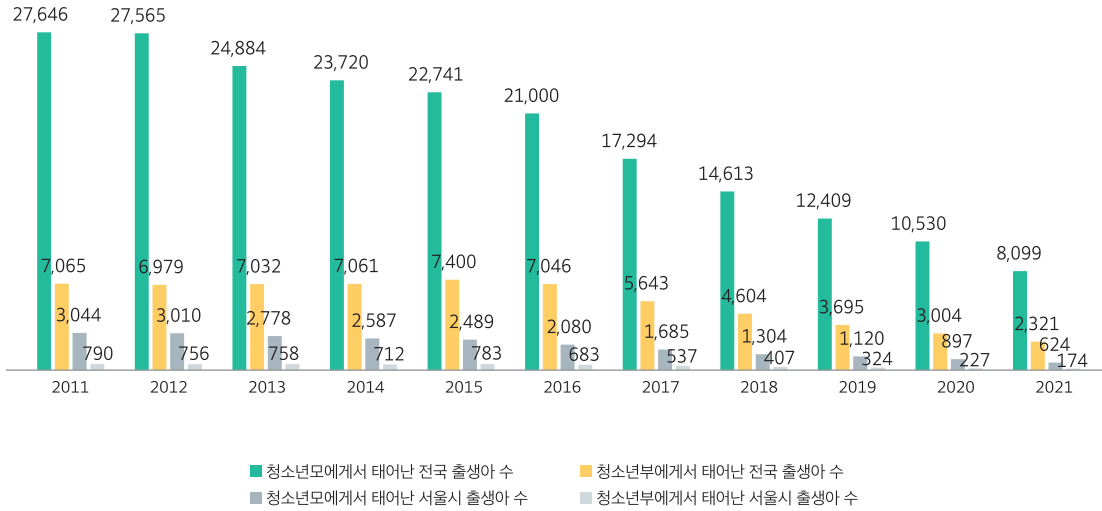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전국 비혼(미혼) 엄마의 16.8%(3,384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5%(153명)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비혼(미혼) 엄마입니다(2022년 기준). 전국 비혼(미혼) 아빠의 14.6%(860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4세 이하 청소년 비혼(미혼) 아빠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혼(미혼) 엄마, 아빠의 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청소년모(부)의 출생아 수(2011-2021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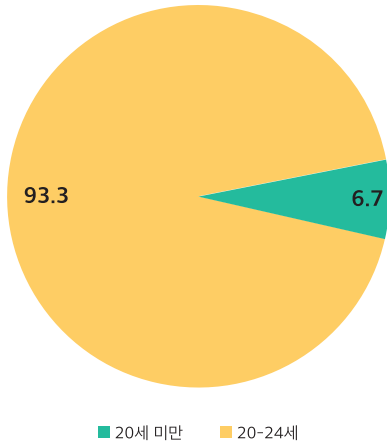
전국 및 서울시 청소년모(부)의 출생아 수(2011-2021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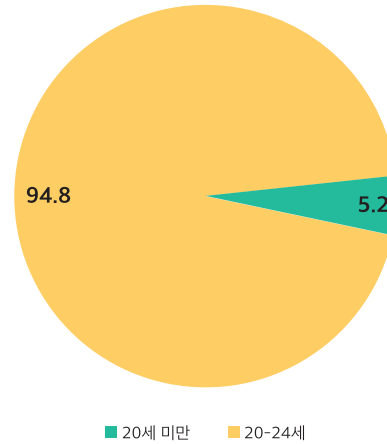
청소년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2021년)

< 단위: % >



청소년부의 연령별 출생아 수(2021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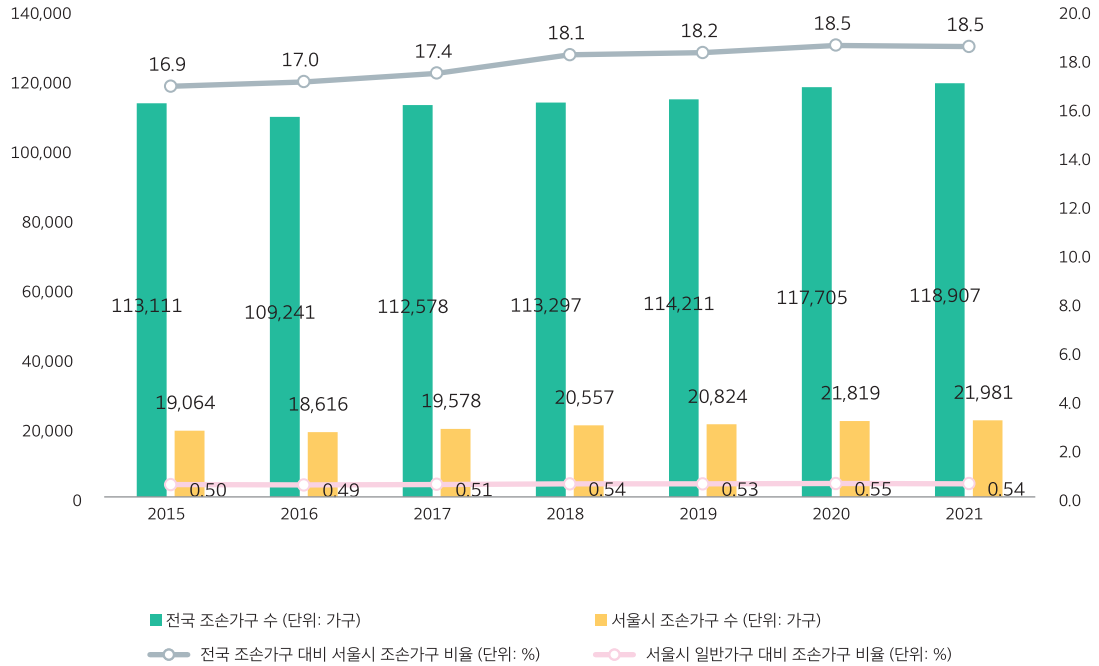
주: 1)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그래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의 출생아 수 통계를 각각 제시함
2) 청소년모는 24세 이하인 모를 의미하며, 청소년부는 24세 이하인 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출생아 45,531명 중 624명(1.4%)은 엄마가 청소년(9-24세)이고, 174명(0.38%)은 아빠가 청소년(9-24세)입니다(2021년 기준). 그러나 청소년 엄마, 아빠 중 미성년자는 많지 않습니다. 9-24세 엄마를 둔 출생아의 6.7%(42명), 9-24세 아빠를 둔 출생아의 5.2%(9명)만이 20세 미만 엄마, 아빠를 두었습니다.

서울시 조손가구 수(2015-2021년)

< 단위: 가구, % >



주: 1) 조손가구는 (외)조부모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이하 (외)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와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한 명과 미혼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이하 (외)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로 분류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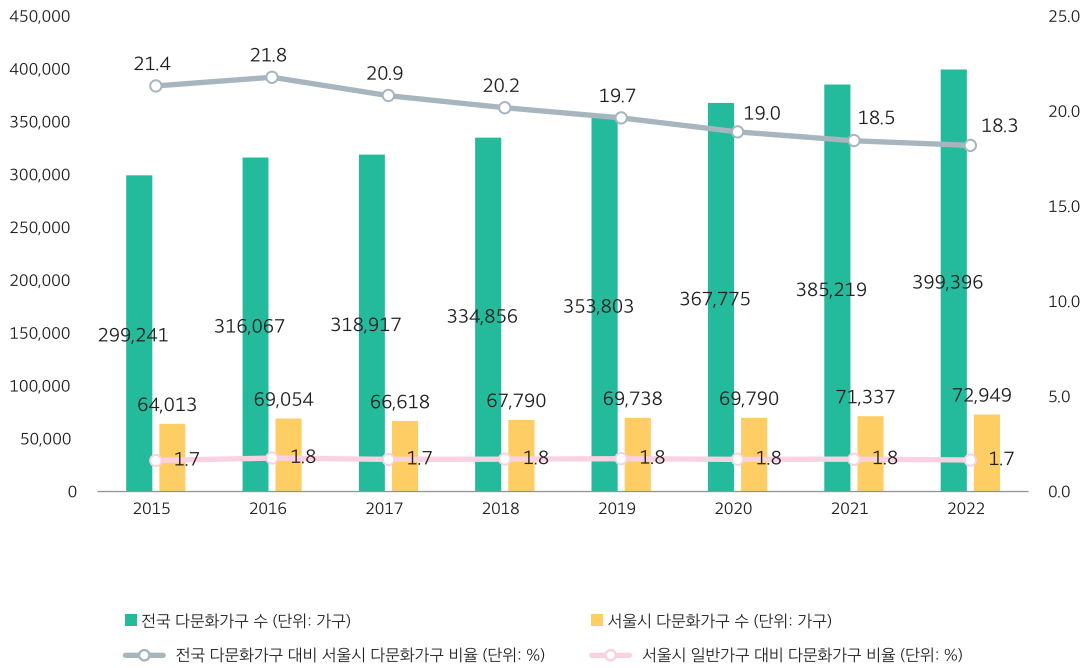
전국 조손가구의 18.5%인 21,981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서울시 조손가구는 2016년 이후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총 일반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7.

다문화가구

서울시 다문화가구 수(2015-2022년)

< 단위: 가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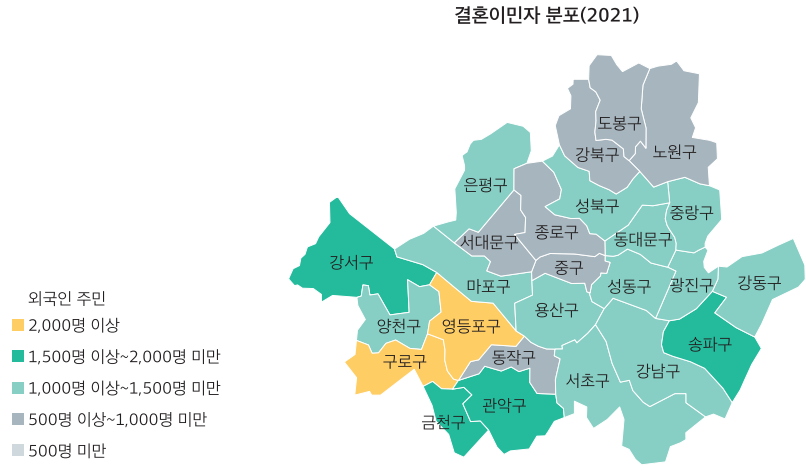
주: 1) 다문화가구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혼인해서 이뤄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전국 다문화가구의 18.3%인 72,949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1.7%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

서울시 결혼이민자 분포: 자치구별(2021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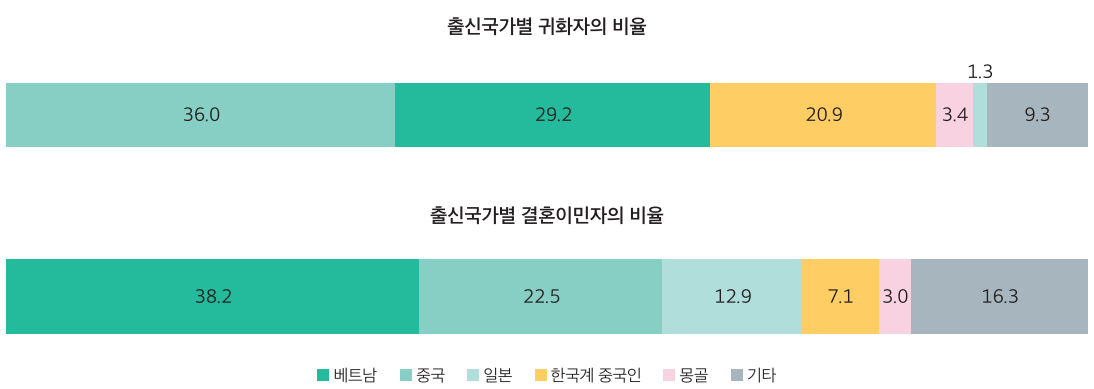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1.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송파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에도 비교적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서울시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의 비율: 출신국가별(2022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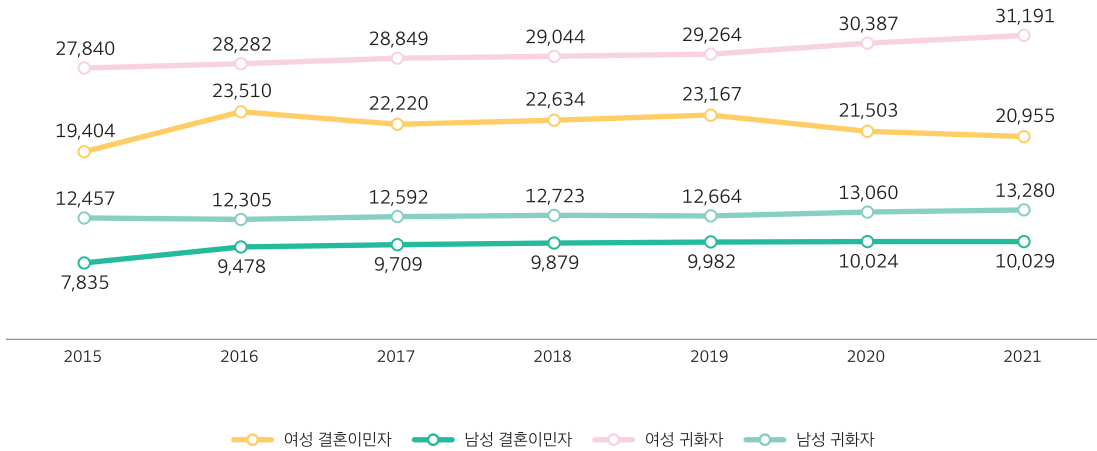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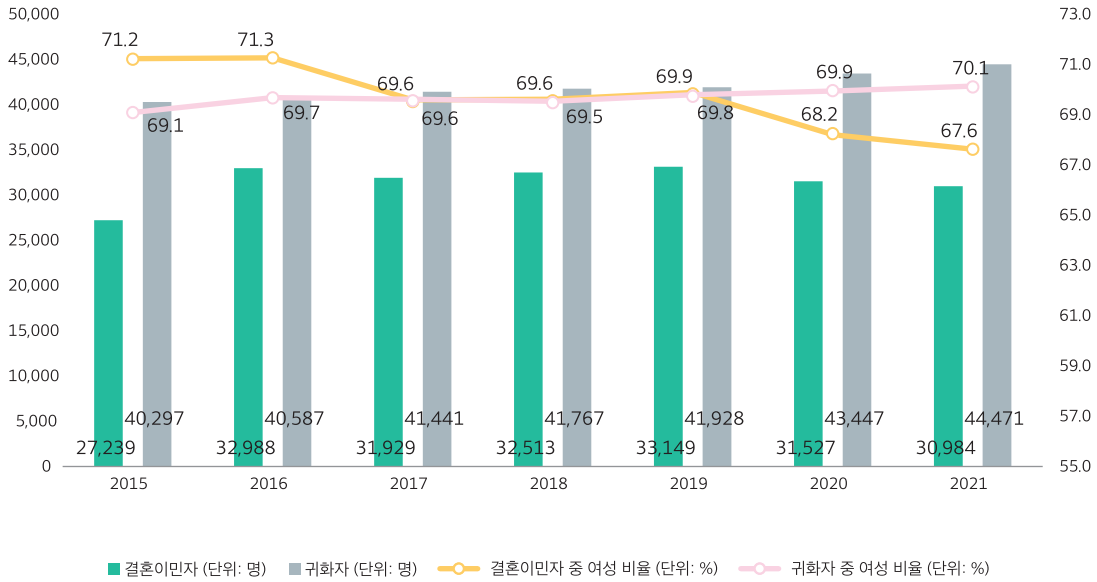
주: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내국인 또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의미함
 2) 귀화자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의미함

자료: 서울시,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22.

2022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귀화자'의 출신국가는 중국(36%) > 베트남(29.2%) > 한국계 중국인(20.9%) > 몽골(3.4%) > 일본(1.3%)의 순입니다(2022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베트남인(38.2%) > 중국인(22.5%) > 일본인(12.9%) > 한국계 중국인(7.1%) > 몽골인(3.0%) 순입니다.

서울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성별(2015-2021년)

<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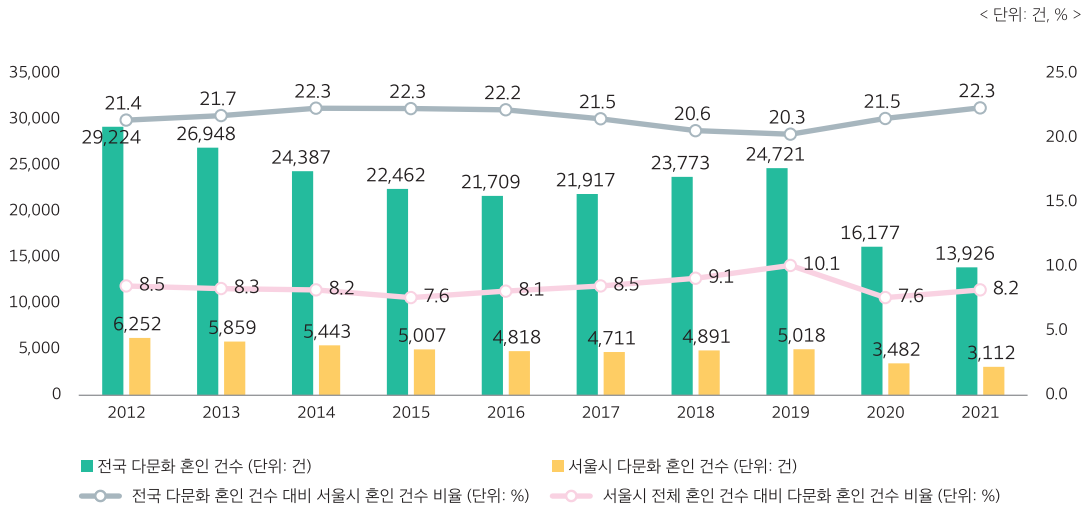


주: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내국인 또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의미함
 2) 귀화자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가구의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는 30,984명, 귀화자는 44,471명입니다(2021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67.6%, 귀화자 중 70.1%가 여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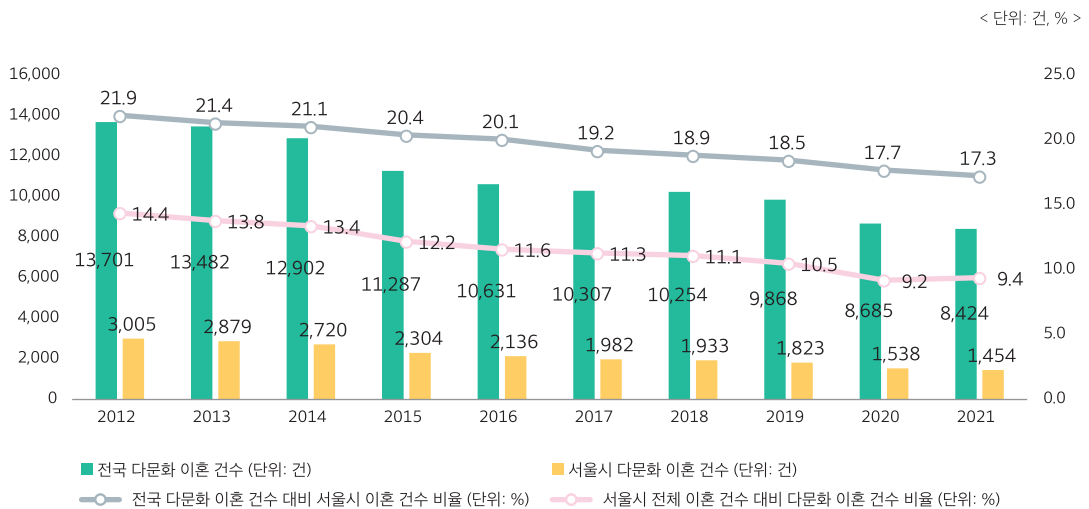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2012-2021년)



주: 다문화 혼인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는 서울시 전체 혼인 건수의 8.2%인 3,112건입니다(2021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2012-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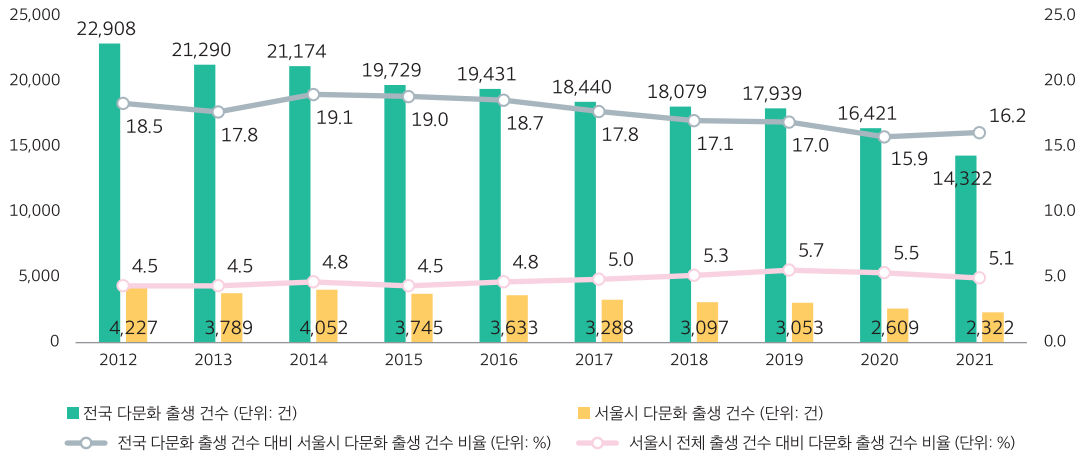


주: 다문화 이혼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이혼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는 서울시 전체 이혼 건수의 9.4%인 1,454건입니다(2021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2012-2021년)

< 단위: 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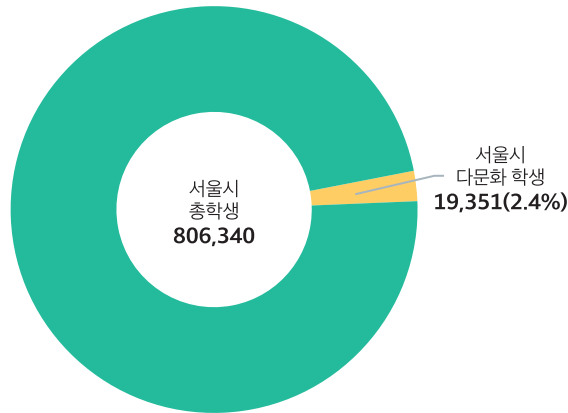


주: 다문화 출생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는 서울시 전체 출생 건수의 5.1%인 2,322건입니다(2021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수(2022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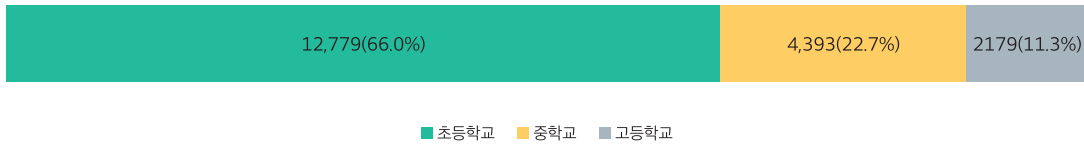


주: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합으로 계산함.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2022.

서울시 거주 다문화 초·중·고등학생은 19,351명이며,
 이는 서울시 총 초·중·고등학생 수의 2.4%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

학제별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분포(2022년)

< 단위: 명, % >



주: 1)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합으로 계산함.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함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학교(예. 대안학교 등)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시 거주 각종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162명임(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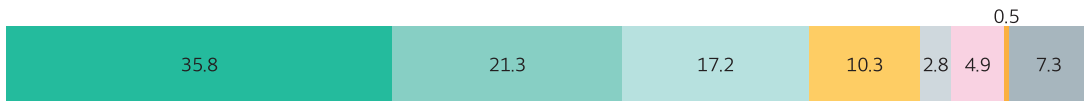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2022.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이 66.0%(12,779명), 중학생이 22.7%(4,393명), 고등학생이 11.3%(2,179명)를 차지합니다(2022년 기준).

다문화 부모가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2022년)

< 단위: % >

서울시 거주 귀화자 부모가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부모가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부담
-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 학부모회, 봉사활동 등 학부모 활동 참여의 어려움
- 자녀의 학습 지도, 학업 관리의 어려움
- 자녀와의 대화 부족
- 어려움 없음
- 자녀의 응주, 휴연, 가출 등의 문제

자료: 서울시,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

2022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귀화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을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귀화자는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21.3%), 자녀의 학습 지도, 학업 관리의 어려움(17.2%), 자녀와의 대화 부족(10.3%) 순이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자녀의 학습 지도, 학업 관리의 어려움(20.5%),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17.3%), 자녀와의 대화 부족(8.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서비스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교과목 학습지도에 대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에 ‘다문화엄마학교’를 시작한다. 서울시 소재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주요 교과목 내용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부모코칭(인식개선 및 의사소통 기술 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동요, 동화 등 교구활용 및 놀이활동),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부모지지체계 형성), 가족코칭(가정방문 및 초청을 통한 코칭 교육)을 제공한다.

분류	시간	내용
부모코칭		
노래(중국어)	09:00-10:00	이중언어 대화(중국어) 및 한국어-중국어
노래(한국어)	10:00-11:00	부모-자녀 상호작용 활동(동요, 동화) 및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동요, 동화) 활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노래(중국어)	11:00-11:50	이중언어 대화(중국어) 및 한국어-중국어
노래(한국어)	11:50-12:40	부모-자녀 상호작용 활동(동요, 동화) 및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동요, 동화) 활용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12:40-13:30	이중언어 대화(중국어) 및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13:30-14:20	이중언어 대화(중국어) 및 한국어-중국어

자료: https://global.seoul.go.kr/web/news/senw/bordContDetail.do?mode=W&brd_no=5&post_no=053544E781CD0198E063C0A8A0230940&lang=KO

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前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2018년에 설립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원(한국어 기본교육, TOPIK 과정 등), 교육 지원(방과후 멘토링지원,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특화교육 등), 맞춤 지원(상담, 진로 체험, 귀화시험 등), 적응 지원(한국사회 이해교육, 글로벌 문화탐방, 체육대회, 캠프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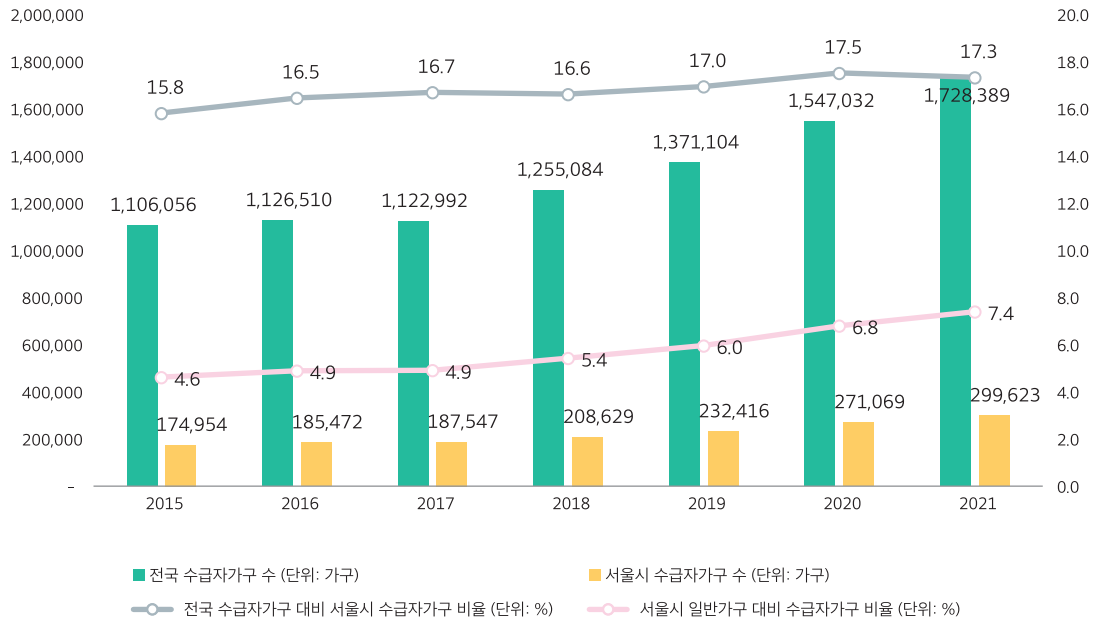
자료: <https://seoulgyec.or.kr>

08.

수급가구

서울시 수급가구 수(2015-2021년)

< 단위: 가구, % >



주: 1) 각 연도 12월에 측정된 수치임

2) 저소득층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때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는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이하 수급가구로 용어 통일)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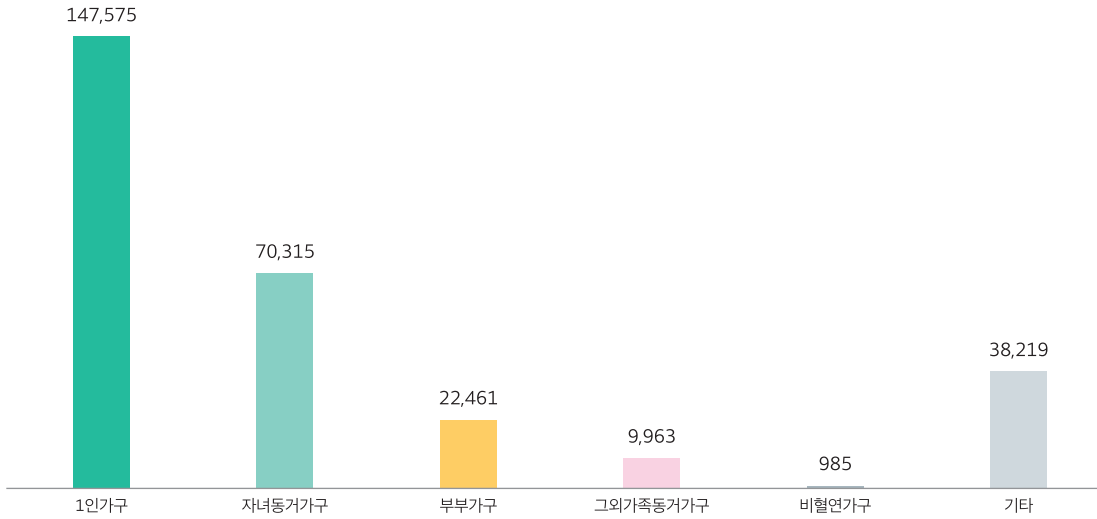
3)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각 연도.

전국 수급가구의 17.3%인 299,623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7.4%에 해당합니다(2021년 기준). 수급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일반수급자가구 분포: 가구구성별(2021년)

< 단위: 가구 >



- 주: 1) 부부가구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2) 비혈연가구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3) 자녀동거가구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4) 그외가족동거가구란 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5) 기타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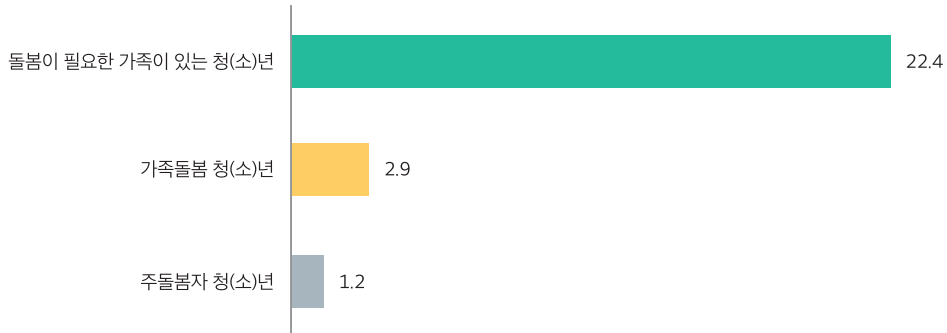
가구구성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특성은 1인가구(147,575가구) > 자녀동거가구(70,315가구) > 부부가구(22,461가구) > 그 외 가족동거 가구(9,963가구) > 비혈연가구(985가구) > 기타 가구(38,219가구)의 순입니다(2021년 기준).

09.

가족돌봄청(소)년

전국 가족돌봄청(소)년 추정치(2022년)

< 단위: % >



- 주: 1)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소)년은 13-34세의 청(소)년 중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또는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의미함
 2) 가족돌봄청(소)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소)년 중 해당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의미함
 3) 주돌봄자 청(소)년은 가족돌봄 청(소)년 중 본인이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13-34세 청(소)년 응답자 3만 5,101명 중 22.4%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소)년이었으며, 2.9%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1.2%는 주돌봄자 청(소)년이었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추정치(2022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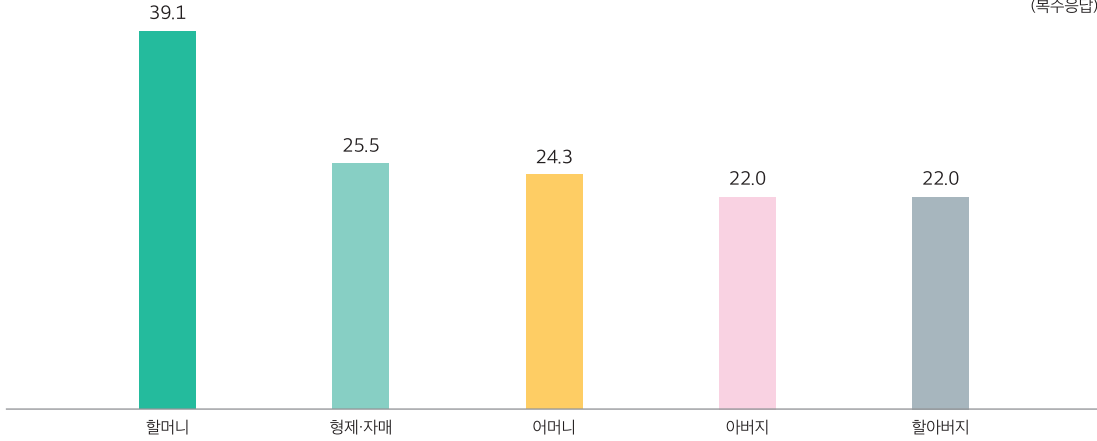
자료: 전아름(2023, 4, 19).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900명 찾았다...지원방안 마련 추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1>

2022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응답자인 서울시 거주 14-34세 청(소)년 2,988명 중 30.1%가 가족돌봄청(소)년이었습니다.

전국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 대상자(2022년)

<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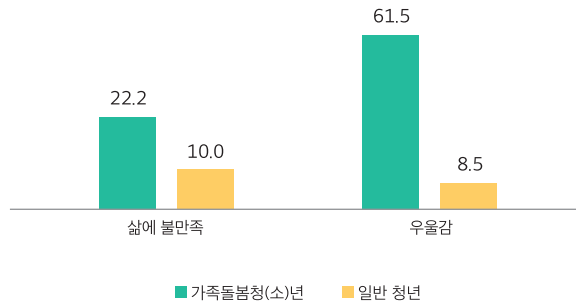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 돌보는 대상은 39.1%가 할머니, 25.5%가 형제·자매, 24.3%가 어머니, 22.0%가 아버지, 22.0%가 할아버지입니다.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감 유병률(2022년)

< 단위: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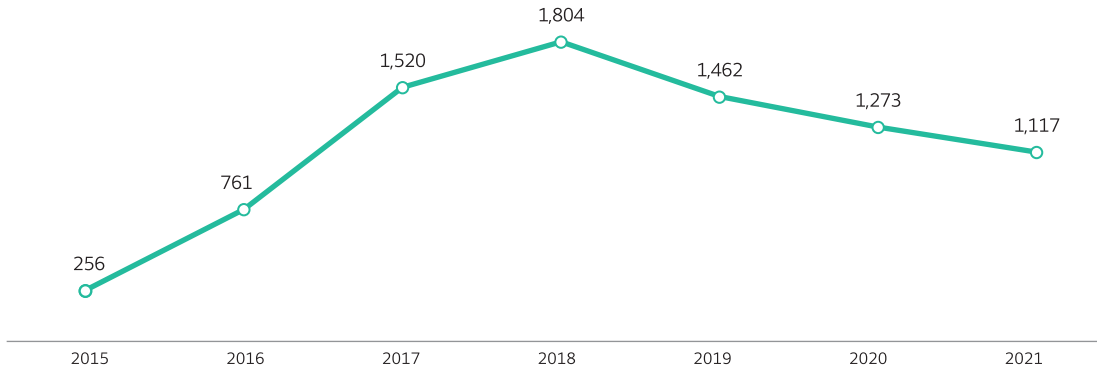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 중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22.2%)은 일반 청년(1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감 유병률(61.5%)은 일반 청년(8.5%)에 비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10.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서울시 여성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2015-2021년)

<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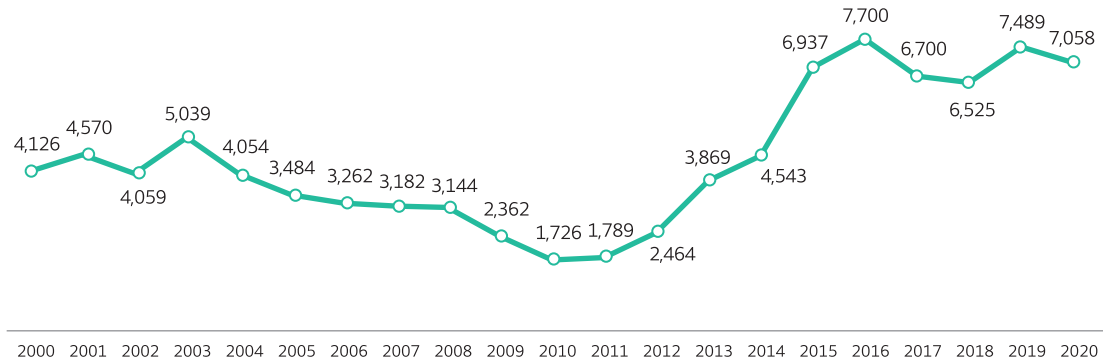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운영실적, 각 연도.

서울시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에 1,117건으로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건수(2000-2020년)

<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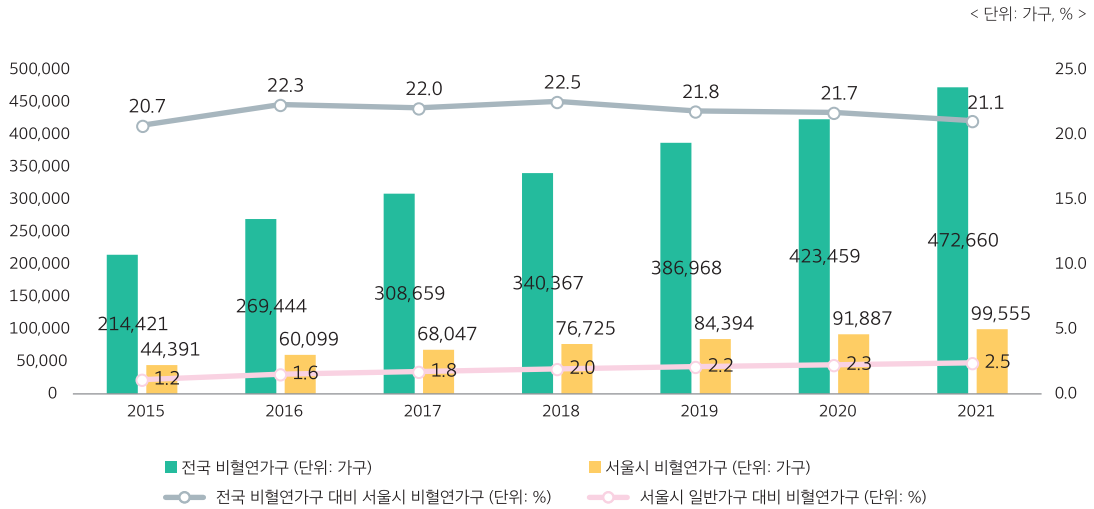
주: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임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각 연도.

서울시의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20년에 7,058건입니다.

11.

비혈연가구

서울시 비혈연가구 수(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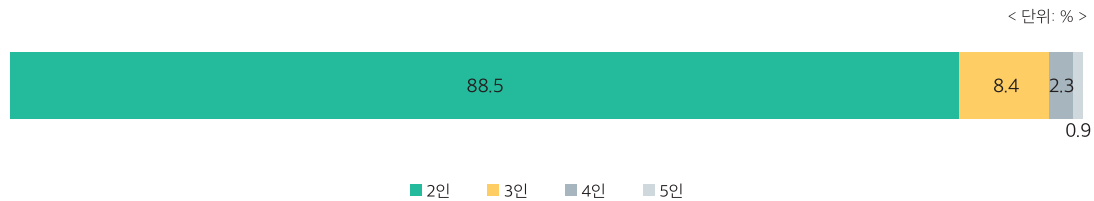


주: 1) 비혈연가구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임. 비혈연인 6인 이상의 가구는 집단가구로 따로 분류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 이외에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비혈연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전국 비혈연가구의 21.1%(99,555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2.5%에 해당합니다(2021년 기준). 서울시 비혈연가구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혈연가구 가구원 수(2021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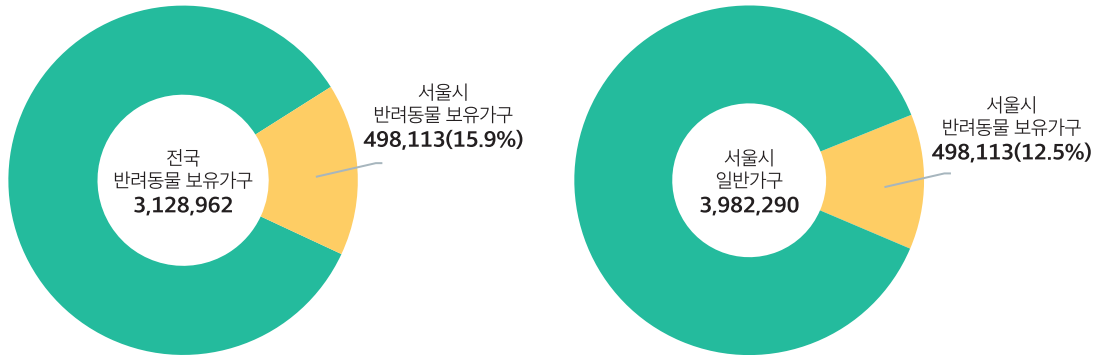
서울시 비혈연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이며, 2인으로 구성된 비혈연가구가 8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2021년 기준).

12.

반려동물 보유가구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2020년)

<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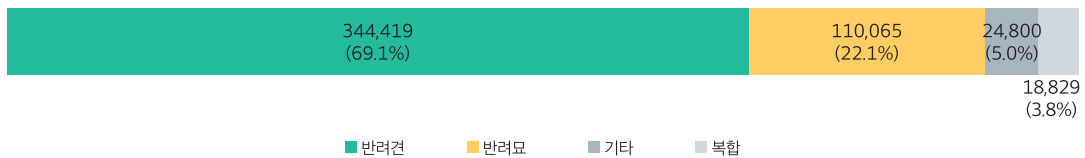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15.9%인 498,113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12.5%에 해당합니다(2020년 기준).

반려동물 종별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 분포(2020년)

<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반려동물을 보유한 서울시 가구의 69.1%가 반려견을, 22.1%가 반려묘를 키웁니다(2020년 기준).

부록

2015-2022 서울가족보고서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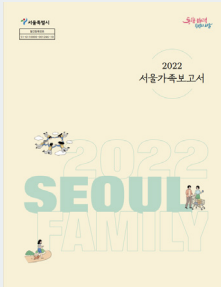
2015-2022 서울가족보고서

부록. 2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01. 2015-2022 서울가족보고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가족 현황 및 가족 관련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2022 서울가족보고서



2021 서울가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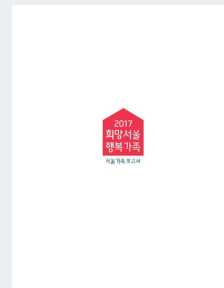
2020 서울가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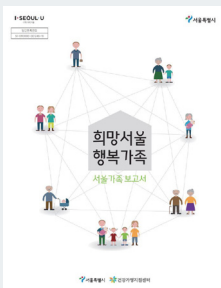
2019 서울가족보고서



2018 서울가족보고서



2017 서울가족보고서



2016 서울가족보고서



2015 서울가족보고서

02.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돌봄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총괄하는 서울 시가족센터(광역)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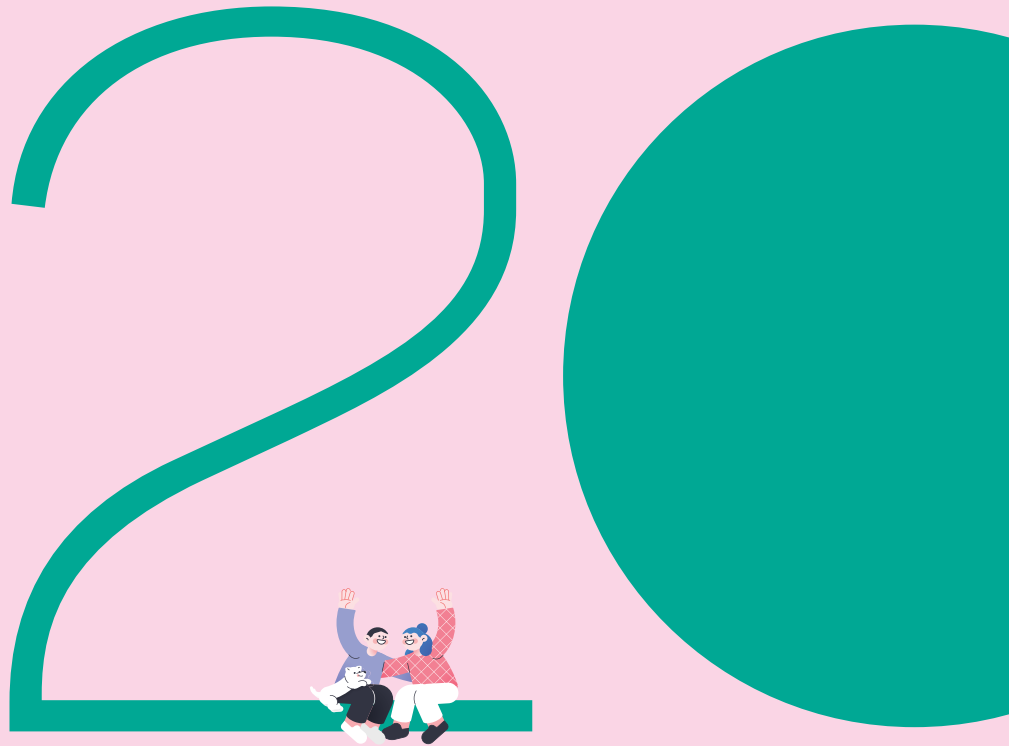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광역기관)	중구 소파로4길 6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www.gangnam.go.kr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 1634 3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29길 6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문화복지기념관 3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광진구	서울 광진구 능동로30길 23, 2층	02-458-0622	gwangjin.familynet.or.kr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 3층	02-869-0317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02-803-7747	geumchfc.familynet.or.kr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	nowon.familynet.or.kr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dobong.familynet.or.kr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 7층	02-957-0760	ddmhfc.familynet.or.kr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3층	02-599-3301	dchfc.familynet.or.kr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2-3142-5482	mapo.familynet.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북가좌파출소 2층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 10길 10-20 4, 5층	02-576-2852	seocho.familynet.or.kr
서울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sujung.familynet.or.kr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홍익동) 3층	02-3395-9447	sdfc.familynet.or.kr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sbfc.familynet.or.kr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songpa.familynet.or.kr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02-2065-3400	yhc.familynet.or.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846-5432	ydpfc.familynet.or.kr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복합문화센터 3층	02-797-9184	yongsan.familynet.or.kr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21가길 15-17	02-376-3761	eunpyeong.familynet.or.kr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4	jongno.familynet.or.kr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jungnang.familynet.or.kr

2023 서울가족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
기획·편집	서울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과
집필진	이재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박인숙(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지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신하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윤보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가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3. 12.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ISSN	3022-4179 (Online)



본 보고서의 표지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시가족센터
SEOUL FAMILY CENTER

